



13개국 15명의 해외 통신원이 전하는 한류 소식

2011

한류 동향 보고서

2011.12.19

KOFICE

(재)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e Exchange

목 차

I. 목차 -----	i
II. 해외 통신원 소개 -----	iii
III. 2011 해외 한류동향 각 국가별 주요 사항 -----	v

<2011 해외 한류 동향>

【아시아 지역】

1. 일본(도쿄) -----	1
2. 중국(베이징) -----	25
3. 중국(상하이) -----	35
4. 중국(홍콩) -----	41
5. 대만(타이페이) -----	51
6. 태국(방콕) -----	75
7. 베트남(하노이) -----	105
8. 인도네시아(자카르타) -----	111
9.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	117
10. 몽골(울란바토르) -----	127
11. 카자흐스탄(알마티) -----	139
12.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	145

13. 인도(뉴델리) -----	151
-------------------	-----

【미주 지역】

1. 브라질(상파울루) -----	159
--------------------	-----

【유럽 지역】

1. 프랑스(파리) -----	177
------------------	-----

통신원 소개

지역	국가 (도시)	성명	약력
아시아	일본 (도쿄)	한도 치즈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쿄대 사회학과 졸업, 서강대 사회학과 문학석사 - 현재) 도쿄 펠리스여학원대학 한국어 강사 <li style="padding-left: 20px;">세이케이대학 한국어 강사 <li style="padding-left: 20px;">무사시노 대학 강사 <li style="padding-left: 20px;">도쿄 외국어대학 한국어 강사
	중국 (베이징)	손성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경대학교 역사학계 대학원 석사 - 현재) 동 대학원 박사 과정 중 <li style="padding-left: 20px;">북경 향삼 국제교육문화교류중심 외연부팀장
	중국 (상하이)	장진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한유통 근무 - 현재) 아주(북경)문화전파유한공사 지사장
	중국 (홍콩)	이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졸 - KBS 한국방송 교양제작부 작가 - 여성동아 편집부 기자 - 현재) 일본계 무역회사 MP(해외마케팅 매니저)
	대만 (타이페이)	홍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대학교 통상통역중국어학과 졸업 - 현재) 국립대만대학교 국가발전연구소 석사 과정
	태국 (방콕)	윤경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Assumption University(전공: 마케팅) - 삼성전기(주) 태국법인 GOC 근무 - 홍익대학교 한국어교사 양성과정 수료
	베트남 (하노이)	웬민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베트남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근무 - 현재) 주베트남 한국문화원 근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신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현재) 인도네시아 자동차부품 회사 근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김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도 중소기업청 해외시장개척요원 선정 - 현재) 계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과정 중 <li style="padding-left: 20px;">㈜씨앤이캐스트 말레이시아 대표사무소 근무

지역	국가 (도시)	성명	약력
아시아	몽골 (울란바토르)	몽흐 자르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어과 졸업 - 한국국제협력단(KOICA) 몽골 사무소 행정원 - 서울대학교 한국학 석사 - 몽골 행정대학원 경영학 석사 - 현재)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행정원
	카자흐스탄 (알마티)	안창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자흐스탄 국립음악원 대학원(석사) - 카자흐스탄 국립 ABAY 사범대학교 전임교수 - 현재) 카자흐스탄 예술 아카데미 교수 카자흐스탄 국영방송국 '고려사람(TV)' 아나운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이명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릭 인터네셔널 근무 - 한국 P&G 근무 - EDELMAN 기업 PR 마케팅 관리부 팀장 - 현재) KBS 라디오 '한민족 하나로' 통신원
	인도 (뉴델리)	김현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국립네루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수료 - 이슬람국립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 현재) 인도 뉴델리에서 문화사업 활동 중
미주	브라질 (상파울루)	임정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 전) 한국문화 강사 - 현재) 국제 무역회사 운영
유럽	프랑스 (파리)	민지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 3 소르본 누벨 대학 문화경영학과 대학원 석사 - 현재) 동 대학원 박사 과정 중 파리 소르본 대학 아시아연구소 CHAC 연구원 프랑스 사회문화 연구기관 Cerlis연구소 연구원

<2011 해외 한류 동향 각 국가별 주요사항>

1. 일본

가. 새로운 한류스타의 등장

- 장근석 신(新)한류스타로 성장
- 드라마 <미남이시네요>, <메리는 외박중> 등으로 주목받고 인기를 얻으면서 일본 내 새로운 한류스타로 성장

나. K-Pop

- 특징: K-Pop을 일본식으로 소화해서 아티스트적으로 풀어내는 현상이 보임
- 젊은 층의 지지가 높아짐. 특히 콘서트장을 찾는 젊은 남성팬들이 수면 위로 떠오름
- 한국에서 비유명인이 일본에서 활동을 통해 유명해진 경우도 있음
- 각종 아이돌 그룹을 패러디한 그룹들의 등장
- 6월부터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을 위한 자선공연 및 이벤트가 활발히 전개됨

다. 반한류

- 반한류의 유형
 - a) 반한류 데모 시위: 인터넷 사크라찬을 통해서 시위대를 모으고, 반한류를 지지하는 기업을 통해 지원을 받음
 - b) 반한류 도서 출판: '한류는 다 거짓말이다'와 같은 한류 잡지 출판
- 반한류에 대한 일본 방송계의 반응: 한국 콘텐츠의 인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국 방송 콘텐츠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고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가 형성됨

라. 한스타일

- 12월 4일에 후쿠오카에서 열린 Elegant Collection의 경우 한국의 패션, 음식, 미용, 노래 등을 한데 모아 보여주는 하나의 쇼로 구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임

마. 향후 주목해야 할 분야

- 1) 게임 산업(한류동향 보고서 p.22 참고)
 - NHN재팬이 Livedoor를 인수합병한 이후 일본 게임업계에서 한게임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음
- 2) Jet Toy사의 Chou chou 고양이 캐릭터 상품의 인기
 - 2010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고양이 캐릭터 상품이 일본에서 큰 인기
 - 제품을 찾는 일본인들 중 대다수는 이 캐릭터가 한국산임을 모르고 구입함
 - > 일본의 캐릭터 시장에서 한국 캐릭터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제시해 줌

2. 중국(베이징)

가. 방송

□ 방송 매체 산업

- TV 방송: 2010년 대비 공중파로 방영 된 한국 드라마 편수, 시청률 모두 증가
 - a) 후난위성 방송국: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주도한 공중파 방송국
 - b) 중국 내 한국 드라마 프로그램 방송의 선두주자
 - c) <아내의 유혹>의 중국판 리메이크작 <귀갓길의 유혹> 방영, 큰 인기몰이
- 인터넷 방송
 - a) 인터넷 포털 '소후', 한국 드라마 전용 코너 개설 후 인터넷으로 제공함
 - > 콘텐츠 소비행태가 TV에서 인터넷으로 옮겨가는 만큼 시청자들에게 편의 제공 및 한국 드라마의 이윤 창출 통로를 만든 것으로 평가됨
 - b) 인터넷 방송국 PPTV, 한국 전용 코너 개설 후 한국 드라마 제공
 - > 향후 인터넷 방송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자 함. 3년 간 PPTV를 통해 제공될 한국 드라마는 600여 편, 총 재생시간 13,500 시간 예상

□ 방송 출연 경향

- 한국 배우들의 중국 드라마 출연 빈도 증가
- 과거에는 배우의 명성만으로 섭외, 작품의 인기는 저조했음
-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진 작품에 한류스타가 출연하면서 윈윈 효과
- ex) 추상미 출연의 <귀갓길의 유혹>, 박해진의 <치엔 두오두오 결혼기>

□ 주목받는 한국 다큐멘터리

- 5월 중순, 한국 다큐멘터리 <누들로드> 6부작 방영
- CCTV9 다큐멘터리 채널을 통해 소개됨
- > 뛰어난 작품성과 중국인들도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 소재가 성공 요인

나. 영화

□ 한국 영화에 대한 중국 영화계의 높은 관심

- 한국영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신영화전기·몽유행동> 재방영
 - a) 총 10부작 중 5부작이 한국 영화와 관련된 내용
 - b) 다양한 한국 영화를 인터뷰 중심으로 소개함
 - > 한국영화의 발전 요인에 대한 해답 제시

다. K-Pop

- K-Pop 스타들이 가진 폭발력은 과거에 비해 약해진 느낌
- 중국 내 음악 콘텐츠 보급 형태와 소비행태 변화에 의한 것으로 풀이됨

3. 중국(상하이)

가. 드라마

- 중국 내 방송에서 한국 드라마의 입지가 과거 대비 점차 줄어드는 추세
 - a) 다양한 국가의 드라마 편성이 늘어나고 있음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드라마의 편성 비중 증가)
- 인터넷을 통한 중국 내 한국 드라마의 노출은 높은 수준 유지
- 한국 드라마 콘텐츠의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나. 영화

- 한국 영화의 직접적인 중국 진출보다 한국 배우의 중국 영화 출연이 두드러짐
- 중국 영화에 출연하여 입지를 굳히는 것도 한류 확산의 한 방법이 될 것

다. 한스타일

□ 한식

- 퓨전 한국 식당 '한라산'
 - a) 중국 내 가장 많은 한국 식당 보유 업체
 - b) 전국 100여개 체인 운영 중
- 한국 전통의 맛, '본가'
 - a) 현재 가장 성업 중인 대표적인 한국 식당
 - b)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광저우에도 개업

□ 한국 식품업계의 중국 내 활약

- 일본 식품업계는 방사능 유출 문제로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함
- 대만 또한 부적합한 첨가물이 검출된 음료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됨
 - > 공백이 생긴 시장에 한국 식품업계가 기회를 얻음
 -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라. 중국 연예계의 특징

- 중국 엔터테인먼트 환경은 한국과 상이한 환경으로 장기전이 필요한 시장임
- 2010년 이전, 중국 시장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찾은 가수들은 대부분 실패함
- 중국 연예계 시장 특성상 한번 인기를 얻으면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음
 - ※ 한류 초창기에 인기를 얻은 김희선, 장동건, 이영애 등

마. 제언

- 중국인들은 대체로 퓨전 한식보다는 삼겹살, 삼계탕, 떡볶이와 같은 전통 한식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임
- > aT와 같은 공공기관의 한식 맛 인증 제도를 도입해 중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의 맛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4. 중국(홍콩)

가. 방송

- 한국 드라마 시청층의 다양화가 이루어짐
- 인기 드라마의 OST 또한 음악 차트 상위권을 휩쓸며 화제를 모음
-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의 큰 인기
 - : <런닝맨>의 홍콩 백화점 내 촬영 시, 엄청난 인파로 백화점 영업이 중단됨
 - > 이미 인터넷을 통해 <런닝맨>을 접한 팬 규모가 상당함
 - : <무한도전>, <1박 2일>과 같은 오락 프로그램의 인기가 두드러짐

나. 음악

- 2010년을 원더걸스가 휩쓸었다면 2011년은 소녀시대의 해
-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의 합동 공연이 이루어지며 큰 인기몰이
- 홍콩 내 일본 가수와는 달리 한국 솔로가수의 활약이 주춤한 것은 아쉬운 현상

다. 공연/전시

- 공연 '드럼캣', 한국 공연팀 최초 홍콩 일간지 '애플 데일리' 1면에 소개됨
 - : 춘절을 맞아 '2011 캐세이 퍼시픽 신년 퍼레이드'에 참가
- 예술품의 한류 현상 이어짐
 - : 유지은 작가의 개인전, 아시아 미술에 관심이 많은 서양인들의 호평을 받음
- 홍콩 크리스티 경매 '아시아 동시대 미술'에서 백남준, 이우환 작가의 작품 큰 화제
 - : 각각 5억 8,900만원, 2억 5,300만원에 낙찰됨

라. 한스타일

□ 한식

- 최근 분식류 등의 캐주얼한 한식의 인기
 - : 한식이 그만큼 대중화 된 것으로 풀이됨
- 홍콩 내 한국 분식 체인점 '한점', 홍콩 공중파 방송 TVB의 '화미소'에 소개됨
- 대형 슈퍼마켓에 유통되는 한국 식품 종류의 증가
 - : 하반기 실적, 상반기 대비 2배 가량 증가
 - : 한국산 냉동 조리 식품 및 한국 식재료의 판매도 크게 늘어남

□ 한국어

- 한국어의 수요 분석 조사가 이루어짐 (대상: 한국어를 배우는 홍콩 여성)
-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 취미(53%) > 취업목적(21%) > 한국연수 (2.6%)
- > 그간의 한국어 열풍은 대중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한국 화장품

- 11월 열렸던 홍콩 국제 미용전에서 한국 화장품의 큰 활약
 - a) 참가 한국 업체 수는 232곳으로 중국, 홍콩 다음 순임
 - b) 전시면적은 작년대비 약 30% 증가
 - c) 한류스타를 내세워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선호도를 구축함

5. 대만

가. 드라마

- 정치적으로 형성된 반한류 분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 방영 편수의 변화: 2010년 162편 -> 2011년 75편(11월까지)
 - ※ 반 이상 줄었지만 타국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치를 기록
- 방영축소의 원인: 대만 우둔이 행정원장(총리 격)의 발언(대만TV에서 한국드라마가 너무 많이 방영되고 있어 구역질이 날 정도다)이 영향을 줌

나. K-Pop

- 작년에 이어 지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나, 한국 언론의 과장보도는 아쉬운 부분
 - ※ 슈퍼주니어 52주 연속 1위: 한국어 노래부문 랭킹에서 1위를 차지함

다. 영화

- 2011년 한국영화 개봉편수: 8편에 그침
 - ※ 한국영화는 대만 내 배급상의 문제로 인해 극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 상영관 축소 -> 흥행 저조 -> 극장주들이 개봉을 꺼림 -> 배급의 어려움 -> 상영관 축소 위와 같은 악순환이 계속됨
- 주목할 만한 이슈: 슈퍼주니어 콘서트를 영화화한 '슈퍼쇼'의 괄목할만한 성적
 - ※ 슈퍼쇼의 수익: NTD 510만(한화 약 1억9천만원)을 기록함, 랭킹 8위(개봉월)
 - ※ 슈퍼쇼 흥행의 시사점: 단순히 10위권 진입을 했다는 것을 넘어서 극장주들에게 한국영화의 수익가능성을 제시한 모델이 되었다고 생각함

라. 공연/전시

- 중화민국 10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문화사절단을 보내는 등의 교류가 있었음

마. 반한류

- 한국에 대한 대만의 관심과 대만에 대한 한국의 관심의 온도 차이
 - ※ 대만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높는데 반해 한국인들이 대만에 갖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음. 대만인들 스스로도 체감하고 있으며 대만 미디어들도 이 부분에 대해 보도하며 비판함. 특히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보도되면서 확대, 재생산 후 오해가 쌓이면서 반한류가 조성되고 있음

바. 한국어

- 응시지역의 확대(타이페이 지역 외 까오슝 지역까지 확대됨)
- 아쉬운 점: 한국어시험 응시 수요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기관의 수 (대만 타이페이 내 정식 한국어 교육기관은 단 2곳에 불과)

사. 기타

- 2012년 1월 대만 총통선거가 예정
- 대만의 정치인들이 자국민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해 한류를 정치적으로 악용
- 현재 집권여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 있어, 야당에서 또 다시 한류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반한류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태국

가. 방송

- 태국 지상파 및 위성 TV에서 한 달 평균 98편의 한국 콘텐츠 방영
- 'True Vision'의 채널 144번을 통해 항상 한국 방송 시청 가능

나. 영화

- 올해 태국 내 개봉 영화는 단 두 편에 불과
: 장동건이 출연한 국제 합작 영화 <The Warrior's Way>, 임수정 주연의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 태국인이 선호하는 영화의 특징
: 태국인은 심각한 주제의 내용보다는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스토리의 영화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다. 전시/공연

□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의 태국 공연이 이어짐

- 슈퍼주니어의 'Super Show 3'
- '코리아 뮤직 웨이브 인 방콕' -> 한국의 인기 아이돌 그룹 19팀이 총 출동
- JYJ 태국 콘서트 등

□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태국 지역 본선 개최

- 총 18개의 본선 진출팀 중 애프터 스쿨을 커버한 'Next School'팀이 우승
: 2년 전 결성된 8명의 소년으로 이루어진 팀이며, 우승한 멤버는 4기에 해당함
: 태국 내 크고 작은 커버댄스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경험 보유
: 이미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팬을 확보

□ 난타 방콕 전용관 오픈

- 태국 방콕에 아시아 최초 난타 전용관 설치, 향후 3년간 공연을 펼칠 예정

라. 한스타일

□ 태국 제품 광고에 한글 표기 급증

- 한국 제품이 아닌데도 한국의 유행어를 삽입하여 제품 홍보 활동을 펼침
- 던킨도너츠, 태국 광고에 이민호가 등장하는 한국 던킨도너츠의 광고를 그대로 사용
-> 한류의 제품 홍보, 판매 촉진 효과를 인식하고 적극 활용하는 모습

□ GS 홈쇼핑, 태국 홈쇼핑 시장 진출

- 한국의 'GS 홈쇼핑'과 태국의 'True Vision Group'이 합작하여 'True GS' 개국
- 'True Vision' 방송사의 'True Select' 채널 통해 24시간, 태국 전역 약 800만 가구로 송출
- 기존 태국의 홈쇼핑 방송과 달리 철저히 한국식 방송 포맷을 따름

□ 'SM-True' 합작 연예법인 설립

- 한국의 SM엔터테인먼트와 True Vision 그룹의 합작 법인
- 향후 SM 소속 가수의 음원, 저작권의 태국 내 사용과 콘서트는 SM True에서 진행
- 닉쿤 같은 유망한 아이돌 스타를 길러내는 매지니먼트 에이전시도 함께 운영할 계획

7. 베트남

가. 음악

- K-Pop 관련 사이트 및 TV채널의 증가
: 360kpop.vn, 2sao.net, kenh14.vn, VCTV3, Yan TV
-> 베트남 젊은 층에서 K-Pop의 인기가 더욱 확산됨
- 아이돌 그룹 팬클럽들의 활발한 오프라인 활동(대규모 자체 행사, 플래시몹 등)
- 팬클럽들이 국내·외 K-Pop관련 콘테스트에서 여러 차례 수상
: 'K-Pop서울 세계대회 베트남 대표 선발전', '2NE1의 히트송 커버댄스 대회'

나. 한스타일

□ 한국어

- 한국어 수요의 증가
 - a) 대중문화를 접하면서 한국을 더 이해하고자 언어에 관심을 가짐
 - b)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의 증가로 한국어가 취업의 유리한 조건으로 부각됨
- '2011 베트남 한글사랑 대학연합 축제' 개최
: 전국의 한국어과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됨

다. 관광

-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여행지
: 2011년 1월~10월까지 방한한 베트남 관광객 수는 9만 9백여 명
- 한국관광공사, 지난 4월 하노이 지사 오픈
: 의료관광, 컨벤션 관광 등의 다양한 관광 활동 전개 중
- 세계 7대 자연경관 제주도 홍보 캠페인, 한국 관광 홍보 효과

8. 인도네시아

가. 영화

□ 이슈: 헐리웃 영화 상영 중단

- 상반기 (헐리웃 영화 상영 중단)
: 비 헐리웃 영화가 헐리웃 영화 상영 제한 조치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음
- 하반기 (상영 중단 해제)
: 그 동안 밀린 헐리웃 영화의 순차적 상영 지속
: 상대적으로 한국, 일본, 태국, 인도 영화의 상영이 힘들어짐

□ 롯데 시네마의 인도네시아 진출 가능성 타진

- 영화 산업의 외국인 투자 금지 제한이 풀리자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임
- 12월에 열린 한국 영화제 후원 당시 현지 관람객을 대상으로 자사 홍보 활동을 펼침
- 인도네시아 언론을 통해 향후 인니 전역에 롯데시네마 상영관 설치를 시사

나. 공연/전시

- 'Jakarta-Korea Festival', 현지인들이 주최한 상업적 성격의 K-Pop 공연
 - a) 주최 측인 'Nagasware'는 인도네시아 현지 연예 기획사
 - b) 주최 측은 한국 아이돌 그룹을 벤치마킹하여 현지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킨 바 있음
 - >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한류 열풍을 확산시키는 행사를 기획하고 한류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발견한 것에 큰 의의가 있음

다. 캐릭터/애니메이션

□ 한국의 대기업 계열 게임사들의 인터넷 진출 움직임 가속화

- 인도네시아 인터넷 사용 인구의 폭발적 증가 추세
- PC방과 온라인 게임은 여가생활의 좋은 대안으로 작용
- 인도네시아 게임 시장에는 한국의 중소 게임 퍼블리셔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상황
- 향후 온라인 게임 시장 성장성과 사업 잠재력을 높이 평가함

9. 말레이시아

가. 총평

- 2010년 말레이시아 내 K-Pop이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성장했던 것에 비해 2011년의 한류는 K-Pop을 기반으로 보다 폭넓게 진행되었음

나. 관광

- 말레이시아 관광산업의 특징: 말레이시아인 대다수는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한해 여행계획을 세움
- 일년에 두 차례 가장 큰 관광 박람회가 열림
- 인기를 끈 한국 드라마 촬영 장소를 관광대상지로 선택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음
- 기회요소: 한-말간 외교적 방문이후 관광분야에 있어서 협조체제 구축, 활발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음(전 총리 및 현 총리, 국왕의 방한, 박희태 국회의장이 방말)
- 현황: 올해 말레이시아->한국 방문 비중이 50%증가, 한국->말레이시아 방문 12%증가
※ 자료: 말레이시아 관광공사
- 제주도: 체계적인 현지 홍보 덕분에 이미 말레이시아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지역
※ 한류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관광지를 발굴해 낼 필요성이 있음

다. 한류의 현 위치

- 2011.9월 코트라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한류 성장단계에 속한 국가
※ 한류의 동향을 미도입단계, 도입단계, 인지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로 분류함
- 말레이시아는 성장단계에 있는 지역이지만 한류관련 상품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큰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앞으로 좀 더 차별화되고 획기적인 마케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방송 콘텐츠 시장 진입 가능성 확대

- 방송 콘텐츠 산업의 특징: 자체 콘텐츠 제작 비율이 적어 외화 수입규모가 큼
- 기존 일본 드라마가 차지하던 비중을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
- 방송환경의 개선: 디지털 방송(HD)으로 전환. 한 위성채널에서 24시간 풀HD로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기 시작함
※ 높아지는 한국드라마의 인기와 방송환경의 개선으로 향후 한국 방송콘텐츠의 방영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마. 영화산업의 특징

- 말레이시아의 기후적 특징: 더운 나라여서 실내에서 즐기는 문화생활이 발달
- 영화를 즐기는 계층은 한정적임(중국계 말련인, 말레이계 말련인), 특히 한국 영화를 즐기는 수요가 별로 없다는 점이 한국영화의 말레이시아 진출의 가장 큰 어려움임

10. 몽골

가. 방송

□ 몽골 정보통신규제 위원회의 방송 규제 시행

- 'TV, 라디오 방송 일반 조정 및 준수 사항', '디지털 콘텐츠 일반 조정 및 준수사항'
 - a) 전체 TV광고 시간은 1시간 당 15분을 초과하지 못함
 - b) 몽골 자국 제작 작품은 총 방송 프로그램의 50%가 되어야 함
 - > 드라마 중간광고의 과대광고를 제한하고, 몽골의 국산 드라마 제작과 방송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됨
- 실제 올 하반기 한국 드라마 방영 비중이 전년 대비 줄어든 현상을 보임

□ 한국 드라마 방영 현황

- 한국 드라마 공식 방영권을 취득한 몽골 방송사 및 한국 PD가 파견 되어 있는 UBS, TV9을 통해 주로 방영됨
- 드라마 <자이언트>, <드림하이>는 시청자 요청에 의해 앙코르 방송 이어짐
- 드라마 <시티헌터>, 최근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
- 쇼 오락 프로그램 중 <무한도전>, <스타킹>이 인기를 얻고 있음

나. 음악

- 전국적으로 보급 중인 인터넷을 통해 K-Pop과 아이돌 그룹을 접하는 단계
-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벤치마킹한 그룹 등장
 - : 2009년 결성된 남성 5인조 'Crush Bush', 노래/의상/춤 등 여러 부분에서 한국 그룹과 비슷함

다. 한스타일

□ 한식

- (주)농심, 몽골인 입맛에 맞춘 신제품 '양고기 맛 라면'을 출시하여 현지 판매 증임
- 현지 한 한식업체에서 'Black&Red' 분식집 개업, 떡볶이 및 라면을 선보임

라. 기타

□ 관광 산업

- 2011년 1월부터 몽골인의 제주도 무사증(VISA) 방문이 가능해짐
 - > 제주도 단체 관광 및 의료관광의 증가가 예상됨

□ 한국 기업 진출

- 4월, 기아자동차의 몽골 공식 지점 오픈
- 6월, 포스코의 몽골 사무소 개소식
- 'Next Electronics' 쇼핑센터 내 삼성 브랜드 쇼룸 공식 개설
 - >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몽골 방문을 전후로 그간 몽골에 진출해 있던 한국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몽골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활발한 진출이 예상됨

11. 카자흐스탄

가. 드라마

- 한국 드라마는 카자흐스탄 국영방송국인 '카작스탄'과 '하바르'에서 주로 방영됨
- 현지 청소년들은 한국 드라마를 낭만적이고 서정적으로 인식함
- 한국의 사극과 현대 가족 드라마가 큰 인기
 - a) 마치 카자흐스탄 드라마로 착각할 정도
 - b) 급격한 경제발전에 지친 카자흐 국민들에게 한국드라마의 휴머니즘과 가족애 코드는 인기의 성공요인으로 보임
 - c) 카자흐스탄의 작은 시골 마을의 주부들 사이에서도 수다의 중심 소재로 등장
- 한국 드라마를 통해 낯선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도 불러일으킴
 - > 다양한 연령층에서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서 한국을 동경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나. 음악

-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드라마 OST의 거센 인기
- 올해 열린 K-Pop 콘쿠르에서 참가곡 대부분이 한국 드라마 OST였음
 - > 드라마의 경우와 같이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최신곡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다. 한스타일

- 개원 1주년을 넘긴 카자흐스탄 한국 문화원
 - : 성황리에 개최된 '한국의 날' 행사
 - > 개원 첫 1년간 한국문화원의 활약과 성과 및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한인들의 평가
- 한국교육원: 한류 확산에 일조
 - a)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고 한국 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함
 - b)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체험, 태권도, IT연수 등의 프로그램 진행

12. 우즈베키스탄

가. K-Pop

- K-Pop이 수면위로 떠오른 한 해, 특히 드라마 OST의 인기가 두드러짐
- 우즈베크 젊은이들이 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K-Pop 수요증가의 한 원인임
- 특이한 점은 최신곡 뿐만 아니라 장르를 불문하고 한국 노래가 인기를 얻고 있음
ex) 11월 27일에 우즈베크에서 열린 한국노래자랑에서는 '저 푸른 초원위에', '사랑으로' 등의 명곡도 많이 불림. 또한 한국의 가곡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을 정도임

나. 방송

- 전 국민이 열광하는 한국 드라마
- 러시아어를 공용어로 쓰지만 한국 드라마는 우즈베크어로 번역될 만큼 중앙아시아 6개국 가운데 한국의 정서가 가장 잘 통하는 나라

다. 한스타일

- 라면, 고추장 같은 한국식 식재료에 대한 수요도 높고 거부반응 없이 잘 받아들임

라. 우즈베키스탄인들의 특성이 한류에 미치는 영향

- 우즈베크인들은 집을 사면 마당을 먼저 볼 만큼 한 곳에 계속 터전을 잡고 살고자 하는 반면,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 민족들은 유목민의 기질이 아직 남아 있음. 즉, 우즈베크인은 자신의 뿌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기질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우즈베크에서의 한류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문화가 아닌 자신들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여김.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위한 대상으로서 한국을 바라보고 연구하고자 함. 우즈베크의 베루니 동방학연구소에 한국의 고대사 연구를 위한 한국학센터가 개설될 만큼 한국과의 인연을 중시하고 있음
- 이렇듯, 한국과의 인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한국기업에 관대한 우즈베크 정부는 한국기업의 우즈베크 진출 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마. 제언

- 현재 우즈베크의 경제적 파워는 부족하나 잠재력은 충분
- 우즈베크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드라마를 통해 상업적, 산업적 접근이 가능
- 의학 드라마를 통해 의료관광 기획으로 연결시키고, 드라마 제작시 삼성 에어컨, LG 냉장고 등의 PPL을 통해 제조업 브랜드의 인지도 상승 및 매출 확대가 가능

13. 인도

가. 동북인도 8개 주에 부는 한류

- 10월 17일자 BBC 뉴스에서 '인도의 작은 한국'을 소개함
- 해적판 DVD 드라마, 영화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한국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선호함
- 한국 음반산업의 미진출로 본토에 알려진 K-Pop은 전무하나 이곳에서는 소녀시대, 김현중 등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돋보임
- > '네루대' 김종민 객원 교수는 이를 '한국을 짝사랑하는 인도인들'이라고 표현함

나. 드라마

- KBS World의 <광개토대왕>, <오작교 형제들> 및 각종 오락프로그램 방영
- > 다소 진부하기만 한 인도 TV방송과 차별화를 선보이며 인도 주부층의 눈높이를 끌어올림

다. 공연/전시

□ '2011 한국 페스티벌'

- 'Hi India! Feel Korea!' 기치를 내걸고 한국과 인도의 공연이 번갈아 펼쳐짐
- 첫 날 공연, 약 1천 2백여 명의 관람객 참가
- 양국의 문화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

□ 콘텐츠 로드쇼 '랑데부 코리아'

- 10개의 한국 콘텐츠 기업과 30여명의 인도 바이어들이 참가
- 한국콘텐츠진흥원, 행사에 앞서 인도상공회의소와 콘텐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 한국 콘텐츠 산업의 인도 진출 교두보를 마련

라. 한스타일

□ 한국어

- 네루대, 델리대, 콜카타대, 마가다대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짐
- 델리대의 김도영 교수, 네루대의 자야 교수는 인도 내 한국어 교육의 실제적인 기초를 닦음
- > 한국 기업이 진출한 6대 도시 대학에 한국어과 개설을 위한 요원배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마. 미리 보는 2012년 한류

□ 동북 인도에 부는 한류가 인도 본토에도 뿌리 내리게 될 2012년

- 수도 뉴델리에 한국문화원 개설 초읽기
- 2012년 첸나이에 개설 될 총 영사관, 첸나이 문화원과 협조하여 활발한 문화 활동을 펼칠 예정

14. 브라질

가. K-Pop

- 여러 차례 플래시몹 시위 개최
- 언론에 보도될 만큼 큰 규모의 행사는 아니지만 마치 작은 축제처럼 펼쳐지고 있음
- k-pop 관련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인들의 도움없이 자발적으로 팬클럽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 k-pop 열기는 더욱 특별함
- 브라질에서의 한류는 자생적인 힘으로 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K-Pop 스타의 다양화: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심사위원 자격으로 브라질을 찾은 엠블랙의 인기는 브라질 내 슈퍼주니어의 인기와 비견될 정도
-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콘서트: 한국 가수들의 첫 브라질 유료공연이라는 기록적인 행사로 향후 k-pop 수익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12월 13일)

나. 방송/영상

- 브라질 방송시장: 2014년 브라질월드컵, 2016년 리우올림픽 개최로 브라질 방송산업 환경 개선이 예상됨
- 한국 방송콘텐츠의 잠재력
 - a) MBC가 브라질에 중남미 지사를 세우고 브라질 콘텐츠 시장 확보 경쟁에 뛰어듦
 - > 2011 브라질 방송콘텐츠 쇼케이스에서 89,800달러의 판매실적을 올림
 - b) 3D 수중다큐멘터리 <엄홍길, 바다로 가다>, <아마존의 눈물> 등 긍정적 평가
 - c)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 브라질 80개 극장에서 상영 예정
- 브라질 내 한국 드라마의 부진: 문화적 차이로 인해 내용이해가 어려운 경우 발생
- 따라서 드라마를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틈새시장(쇼/오락 부문)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

다. 브라질인들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

- 브라질 기자가 주목한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
- '데보라'라는 기자가 한국 방문 후 총 26페이지에 걸쳐 잡지 특집 기사를 실음.
- 굼직굼직한 국가 행사를 앞두고 있는 브라질은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마무리함

라. 제언

- 한국만의 매력과 색깔을 가진 문화콘텐츠를 보여줄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정서를 이해시킬 수 있는 <생활의 달인>, <달인코너> 같은 콘텐츠는 브라질에서 주목하고 있는 '빨리빨리 정신'과도 비교적 일맥상통함
- 한국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파워를 내세운 문화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

15. 프랑스

가. 2011년 프랑스 한류의 변화

- 1) 한류의 축적(SM타운 파리공연 이전)
 - 2000년 이후, 프랑스 내 한국대중문화는 영화를 기점으로 만화, 드라마, K-Pop 부분으로 확대소비 되어왔음
 - 이미 한류의 가능성은 각 콘텐츠 분야에서 축적되어 왔음
 - 팬들 스스로가 SNS를 통해 SM공연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면서 시장 크기를 스스로 입증하여 파리 콘서트가 열린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
- 2) 한류의 태동(SM타운 파리공연 개최 확정 이후)
 - 콘서트 개최가 확정되고 공연에 앞서 한국에 대해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됨
- 3) 한류 발화(SM타운 파리공연 이후)
 - SM타운의 파리공연은 유럽 내 존재하고 있던 한류를 가시화 시키는 역할을 함
 - 한국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탐구 및 열정이 생겨남
 - a) 한국의 사상, 전통문화에도 관심이 높아짐
 - b)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까지 관심을 가짐(BB크림, 노래방, 피씨방 등)
 - c) 한국학과 학생 수의 증가
 - d) 한국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통해 교수들도 관심을 가지게 됨

나. K-Pop을 대하는 현지인들의 특징

- 프랑스 현지 팬들은 K-Pop을 단순히 유행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곡 전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어함 -> 가사의 의미를 더 알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음
- K-Pop에 반하고, 한국이 전통문화까지 잘 보존해 나가는 것에 국가적 매력을 느낌

다. 프랑스 내 한류의 우려되는 부분

- 프랑스에서 한류를 더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듯 한 인상을 지우기 어려움
- 현지인들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프랑스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K-Pop과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한류 붐을 조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

라. 제언

- 한류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 한국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반해 그 방법과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력 및 교육기관이 부족한 상황
 - >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또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

【 아시아 지역 】

2011 일본 한류 동향 보고

일본 / 도쿄

한도 치즈코 통신원

사카모토 히데오 통신원

스에요시 가나코 통신원

야마카와 도모코 통신원

하타오 토모코 통신원

◆ 총 평

<드라마>

2011년은 작년보다 한류 드라마를 접할 기회가 한층 더 많았던 한해였다. 특히 배우 장근석은 연초부터 새롭게 한류스타로 떠올라 그의 인기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2010년부터 방송을 시작한 후지TV의 ‘韓流α(한류알파)’나 TBS의 ‘한류Select’의 인기는 안정적으로 정착한 듯 보인다. 이 둘은 한국 드라마를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 ‘韓流α(한류알파)’에서는 1, 2월에 걸쳐 장근석 특집과 함께 주연작 <미남이시네요>, <베토벤 바이러스> 등을 집중적으로 방영하며 화제가 되었다.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동안 드라마나 버라이어티는 방송되지 않고 보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방송되었다. 한국 드라마도 심야 방송을 제외하고 평상시의 방송을 회복하기까지 약 2주가 걸렸다.

이에 따라 많은 한국 스타의 방일 이벤트가 중지되고, 예정되었던 장근석의 일본 데뷔도 연기되었다. 그러나 4월 27일에 일본에서 데뷔 CD 판매가 결정되면서 이 시기에 맞추어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와 <매리는 외박 중>이 방송되었다. 장근석은 오리콘 위클리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고 동시에 드라마에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또한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의 스토리는 큰 인기를 얻어 올 7월에는 일본

에서도 리메이크 되었다.

한편 가열되는 한류 프로그램의 인기에 반해, 8월에는 반한류의 움직임도 보였다. 평일 오후 2시에 연달아 한국 드라마 두 작품을 방송하던 후지TV의 '韓流a(한류알파)'는 인기가 정착된 것처럼 보였으나, 8월 하순, 작품이 바뀌던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방송 시간이 축소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9월부터는 다시 두 작품이 연달아 방송되고 이후의 편성은 원래대로 돌아갔다. 반한류 소동도 잠잠해진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제작된 드라마에 한국 스타가 기용되는 작품도 볼 수 있게 되었다. 가수 카라 주연의 30분 드라마 <URAKARA> (도쿄TV 1월~4월), 김태희 주연의 <나와 스타의 99일>(후지TV 10월~12월) 등 대표적이다. <나와 스타의 99일>의 제 1회 시청률은 10.2%로 그다지 좋지 않았으나, 로맨틱 코미디 느낌의 밝은 내용이라서 여성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화>

금년에도 흥행적으로 볼 때 한국 영화에 대한 좋은 뉴스는 거의 없었지만, 예년처럼 질 높은 몇몇 작품에 대해서는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1월 하순 국내에서 권위 있는 영화상 <키네마 순보 베스트 10, 2010>에서 <똥파리>가 외국 영화 베스트10 중 1위가 되고, <여행자>가 8위에 들어갔다. <똥파리>는 제 65회 매일영화 콩쿨에서 작품 부문 외국영화 베스트11에 선정되었다. 이 두 작품은 둘 다 소규모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영화팬들이나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5월에는 '진! 한국 영화제'가 개최되었다. 제작년부터 시작된 이 이벤트는, 한국의 가정문제나 사회문제 등을 테마로 한 영화상영회이다. 금년에도 도쿄의 미니시어터 K's Cinema에서 <반두비>, <작은 연못>, <과주>등의 6작품이 상영되었다.

6월에는 '한국 뉴웨이브 재발견'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에 공개된 안성기 주연의 <바람 불어 좋은 날>, <고래사냥>이 재 상영 되었다.

엔터테인먼트 작품으로는 탐과 권상우 주연의 <포화 속으로>, 원빈 주연의 <아저씨> 2편이 일반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두 편 모두 주말 흥행 성적 랭킹 베스트10에는 들지 못했으나, 영화 정보 사이트 'Pia 영화생활'이 실시하는 관객만족도 조사에서 개봉 첫 주 1위로 선정되었다.

10월에는 한국문화원이 주최하는 <코리안 시네마 위크 2011>가 개최되었다. 한국의 여성 감독에 초점을 맞춘 영화제는 여성 감독들에 의해 제작된 단편/장편 및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로 선정하여 일본 극장에서 미 공개된 최신작 열편을 상영했다.

11월 12일부터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3D영화가 공개되었다. 3D영화 <7광구>는 전국에서 개봉되었으나 흥행이 부진하여 대다수의 극장이 상영 2주 안에 막을 내린 듯하다. 11월 19일에는 ‘도쿄 FILMEX’가 개막되었다. 오프닝 작품인 <아리랑>의 상영 후 Q&A시간에는 3년 간 침묵을 지켜온 김기덕 감독이 무대에 올랐다. 열성적인 팬들로부터 많은 질문이 쏟아져 그동안 기다려온 팬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었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지상파>

방영 채널	제 목	방영시간	방영일	
NHK	이산	일요일 23:00	4/3~	
TBS	천사의 유혹	월~금 10:05 <韓流Select>	1/4~2/17	
	파스타		2/18~3/24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3/25~4/18	
	내조의 여왕		4/19~5/19	
	매리는 외박 중		5/20~6/10	
	나는 전설이다		6/13~7/4	
	아가씨를 부탁해		7/5~7/28	
	드림 하이		7/29~8/22	
	꽃보다 남자 (재방송)		8/23~9/29	
	마이 스위트 서울		9/30~10/25	
	로열 패밀리		10/26~11/23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재방송)		11/24~	
	봄의 왈츠 (재방송)		월/화 심야 25:55	3/21~6/7
	공부의 신 (재방송)		6/13~7/18	
	파스타		9/19~	
후지TV	미남이시네요	월~금 14:07 <한류알파>	1/11~1/28	
	베토벤 바이러스		2/1~2/17	
	달자의 봄		3/2~4/5	

	오! 마이 레이디		4/12~4/27
	미남이시네요 (재방송)		4/2~5/23
	커피 프린스 1호점		5/31~6/22
	제빵왕 김탁구		7/14~8/24
	49일		10/25~11/21
	파라다이스 목장		11/28~
후지TV	다시 결혼하고 싶은 여자	월~금 15시 <한류알파>에서	2/18~3/1
	장난스런 키스		5/10~5/31
	검사 프린세스		6/1~6/22
	궁 (재방송)		6/23~7/19
	아직 결혼하고 싶은 여자 (재방송)		7/22~8/12
	마이 프린세스		8/31~9/23
	대물		9/5~10/19
TV도쿄	주몽	일요일 11:55	2010/4/ 15~2/4
	로드넘버원	수/목요일 12:35	4/6~6/16
	추노		6/22~9/8
	성균관 스캔들		9/14~11/24
	아테나		11/30~
TV아사히	한일합작 텔레시네마	일요일 23:00	8/ 8~9/ 12

<위성방송>

방영 채널	제 목
NHK HI Vision	<동이> (4/10~, 일요일21 : 00)
	<나쁜 남자> (9/4~9/15, 22 : 00)
BS NTV	<용의 눈물>, <왕과 나>, <19살 순정>, <왕과 비>, <수상한 3형제>, <태양을 삼켜라>, <바람 부는 좋은 날>, <웃어줘 당신>, <너는 나의 운명>, <천만 번 사랑합니다> 등
BS ASAHI	<황금물고기>, <다 함께 차차차>, <남편이여>, <흔들리지 마>, <스칼렛 레터>, <서동요> 등
BS TBS	<에덴의 동쪽>, <내조의 여왕>, <IRIS>,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등
BS JAPAN	<프라하의 연인>, <성균관 스캔들>, <미안하다 사랑한다>, <검사 프린세스>, <호텔리어>, <사랑의 선택>, <시티홀>, <로맨스 헌터> 등
BS FUJI	<자명고>, <선덕여왕>, <장난스러운 키스>, <신텔레라 언니>, <궁>등
BS 11 Digital	<인생화보>, <주몽>, <제중원>, <고맙습니다>, <별을 따줘>, <천하무적 이평강>, <팔월에 내리는 눈>, <별을 따줘>, <상두야 학교 가자>등
wowow	<아테나>, <결혼해주세요>, <웃어라 동해야>, <로맨스 타운>등

〈일본 제작 드라마〉

방영 채널	제 목	방영일시	비고
도쿄 TV	URAKARA	1/14~4/8 금요일 심야 방송	30분 연속드라마 가수 카라 출연
후지 TV	나와 스타의 99일	10/23~ 일요일 21:00	김태희 주연

2. 영화 산업

〈개봉작〉

제 목	개봉일	장 소	비 고
똥과리(息もできない)	2월 양코르상영	시네마라이즈 (도쿄) 외 전국 순회	기네마순포(영화전문 잡지) 외국 영화 베스트1
식객2(食客2)	1.8	K's cinema (도쿄) 외	
IRIS - THE LAST	1.8	TOHO시네마 Roppongi 외 50개소 전국개봉	이병헌
하모니	1.22	CINESWITCH GINZA 외	주연: 김윤진
내 사랑 내 곁에	2.5	SHINJUKU MUSASINOKAN 외	
포화 속으로	2.19	KADOKAW시네마SHINJUKU외 전국개봉	주연: T.O.P, 권상우
무적자	2.19	전국 로드쇼 개봉	주연: 주진모, 송승헌
2010 BIGBANG L I V E C O N C E R T BIGSHOW	2.19	TOHO시네마 Roppongi 외	BIG BANG콘서트 3D로 상영
악마를 보았다	2.26	MARUNOUCHI루블 (도쿄) 외	주연: 최민식, 이병헌
대한민국 1%	3.5	Cinemart Shinjuku (도쿄) 외	
Be Devil	3.26	SHIBUYA시어터 N 외	
굿바이, 평양	4.2	포레포레HIGASINAKANO (도쿄) , K's cinema (도쿄) 외 전국 순차 개봉	北韓에서 입국 금지가 된 제일 교포 여성 감독을 위 한 다큐멘터리 작품
육혈포 강도단	4.9	東京 · Cinemart Shinjuku, 大阪 · Cinemart SHINSAIBASHI	
멋진 하루	4.16	東京 · Cinemart Shinjuku, 大阪 · Cinemart SHINSAIBASHI	
부당거래	4.29	GINZA시네파토스,	류승완 감독

		Cinemart Shinjuku와 전국 개봉	
성균관 스캔들 극장편집판	5.6~5.19	전국의 워너 마이컬 시네마즈에서 기간 한정 상영	
미남이시네요 극장편집판	5.6~5.19	전국의 워너 마이컬 시네마즈에서 기간 한정 상영	
낮술	5.7	東京 · Cinemart Shinjuku, 大阪 · Cinemart SHINSAIBASHI	
김종욱 찾기	6.18	신주쿠 발트 nine TOHO시네마즈六本木힐즈 외 33개소에서 전국개봉	주연: 공유, 임수정
바람 불어 좋은날	6.18	K's cinema (도쿄)	주연: 안성기 (1980년작품)
해협을 이어주는 빛	6.25	HUMAN TRUST Cinema Yurakucho 전국 순차 공개	한일합작 다큐멘터리
전우치 시공도사	7.2	Tokyo · Cinemart Shinjuku OSAKA cinemart SHINSAIBASHI 전국 순차 공개	주연: 강동원
RONIN POP	7.2	Tokyo Cinemart Shinjuku Osaka · cinemart SHINSAIBASHI 전국 순차 공개	주연: ZE:A
고래사냥	7.9	K's cinema (도쿄) 외 전국 순차 공개	주연: 안성기 리바이벌상영
HOUSEMAID	8.27	TOHO Cinema chanter 전국 로도쇼	
글로브	8.27	Tokyo · Cinemart Shinjuku 외	
Rain Of Assassin	8.27	Shinjuku MUSASHIKNOAN (도쿄) 전국 로드쇼	주연: 정우성, 중국,홍콩,대만 합작영화
아저씨	9.17	전국77스크린에서 로드쇼 공개	주연: 율빈
WHITE	9.17	Tokyo · Cinemart Roppongi, Osaka · cinemart Shinsaibashi 전국 순차 공개	
CAMELLIA	10.22	신주쿠 발트 nine외 전국 순차 개봉	
Magic&Loss	11.5	IKEBUKURO CINEMA ROSA (도쿄)	
7 광구	11.12	신주쿠 발트 nine 외2 D&3D 전국개봉	주연: 안성기, 하지원

〈영화제〉

영 화 제	일자	장 소
	비 고	
오사카 아시안 영화제	3.5-3.13	오사카 ABC홀 외
	〈The House maid〉, 〈遭遇〉, 〈春香秘伝〉등	
진! 한국영화제	5.28-6.17	도쿄 K's 시네마
	〈반두비〉, 〈작은 연못〉, 〈파주〉	
아시아 단편 영화 페스티벌 2011	6.16~6.26	도쿄 라포렛 하라주쿠 외
	〈과란만장〉	
아이치 국제 영화제	9.7-9.11	아이치 나고야
	〈소와 함께 7박8일〉, 〈2 lines〉, 〈나, 임신했어요〉	
이동 영화관 MOMO 프로젝트 도호쿠 영화제 2011 in 마쓰시마	9.16-20	미야기 마츄시마
	〈맨발의 꿈〉, 〈Late Autumn〉, 〈서편제〉	
제24회 도쿄 국제 영화제 (TIFF)	10.23-31	도쿄 도호시네마 롯본기 힐즈 외
	〈7광구〉, 〈U.F.O.〉, 〈오사카의 토끼들〉, 〈매직&로스〉, 〈눈부신 하루〉, 〈한국 영화의 비밀〉, 〈현해탄은 알고 있다〉, 〈쿠로자와 그 길〉 등	
제24회 도쿄 국제 여성 영화제	10.23-26	도쿄 세르반테스 문화센터 외
	〈소와 함께 7박8일〉	
코리아 시네마 위크 (TIFF) 한국 여성 영화감독 작품 쇼케스	10.30-31	도쿄 이이노홀
	〈된장〉, 〈뷰파인더〉, 〈대지의 여자들〉, 〈고백〉, 〈토요일 근무〉, 〈도시〉, 〈죽은 개를 찾아〉, 〈사라진 밤〉, 〈여자 만세〉, 〈문위크〉	
제 12회 도쿄 FLIM MAX	11.19-27	도쿄 유라쿠초 아하시홀
	〈아리랑〉, 〈무산일기〉, 〈카운트다운〉 등	

3. 음악 산업

작년부터 일본 내 K-Pop의 인기는 사회 현상으로 대두될 만큼 큰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1년 일본 데뷔를 위해 준비해 온 그룹도 많았으나,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발매를 연기하거나 캠페인 활동을 변경하고 중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앨범 판매는 성적은 좋았고, 지진 직후인 3월 16일에 발매한 가수 비스트의 일본 데뷔 싱글 'SHOCK'는 오리콘 데일리 싱글차트 2위를 기록했다. 또한 장근석은 3월 27일에 예정되었던 CD발매 기념 쇼케이스 라이브 공연을 지진의 영향으로 중지하고 앨범 발매 또한 3월 23일에서 4월 27일로 연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뷔 싱글 'Let Me Cry'는 해외 솔로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데뷔 싱글 첫 1위라는 쾌거를 올렸다.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한때는 거의 모든 이벤트가 중단 되었으나, 5월경부터는 재해 복구를 위한 자선을 목적으로 K-Pop 아티스트들의 합동 이벤트가 다수 개최 되었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벤트 개최 장소도 아리나, 돔, 스타디움 등과 같이 많은 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 개최되는 일도 잦아졌다. 또한 개최 후에는 CS, BS국 등에서 라이브 상황을 방영해주는 일이 많아져 현장에 가지 못한 팬들도 라이브 공연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일본 내 K-Pop의 인기는 급속히 성장했다. 지금까지 직장 여성이나 주부들 중심이었던 한류 붐을 통해 지지층도 단숨에 저연령화 되었고, 중고생 팬들이나 남성팬들도 나타났다. 따라서 정보 전달이 굉장히 빨라지고 K-Pop 관련 방송 환경도 개선되면서 한국의 인기차트나 활동 모습을 일본에서도 리얼 타임으로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SNS에 의한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커뮤니티나 트위터 등에서 팬들의 정보교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팬들은 새로운 정보에는 강한 관심을 보이지만, 과거의 정보에는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한국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상당한 실적까지 남긴 아티스트라 하더라도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스타가 아니면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막 데뷔한 신인이 오히려 지명도나 인기가 높은 현상이 자주 보인다.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사람은 현재 한국의 인기 음악프로나 버라이어티 쇼프로에 출연하는 등 미디어 노출이 잦거나 차트에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아티스트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일본의 미디어들도 신인 아티스트를 앞다투어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수 '인피니티'는 데뷔한 지 1년 남짓인데 한국의 음악 프로에서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쿄돔이나 치바 포트파크, 가고시마 등에서 대규모 K-Pop 합동 이벤트 출연 경험이 있다. 4월에 예정되어 있던 라이브 쇼케이스는 지진 때문에 연기 되었으나, 7월에 도쿄, 오사카에서 대체 공연을 하고, 9월에는 요코하마, 오사카에서 단독 공연을 가졌다. 또한 11월에는 일본 데뷔도 치르며 현재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11월 19일 발매된 데뷔 싱글 'BTD'일본어 버전은 오리콘 데일리차트에서 첫 등장만에 2위를 기록했다.

K-Pop은 지금까지 직장 여성이나 주부 중심이었던 팬층에서 연령의 폭을 넓힘으로써 크게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남성팬들을 개척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녀시대나 카라 등 걸그룹의 앨범 판매수가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소녀시대의 앨범 「GIRLS' GENERATION」은 11/21 현재 판매수가 2011년도 앨범 판매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63만 장을 판매 기록

을 세우고 있다. 같은 집계 차트를 보면 일본 음악계에서 절대적인 인기와 CD 판매수를 자랑하는 'AKB48'의 앨범 '여기에 있던 것(ここにいたこと)'이 1위로 82.0만 장, 남성 아이돌 아라시의 'Beautiful World' 80.3만 장, 폭넓은 층에 인기 있는 댄스&보컬 유닛 EXILE '소원의 탑(願いの塔)' 이 3위로 73.7 만 장, 세계적인 인기 아티스트인 Lady Gaga의 'BORN THIS WAY'가 4위로 64.5만 장, 일본의 K-Pop 인기를 견인해 왔으며 절대적 인기를 자랑하는 동방신기의 앨범 'TONE'은 19위로 28.6만 장이었다. 또한 카라의 '걸즈토크'(2010년 11월 24일 발매)는 동 집계에서 20위로 27.4만 장인데, 작년과 합치면 앨범의 판매 수는 44.0만 장이 된다.

싱글 판매 수에서는 상위 5위까지 AKB관련이 15팀, 일본계가 16팀을 차지하는 가운데, K-Pop에서도 6팀이 올랐다. 2011년의 주요 CD 판매 수는 다음과 같다.

◆ 앨범 순위 및 매출

<싱글 앨범>

(단위: 만 엔)

순위	타이틀	아티스트	매출	발매일
15위	Why? (Keep Your Head Down)	동방신기	28.5	11/01/2
23위	Go Go Summer	카라	22.9	11/06/29
24위	Jet Coaster Love	카라	22.5	11/04/06
28위	Let me cry	장근석	21.5	11/04/27
37위	Superstar	동방신기	18.4	11/07/20
42위	MR.TAXI/Run Devil Run	소녀시대	17.2	11/04/27
57위	Replay	샤이니	11.4	11/06/22
63위	Winter Music	카라	10.7	11/10/19
80위	I'm your man	2PM	8.4	11/08/17
86위	In my head	씨엔블루	8.0	11/10/19
88위	Bo Peep Bo Peep	티아라	7.8	11/09/28
90위	Ultra	2PM	7.7	11/11/02
91위	Gee	소녀시대	20.6	10/10/20
94위	Take Off	2PM	7.3	11/05/18
97위	줄리에타	샤이니	7.1	11/08/29
100위	미인	슈퍼주니어	7.0	11/06/08

<정규 앨범>

순위	타이틀	아티스트	매출	발매일
----	-----	------	----	-----

5위	소녀시대	소녀시대	63.0	11/06/01
19위	TONE	동방신기	28.6	11/09/28
20위	Girls Talk	카라	27.4	10/11/24
37위	훗	소녀시대	14.9	10/12/22
56위	빅뱅2	빅뱅	9.9	11/05/11
65위	KARA BEST 2007-2010	카라	8.5	10/09/29
70위	<미남이시네요 OST>		8.0	10/03/16
76위	SO BEAST	비스트	7.3	11/08/10
94위	STEP	카라	6.1	11/10/05
95위	FIVE TREASURE ISLAND	FT아일랜드	6.1	11/05/18

11월 19일에 발매된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동방신기의 ‘Why? (Keep Your Head Down)’, 카라의 ‘GO, GO 썸머’가 우수 작품상을, 2NE1이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날 발표된 우수 작품상 10작품에서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을 수상한 4팀 가운데에서 최우수 신인상이 12월 30일에 결정된다. 레코드대상은 일본 작곡가협회가 주관하고 연말에 생방송으로 수상식이 열린다. 또한 현재 출연 아티스트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매년의 행사 ‘홍백가합전(紅白歌合戦)’에 올해는 K-Pop아티스트의 출연이 있을지 기대된다.

◆ 2011년 주요 K-Pop 이벤트

<1월~3월>

일시	출연 아티스트/ 행사명칭	회장 / 비고
1월 8일	ZE:A Special Live -Love letter for you	Zepp Tokyo
1월 9일	브라이언 / 생일 파티 디너공연	Rihga Royal Hotel OSAKA
1월 10일	백성현 / 백성현 첫 팬미팅	하마리큐 아시아 홀
1월 15일	JIWON	도쿄·한국 문화원 한마당홀 일본 활동개시 기념 콘서트
1월 16일	씨엔블루 / 콘서트	Zepp Tokyo
1월 21일	Pixy / 10th LIVE	도쿄 신주쿠 FACE
1월 22일	노라조 / 콘서트	도쿄 신주쿠 FACE
1월 22일	허영생, 김규중(SS501) 첫 DVD발매 팬 미팅	도쿄 시부야 CC레몬홀
1월 25~26일	SM TOWN LIVE	도쿄 국립 요요기 경기장 제1체육관

1월 28일 1월 29일	김재욱 팬미팅 New Year with LIVE	시부야 cc레몬홀 NHK 오사카홀
1월 30일	Au by KDDI 온타마 카니벌 초신성 etc	요코하마 아레나
2월 8일	동방신기 Why? (Keep Your Head Down) 구입자 이벤트	지바 · 마쿠하리멧세 이벤트홀
2월 11일	'삿포로 눈 축제 K-Pop 페스티벌 2011' 비, 성시경, 틴탑, 오렌지카라멜	삿포로 니토리 문화홀
2월 11일	먼데이키즈- 일본 공식홈페이지 오픈기념 이벤트	도쿄 글로브홀
2월 11, 12일 2월 14, 15일	장근석 Lounge H	Zepp 오사카 Zepp 도쿄
2월 12일	정준호 Award in JAPAN	시부야 CC 레몬홀
2월 12일	서지석 발렌타인 팬미팅 in Tokyo	도쿄 국제포럼 홀C
2월 12일	송창의 발렌타인 Special Fan Meeting	도쿄 가쓰시카 신포니얼즈
2월 13일 2월 14일	박정민 발렌타인 스페셜 'Not Alone'	고베 국제회관 국제홀 시부야 CC레몬홀
2월 14일	이정진 발렌타인 프리미엄 나이트	시부야 O-EAST
2월 15일 2월 17~18일	SG워너비+ 2011콘서트	아이치현 예술극장 시부야 CC레몬홀
2월 18~20일	슈퍼주니어 슈퍼쇼3 재팬	요코하마 아레나
2월 19일	SHU-I SHIBUYA BOXX SHOW Vol.1	시부야 BOXX
2월 19일	한혜진 팬미팅 2011 in Tokyo	MLB 카페 도쿄
2월 19일	김형준 일본 첫 번째 파티	도쿄 시나가와 스텔라볼
2월 20일	이정문 일본 첫 팬미팅	오사카 히가시나리 구민센터홀
2월 20일	김주원 팬미팅 2011	오사카 도우시마호텔
2월 23일	르네상스 재팬 패션쇼 가수 '비스트' 게스트 출연	도쿄 료고쿠 국기관
2월 25일 2월 27일	윤상현 미니 라이브 팬미팅	도쿄 유우포토홀 NHK 오사카홀
2월 26일	2011 장동건 스토리	고베 국제회관 국제홀
2월 26일	제 4회 한·일 올스타 야구전 안재욱 출연	오사카 마이시마 야구경기장
2월 27일	소지섭 2011 도쿄 팬미팅	도쿄 국제포럼 홀A

2월 28일	소지섭 'The Way' 일본판 발매 기념 사인회	롯데폰기
3월 2~4일	Zero 콘서트 투어	홋카이도 비히로 시민문화홀, 아사히카와시민 문화회관, 삿포르 니토리 문화홀
3월 3일	영화 '너는 펫' 제작발표회 장근석, 김하늘, 최종훈(FT아일랜드)	이바라기 공항 남측공원 임시주차장
3월 5~6일	오만석 전국공연 2011	규슈 구마모토 권군문화홀 후쿠오카 스카라 에스파시어
3월 5일	도쿄 소녀시대 콜렉션 2011, 소녀시대, 2PM 패션쇼 출연	국립 요요기경기장 제 1체육관 패션쇼 출연
3월 6일	JK김동욱	도쿄 하마리큐 아사히홀
3월 9일	박용하 필름 콘서트	요코하마 가나가와 현립음악당

<4월~6월>

일시	출연 아티스트/ 행사명칭	회장 / 비고
4월 23, 24, 26일	스매쉬 투어 2011 첫 일본공연	나고야 BOTTOM LINE, 오사카 BIG CAT, 도쿄 아카사카BLITZ
4월 29일	서도영 DVD, 포토북 판매, 생일 팬미팅	도쿄 나카노 제로
4월 29일	Girls Awards2011 ZE:A, JUNO, SHU-I, KINO	도쿄 국립 요요기 경기장 제1체육관
5월 1~3일	박해진 생일 기념 디너쇼	쉐라톤 그랜드 도쿄, 웨스턴 나고야 캐슬
5월 1~3일	김형준 JAPAN LIVE TOUR2011	도쿄 글로브홀
5월 3일	<장난스런 키스>김현중 정소민 방일	그랜드 큐브 오사카
5월 3일	김정훈 제대 기념 팬미팅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5월 4~8일	엠블랙 데뷔 싱글 <Your Luv>구입자 한정 라이브 콘서트	오사카 아카소, 후쿠오카(Drum Be-1), 삿포르 큐브 가든, 도쿄 아카사카(blitz), 나고야(bottom line)
5월 4,13일	ZE:A 아시아 투어	요코하마(Pacifico) NHK 오사카홀
5월 6, 8, 9, 10, 13일	2011 2PM 첫 일본 콘서트 'Take Off'	Zepp(삿포르,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도쿄)
5월 8일	지성 팬미팅 'Spring in my heart'	도쿄 국제포럼 홀C

5월 8일	2011 도쿄 케이윌 콘서트	일본 청년관 대홀
5월 12일	동방신기 썸머 캠페인 기자회견	도쿄
5월 10~11일 5월 13~19일	빅뱅 'Love&Hope 투어 2011'	오사카성홀, 마쿠하리멧세 이벤트홀, 나고야 일본 가이시홀
5월 14일	박광현 Talk & 라이브2011	오사카 Sankei홀breeze
5월 14일	동일본 대지진 기부 캠페인 '도쿄전설2011' (동방신기, 2PM, 샤이니, 비스트, 엠블랙, FT아일랜드, 2AM, 초신성, Miss A, f(x), SG워너비+, 포미닛, 아이유, 시크릿, 시스타)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후지TV 7월 16일 방송)
5월 14, 15일	장혁	시즈오카 아카오 신호텔
5월 15일	박광현 프리미엄 이벤트	도쿄 타워 레코드 시부야
5월 15일	제 4회 K-Pop 슈퍼라이브 콘서트 (샤이니, 신혜성, 대국남아 외)	지바 마쿠하리 이벤트홀 DA TV 8월 13일 방송
5월 21일	F.CUZ 판타스틱 라이브 2011	도쿄 '라 포렛 뮤지엄' 롯폰기
5월 21일 5월 22일	ZE:A, RONIN POP 프리미엄 상영회	씨레오 오사카 중앙 도쿄 멜파크홀
5월 22일	동일본 대지진 지원 콘서트 '감바로 일본' (포미닛, 샤이니, 놀아조, 시크릿, 설운도, 최진희, 박현빈)	오사카성 공원, 태양의 광장
5월 23일	ZE:A 'Here I am' 특별 이벤트 하이터치&악수회	요코하마 (Pacifco)
5월 26일	엠블랙 일본 프리미엄 이벤트	ZEPP 도쿄(TBS 7월 31일 방송)
5월 26일	박정민 '와라 와라 박정민' 콘서트	도쿄 타워 레코드 시부야점
5월 27일	한인회 창립 10주년 기념 공연 동일본 대지진 재해 기부 이벤트 (김준호, 왕비호, 홍인규, 정경미 외)	도쿄 한국 문화원
5월 28일	유아인 첫 팬클럽 기념이벤트 'Mezame'	도쿄 시나가와 스틸라볼
5월 28일	SHI-I 정기 라이브 공연	도쿄 School of Music
5월 31일, 6월 1, 4, 5, 17, 18일	소녀시대 일본 전역 아레나 투어	오사카성홀,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도쿄 국립요요기 경기장 제 1체육관
6월 3일	씨엔블루 제 2회 팬클럽 창단식 기념 이벤트	Pacifco 요코하마 국립대홀
6월 3일	주상욱 일본 공식 팬클럽 창단	시부야구 문화종합센터

	기념 팬미팅	
6월 4일	박재정 石匠佐世保(사세보)점 Open기념 팬미팅 in SASEBO	사세보 시민회관
6월7일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지원 '서울 오사카 Music of Heart 2011 - 파이팅 일본' (동방신기, 2PM, FT아일랜드, 비스트, 엠블랙, 유키스, 2NE1, 아이유, f(x), 포미닛, 티아라, 비)	오사카 교세라돔
6월10일	윤상현 싱글 발매 기념 특별 이벤트	도쿄 아카사카
6월12일	윤상현 나고야 라이브 공연	나고야 메이테즈홀
6월13,14,17,19일	초신성 라이브 투어 2011 'Pray'	Pacificoo 요코하마 국립대홀 그린 아레나고베, 나고야 국제회의장
6월 14일	대국남아 신곡 발매 기념 미니라이브	시부야 O-EAST
6월 16일	동일본 대지진 지원 라이브 이벤트 'WE LOVE JAPAN' (엠블랙, SG워너비+, ZE:A, J-Park, 주얼리, 김정훈, 브라운아이드걸즈, 인순이, 코드-V, 양배추 소라, 현기, 시바타 카요코, 이코)	일본 BUDOKAN (DA TV 8월 6일 방송)
6월 16, 19, 26, 28, 30일	조수미 리사이틀 2011	아이치현 예술극장, 삿포로 콘서트홀, 도쿄 오페라시티 콘서트홀, Acros 후쿠오카 심포니홀, 오사카 더 심포니홀
6월 16일	동일본 대지진 재해 지원 이벤트 박재정 '간바레 일본'	교토 KBS홀
6월 16일	대국남아 LOVE 교환회	Lazona 가와사키
6월 19일	동일본 대지진 재해 지원 박해진 디너쇼, 오사카	Osaka Hyatt Regency Hotel
6월 22, 23일	비스트 나잇 앨범 구입자 추천 이벤트 공연	도쿄 신키바 스튜디오 코스트
6월 25일	카라 LG 옵티머스 브라이트 L-07C 구입자 한정 악수회	도쿄 에비스가든홀
6월 25일	MTV VIDEO MUSIC AID JAPAN 소녀시대, SHINee, LADY GAGA, EXILE, AKB48ほか	지바·마쿠하리MESSE 이벤트홀
6월 25, 26, 30일	LEN 일본 첫 라이브 콘서트 2011	도쿄 한류 라이브 하우스 성지
6월 28일	한국 드라마 OST 콘서트 (이현섭, 조은, 기후)	도쿄 한국 문화원 한마당홀

6월28일	장근석 사진집 발매 기자회견	Pacifico 요코하마
-------	-----------------	---------------

<7월~9월>

일시	출연 아티스트/ 행사명칭	회장 / 비고
7월 2, 6, 8, 29일	FT아일랜드 2011 여름투어 'Messenger'	Zepp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일본 BUDOKAN
7월 3일	신혜성 'Always HYESUNG' Day 2011'	고탄다 유포토홀
7월 3일	먼데이키즈 2011 일본 콘서트 'Memories Cantare'	도쿄, 신주쿠 Face
7월 3일	이문세 2011 일본 콘서트 '빨간 저녁놀'	아이온 극장 브라바
7월 5일	티아라 첫 쇼케이스	시부야 AX
7월 6일	시크릿 일본 데뷔 프리미엄 라이브 공연	도쿄, 하라주쿠 라포렛 뮤지엄
7월 6, 8, 10일	성시경 2011 일본 라이브 하우스 투어	Zepp(나고야, 오사 카), NAMBA Hat ch, Pacifico 요코 하마 국립 중앙홀
7월 8일	박재범 팬미팅 & 콘서트 2011	나가노 선플라자
7월 8일	기태영 'Hope for Japan'	시부야 야구 문화 종합센터 오와다 사쿠라 홀
7월 9일	이태곤 오사카 팬미팅	아이온 극장 브라바
7월 2, 6, 7, 17일	소녀시대 일본 전역 아레나 투어	히로시마 아레나홀 후쿠오카 마린멧세
7월 13일	K-Pop 페스티벌 도쿄 뮤직뱅크 (동방신기, 카라, 소녀시대, 2PM, 비스트, 포미닛, 유키스, 백지영, 시크릿, 비, 인피니티, 박현빈, 라니아, X-5)	도쿄돔
7월 13일 7월 14일	Zero의 세계 Zero & Baladin 특별 콘서트	멜파크 오사카 아프리카
7월 15일	한류 씬머 기부 콘서트 2011 (조은, 이현섭)	홋카이도 시로 문화회관
7월 16일	SHU-I 정기 라이브	도쿄 FM홀
7월 16일	정찬 '꿈의 연인과 같이 지내는 여름의 바캉스'	Takeo Onsen Heights
7월 16일	비스트 일본 첫 팬미팅 투어	도쿄 료고쿠 고쿠기칸

7월16일	줄라이 2011 생일 기념 콘서트 'JULY's Jukebox'	라이브 하우스 성지
7월17일	비스트 'MEZAMASHI 라이브 공연 2011'	후지TV 오다이바 썬썬아일랜드 뮤직 돔
7월 17일	애프터스쿨 일본 프리미엄 파티 'Bang Bang Bang'	아카사카 블리츠
7월 17, 19일	일피니티 일본 첫 쇼케이스	오사카 NAMBA Hatch, Zepp도쿄
7월 18일	'Friend's Whistle! Act for Tomorrow' Vol.2 (박정민, ZE:A, SHU-I, 주노)	도쿄 국제포럼홀
7월 18, 24, 30일	유키스 팬미팅	Zepp 도쿄, 나고야, 오사카
7월 21일	YG 엔터테인먼트 AVEX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기자회견 (빅뱅, 2NE1, 세븐, 거미)	호텔 니코 도쿄
7월 22, 23, 27, 28일 8월 8, 11일	샤이니 일본 데뷔 프리미엄 리셉션	후쿠오카 IMZ홀, 고베 국제회관홀, 나가노 선플라자 삿포로 팩토리홀, 추코대학교 문화시민회관 오로라홀
7월 23일	노라조 핫썸머 파티 2011	신주쿠
7월 24일	엠투엠 일본 프리미엄 콘서트	오사카 시립 아동 문화 센터
7월 29일	김정훈 쇼케이스 'Break Down'	Zepp 도쿄, 오다이바 Tokyo, 오다이바
7월 29일	토니안 일본 첫 팬미팅	클럽 스타
7월 30일	LOVE-1 페스티벌 (카라, FT아일랜드, 포미닛, 초신성, 엠블랙, 김현중, 대국남아, ZE:A, 인피니티, 비, 슈프림팀)	치바공원 야외 특설무대
7월 30일	김종국 'Hope for Japan' 기부 공연	도쿄, 세타가야 시민회관 홀
7월 30일	CODE-V 일본 첫 라이브 공연 2011	도쿄, 세타가야구 타마가와 구민회관
7월 31일	CODE-V 썸머 콘서트, 오사카	씨레오 오사카 기타
7월 30, 8월 6, 13, 20, 21, 27, 28일	동방신기, 보아, 슈아이 애프터스쿨 외 에이벡스 소속아티스트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등
8월 2일	<장난스런 키스> 프리미엄 토크 & 라이브 쇼	도쿄 국제포럼 홀A
8월 2일	강하늬 첫 라이브 공연, 오사카	뮤직클럽 자누스

8월 4일	<수상한 삼형제> 이준혁 자선 팬 미팅	나가노 '제로'
8월 4일	시크릿 MEZAMASHI 라이브 2011	후지TV, 썬썬 아일랜드, 뮤직 스타디움
8월 6일	조인성 제대 후 첫 일본 팬미팅	시나가와 스텔라볼
8월 6일	카라 일본 컴백쇼 2011	요코하마 아레나
8월 6, 7일	시크릿 'Madonna' 발매기념 이벤트	도쿄 지루쑈 극장, 오사카 모리노미야프로티홀
8월 6일	MEZAMASHI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 슈퍼라이브 (초신성, 주노 외)	일본 유니버설 스튜디오
8월 7일	FT아일랜드 MEZAMASHI 라이브 공연 2011	후지TV 오다이바, 썬썬아일랜드, 뮤직스타디움
8월 8일	초신성 MEZASASHI Live 2011	후지TV 오다이바, 썬썬아일랜드, 뮤직스타디움
8월8일	파이팅 일본! 2011 특별 만남 (신혜성, CODE-V, 달샤벳)	아이치현 예술극장 메일홀
8월 12~14일	MTV ZUSHI 페스티벌 2011 2PM, 애프터스쿨, 주노 외 일본 아티스트	리빌에라 주이시 마레나
8월 13일	정겨운 도쿄 팬미팅 2011	일본 교육 회관
8월 13일	초신성 슈퍼 썸머 페스티벌	Pacifico 요코하마
8월 13, 14일	썸머 소닉 2011 보아, 소녀시대 외 일본 및 해외에서 유명 아티스트 다수 출연	도쿄 마쿠하리멧세 외
8월 17일	슈아이 정규 라이브 공연	도쿄 FM
8월 17, 18일	JYJ 네이션 일본 공연 2011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8월 18, 23일	라이브 이벤트 '매리는 외박중' 장근석, 문근영	일본 부도칸 오사카성홀 오사카성홀
8월 19일	2PM MEZAMASHI 라이브 2011	후지TV 오다이바, 썬썬아일랜드, 뮤직스타디움
8월 19, 20, 22일	SG워너비+ 제 2회 콘서트 2011	나가노 선플라자홀 고베 국제회관
8월 19, 20, 24일, 28일	김형준 썸머 페스티벌 투어	도쿄
8월 20일	김재승 팬 미팅 '다녀오겠습니다'	씨레오 오사카
8월 20일	K-Pop 올스타 라이브 니가타 (씨엔블루, 비스트, 2PM, 틴탑, 소녀시대, 카라, 포미닛, 2AM, 인피니티, 시스타, 노라조)	도호쿠 전력 빅스완홀
8월 20, 21, 25일	유키스 미니앨범 발매 기념 이벤트	나고야,오사카, 가와사키
8월 21일	2PM 싱글앨범 'I'm your man' 구입자	Pacifico 요코하마

	기념 공연	
8월 21일	J-웨이브 라이브 공연 2000+ 11 2PM 외	국립 요요기 경기장 제 1체육관
8월 22일	썬엔블루 MEZAMASHI 미니 라이브 공연	후지TV 오다이바, 썬썬아일랜드, 뮤직스타디움
8월 23일	대국남아 MEZAMASHI 라이브 공연 2011	후지TV 오다이바, 썬썬아일랜드, 뮤직스타디움
8월 25일	유나이티드 큐브 일본 공연 (비스트, 포미닛, 지나)	일본 '부도칸'
8월 25일	이민호 두 번째 일본 이벤트	시부야 CC레몬홀1
8월 28일	K-Pop 커버댄스쇼 'DREAM ON!' 스페셜 게스트 유키스	후지TV 오다이바 썬썬 아일랜드, 뮤직 스타디움
8월 28일	김재원 데뷔 10주년 기념 이벤트	요미우리홀
8월 29일	샤이니 MEZAMASHI 라이브공연 2011	후지TV 오다이바 썬썬 아일랜드, 뮤직 스타디움
9월 1, 3일	ZE:A 앨범 발매 기념 미니 라이브	선샤인 분수광장 도쿄돔 라과 가든
9월 1, 3, 6, 7, 9, 12, 13, 15, 18, 20, 21, 24, 26, 27, 29일	초신성 라이브 투어 2011	Zepp (삿포로, 센다이, 오사카) 등
9월 2~4일·	SM TOWN 도쿄 라이브 공연	도쿄돔
9월 4일	드림하이 프리미엄 이벤트 2011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9월 4일	장혁 팬미팅	유포트홀
9월 5일	김정훈 라이브 & 토크쇼, 나고야	나고야 센추리홀
9월 6, 7, 8, 21, 22일	스매쉬 투어 2011 'SM☆SH UP'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9월 8, 11, 14 일	박광현 라이브 공연 2011	나고야, 도쿠시마, 후쿠오카
9월 10일	K-Pop 뮤직 페스티벌 2011, 가고시마	사쿠라지마 다목적광장 내 야외무대
9월 10일	이은미 일본 콘서트	에도가와구
9월 11일	류 라이브 공연 2011	아이치현 예술극장대홀
9월 12일	브라운 아이드 걸즈 첫 일본 공연 2011	시부야 CC레몬홀
9월 13, 15일	비 자선 공연	일본 BUDOKAN 교베 월드홀
9월 16일	이승기 팬 미팅 2011	오미야 소닉홀

9월 18일	김래원 팬 미팅 2011 '타임캡슐'	히비야 공회당
9월 19일	2011 제 4회 한류 뮤직 페스티벌 (2AM, 임정희 등)	시부야 CC레몬홀)
9월 19, 20, 24, 25일 10월 1, 2일	2NE1 첫 일본 투어 'NOLZA in JAPAN'	요코하마 아레나홀, 고베 월드홀, 마쿠하리멧세
9월 21, 23, 24일	인피니티 일본 첫 라이브 공연	Zepp 오사카, 요코하마 블리즈
9월 23일	동일본 대지진 재해 지원 한국 드라마 OST 콘서트, 오사카	오사카 국제교류센터
9월 24일	슈아이 정기 라이브	매츄시타 IMP홀
9월 24일	LEN 라이브 공연 '코스모스'	긴자 K-PLACE
9월 25일	씨엔블루 2번째 앨범발매 기념 라이브 공연	요코하마 아레나홀
9월 29일, 10월 1, 3일	원빈 첫 싱글앨범 발매 라이브 투어	오사카

<10월~12월>

일시	행사 명칭 / 출연 아티스트	회장 / 비고
10월 2일	이현진 후쿠오카 팬미팅	파빌리온 24
10월 2일	한 일 축제 한마당 K-Pop 라이브 공연 (미스에이, Girl's Day, J-cera, 디셈버)	롯데기 헬즈 아레나
10월 5일	신혜성 앨범 발매 기념 토크 & 악수회	가와사키 '라조나'
10월 9일	주노 - 주노야 팬 이벤트 VOL.1	요코하마 블리즈
10월 9일	박해진 팬 감사 무료 이벤트	치바 공원
10월 10일	한효주 라이브 쇼	시부야 공회당
10월 10일	한류 고라쿠 나이트 2011 (이준혁, 박현빈)	고탄다 유포토 홀
10월 15일	이지훈 예능생활 15주년 기념 팬 미팅	아카사카 블리즈
10월 16일	신혜성 일본 투어	도쿄 돔 시티홀
10월 16일	초신성 팬미팅 2011 'For you'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10월 20, 22, 23일 25, 26	장근석 아레나 투어 'ALWAYS CLOSE TO YOU'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10월 21일	장기하와 얼굴들 공연 '우리 지금 만나자'	시부야 O-EAST
10월 22일	장기하와 얼굴들 공연	KBS홀

10월 23일	김원준 첫 일본 라이브 공연	도쿄 오모테산도
10월 24일	일한 드림 게임 2011 (김승우, 장근석, 오만석, 지진희, 등)	도쿄돔
10월 28일	장근석 첫 공식 영상집 발매 기념	긴자 K-Place
10월 29일	손호영 시크릿 쇼케이스	하얏트 리젠시 오사카
10월 31일	신혜성 디너쇼, 후쿠오카	오타니 하카타 호텔
11월 1일	남궁민 첫 팬미팅 '내 마음이 들리니?'	시부야 공회당
11월 1일	스매쉬 일본 데뷔 1주년 기념 이벤트	시부야 타워 레코드
11월 4일	허영생, 김규중 도쿄 공연 'Yes & Thank You'	히비야 공회당
11월 4, 5, 7, 8, 15, 16일	류시원 라이브 투어 2011	미사토시 문화회관
11월 6일	세븐 일본 공연	아카사카 블리즈
11월 9일	이동욱 팬미팅	시부야-AX
11월 9일	서울 도쿄 뮤직 페스티벌 (카라, FT아일랜드, 2NE1)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11월 9, 11, 12, 15, 16, 18, 19, 23일	김현중 첫 일본 투어 공연	그랜드큐브 오사카 샷포로 시 민홀, 전력홀(미야기현), 도쿄 국제포럼 홀A, 후쿠오카 국제 회의장 메인홀 등
11월 11, 12일	ZE:A 슈퍼라이브 공연	Zepp (도쿄, 오사카)
11월 12일	오지호 도쿄 팬미팅	가나가와 예술극장
11월 12일	류진 도쿄 팬미팅	'디퍼 아리아케'
11월 12일	빅뱅, 2NE1 걸즈 어워드 2011 F/W	도쿄 국립요요기경기장 제 1체육관
11월 15, 16일	SG워너비+ 일본 콘서트	고베 국제회관 등
11월 17일	<파라다이스목장>프리미엄 이벤트 (창민, 이연희)	요코하마
11월 18, 19일	권상우 영화 <통증> 일본 프리미어 시사회	나가노 선플라자홀, 사카이시(堺市) 시민회관
11월 20일	주원 일본 첫 팬미팅	Zepp도쿄
11월 20일	정준호 팬 이벤트	나가노 선플라자홀
11월 20일	굿프렌즈 자선 프리미엄 콘서트 (FT아일랜드, 비스트, 지나, 틴탑 등)	요코하마 아레나

4. 공연·전시 산업

공연은 3월 11일에 일어난 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3월 사고 직후부터 4월말 까지 모두 중지되었으며, 5월부터 조금씩 지진 피해지역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기 시작했다. 따라서 올해는 기부 형식의 공연, 전시 이벤트가 많은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기간	제목	극단 / 장소
1.28-30	한·일 마임극단 합동공연 '두 명의 경찰관'	신주쿠 'Tiny Alice'
2.7-20	한·일 합동공연 '야키니쿠 드래곤' (재연)	도쿄 신 국립극장 소극장
2.14-20	국제 무대예술 미팅, 요코하마	가나가와 예술극장, 가나가와 현민홀 등
2.19-20	양정은 쇼케이스 (상사봉)	오사카 프란츠 에사카 극장
2.25-27	한국 현대 희곡 드라마 'Reading Vol.5'	도립극장
3.24-27	쿠킹 난타	이케부쿠로 선샤인 극장
6.29-7.3	일한 문화예술 페스티벌	치바현 야치요 시민 회관
8.22-8.23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Dream On' VOL.3	시부야 O-WEST 시부야 O-EAST
7.30-8.7일	KAAT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	KAAT 가나가와 예술극장
9.16-11.13	도쿄 페스티벌 T/T11 공모 프로그램	사이타마 예술극장
9.12-9.16	유니버설 발레 일본 투어 2011	유포트홀 등
11.3-11.6	한일 공동 제작 <모래의 역>	피블릭 시어터
11.18-11.24	강지환 드라마 콘서트 '나는 조태규다'	요코하마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상업적 수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독립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제에서 단편, 중편 상영이 이어지고 있어 일본에서도 점차 관람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올해 4회 째를 맞이하며 이제 고정적인 팬 층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10월에는 도쿄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의 시사회가 열리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아직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 한국 애니메이션의 지명도는 높지 않지만 앞으로 많은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한국의 캐릭터 상품은 하얀 고양이를 사용한 ‘JETOY: Chou Chou고양이’ 시리즈가 인기다. 2010년부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시작한 이 시리즈는 일본 제품에 비해 가격이 싸고 귀여운 얼굴 모양으로 인기를 얻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특이한 점은 이 상품은 한국 제품인 것을 모르고 사는 일본인들도 많다는 점이다. JETOY사는 일본에서 고양이 못지않게 인기 있는 강아지 시리즈 캐릭터도 등장시켜 계속해서 시장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Chou Chou 고양이 시리즈, 앞으로 기대가 되는 LaLa dog 시리즈>

NHN 재팬과 한게임이 통합되어서 생긴 네이버 재팬은 2010년 5월에 Livedoor를 자회사화 시킨 이래, 포털사이트 Livedoor 검색 엔진에 네이버를 채용하는 등 이미 NHN 재팬 그룹 내의 서비스 연휴를 시도해왔으나 2012년 1월 1일자로 네이버 재팬, Livedoor은 NHN재팬으로 경영 통합 한다고 발표했다. 경영통합으로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기존의 서비스와 상표는 그대로 남기고 앞으로 개발하는 서비스도 종목에 따라 한게임, 네이버, Livedoor 등의 브랜드로 나누어 쓸 예정이다. NHN재팬 그룹 전체의 PC대상 서비스의 주목해야 할 게임 유저 수는 월 4300만 명으로 (2011년9월, comScore조사) 앞으로는 한게임의 아바타나 아이템 요금 등의 시스템을 Livedoor와 NAVER 재팬의 웹서비스 안에 도입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려고 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유저 층이 한정되어 있는 한 게임을 웹 이용 전체 타겟층으로 보다 넓게 맞추려는 전략이다.

아울러 NHN재팬은 미국의 소셜 게임 제작사인 Crowd Star와 업무 제휴를 하면서 Crowd Star사가 개발할 게임을 일본에서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는 휴대폰 대상의 소셜게임 사이트 'Mobage(모바게)'를 운영하는 'DeNA'사가 호조한 경영 상태와 거액의 영업이익을 배경으로 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즈를 매수한다는 사건이 일어나 게임 업계 및 기업에 대한 주목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6. 한스타일

올해는 한류를 키워드로 하여 음식, 패션, 그리고 댄스나 스포츠, 미용/건강, 전통 문화 및 역사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실행되었다. 이런 경향은 일본의

신한류붐을 타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는 방사선 문제로 취소된 이벤트가 많았으나 내년에는 보다 많고 다양한 행사가 큰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기간	테마	장소	비고
1.31-2.26	구정아 'E는 눈을 떴다. 지금 그는 걷고 있다.'	CCA 북력천 프로젝트, 갤러리	
2. 20	시인 윤동주 2011	릿쿄 대학교내 교회	성균관대학교 교수 초빙강연
3.1-20	거대한 감옥, 식민지 시대 조선에서 살다	리쓰메이칸 대학교	한국병합 100주년 특별전
3.8-13	한국전통공예 '보자기전, 안혜경 선생님을 맞이하며'	노리타케 숲 갤러리	
3.25-30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세계전2	오사카 아베노 긴테츠 백화점 9층	
4.14-4.19	한국역사드라마 <이산>, <동이>의 세계전	세이부 백화점	
4.4-4.23	'윤동주를 그린다' 아리이 니지코 전	PAMA갤러리	
4.14-9.6	Energish Korea 한국의 미 and 맛	도쿄, 사이타마 가나가와 소고 백화점	각 백화점에서 돌아가며 한국의 음식과 공예품을 특별전시 형태로 판매
4.16-5.15	제 4회 한국 독립 애니메이션 영화제	도쿄 시부야 Apple link, 아이치 예술문화센터 외	
6.17-6.19	한일 우호 교류마당	신주쿠 오쿠보 공원	한국인 기업가와 유학생들을 위한 자발적인 자선사업
6.27-7.2	한일 친선 미술 100인전	긴자 Artist Space	
7.15-9.25	제 1회 학생 한국어 작문대회	도쿄 교육원 주최	일본에서 처음 열린 한글 작문 대회
8.16-11.18	제 3회 한국문학 감상문 콘테스트	도쿄한국문화원	올해의 선정도서는 '채식주의자'
9.10-19	'도쿄에서 서울로 vol.3' 일본/한국 작가들을 위한 교류전	후쿠시마 도쿄 갤러리 mai	
10.27	제 27회 'One Korea Festival'	오사카	
11.10	MBC드라마&막걸리 페스티벌	한국문화원 한마당홀	MBC경남, MBC 재팬
11.13	제 7회 조선통신사 퍼레이드	사이타마	
12.4	Elegant Collection	Zepp 후쿠오카	미용, 패션, 노래, 댄스 분야를 아우르는 이벤트

2011 중국(북경) 한류 동향 보고

중국/북경
손성욱 통신원

◆ 총 평

2000년 대 초반 이래 중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한류 바람을 이제는 '바람'이라는 단어로 묘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미 한류 콘텐츠는 문화의 한 장르로 정착되었다고 생각한다. 큰 이변이 없다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한류는 작년과 같은 추세를 유지했으며,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특히 작년에는 '69 성전' 등 혐한류가 강하게 몰아 부쳤지만, 올해는 특이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내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내부 단속에 나서면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한류가 중국 내에서 한 문화 장르로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일본에서 반한류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 사건이 중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지만 그야말로 우려에 불과했다.

2012년도 올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올해 3월에 열린 제 11회 전국인민대회의 제 4차 회의에서 <‘十二五’시기 문화산업 2배 발전 계획 《‘十二五’时期文化产业倍增计划》>을 채택하였고, 10월에 열린 제 17기 6중전회의에 문화 산업 육성을 둘러싼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각 부서에서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은 2012년부터 5년 동안 문화강국을 목표로 문화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사회 풍조의 문란을 야기 시키는 부분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은 현 지도부가 퇴진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는 시기로 내부 단속을 위한 규제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2012년 중국의 문화산업 정책과 발전 양상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2007년 중국 정부의 해외 드라마 수입 제한 정책으로 최근 4-5년간 중국 공중파에서 한국 드라마는 약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올해는 공중파를 통해 새로 방영된 한국 드라마의 편수, 시청률이 작년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중국의 전 위성 방송을 체크할 수 없었지만, 올해 중국 공중파를 통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로는 <내사랑 금지옥엽>, <천사의 유혹>, <술약국집 아들들>, <외과의사 봉달희>, <커피프린스 1호점>, <역전의 여왕> 등이 있다. 이들 드라마들은 대부분 동시간대 시청률 10위권 내에 들었으며, 특히 <천사의 유혹>은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모았다.

올해 한국 드라마의 공중파 인기를 주도한 공중파 방송국은 후난위성이다. 후난위성은 중국 내에서 드라마, 연예 프로그램의 선두주자로 그동안 많은 한국드라마를 방송하였고, 한국 드라마의 판권을 구입해왔다. 후난위성은 작년 말 <내 사랑 금지옥엽>을 시작으로, <천사의 유혹>, <술약국집 아들들>, <외과의사 봉달희>을 황금 시간대에 방영하였으며, <커피프린스 1호점> 또한 방영 허가를 받아 방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내의 유혹>의 중국판 리메이크작인 <귀갓길의 유혹>을 방영하여 큰 인기를 모았다. 후난 위성은 한국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의 판권은 대부분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에도 한국 드라마를 방영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공중파에서의 인기를 가지고 한국 드라마의 드라마를 논하기는 힘들다. 많은 이들이 인터넷으로 드라마를 보는 경우가 많으며, 젊은 층의 TV 시청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소후가 한국 드라마 전용 코너를 개설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소후가 방송 3사와 판권 계약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인터넷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국 시청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불법복제를 넘어 새로운 한류 드라마의 이윤 창출 통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소후처럼, 중국 최대 동영상 제공 채널이라 할 수 있는 PPTV가 한류 전용 코너를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PPTV는 CCTV가 출자해 만든 CNTV와 경쟁 중이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는 중이다. 그들이 새로운 사업 확대 중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한류 전용 코너이다. PPTV는 현재 중국 국내 드라마의 35%, 한국 인기 드라마의 90%, 대만 예능 프로그램 중 50% 이상의 방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다큐멘터리 3,000여 편과 대부분의 스포츠 방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드라마와 일본 드라마 역시 방영하고 있어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도 PPTV를 통해 EPL 경기나 미국드라마, 일본드라마를 감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 PPTV는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방송국 중 하나이다. 이미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PPTV는 현재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수를 넓히면서 인터넷 방송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점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계획 하에 앞으로 3년 동안 PPTV를 통해 제공될 한국드라마는 600여 부, 총 재생시간 13,500 시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계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배우들의 중국 드라마 출연이다. 작년 부터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는 한국 스타들이 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점차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실 과거에는 중국 드라마 제작자들이 한류 스타의 명성만을 보고 배우를 섭외해, 한류 스타를 얼굴 마담 식으로 쓰다 보니 작품은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했다. 하지만 점차 한류 스타의 인기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극의 완성도를 높여 가고 있다. 한국 배우가 출연한 중국 드라마가 성공한 경우는 추상미가 출연한 <귀갓길의 유혹>과 박해진이 출연한 <치엔두오두오 결혼기>이다. <귀갓길의 유혹>은 <아내의 유혹>의 리메이크 작품이었지만, 추상미의 연기가 돋보였다. 그리고 <치엔두오두오 결혼기> 스토리나 제작진으로 볼 때 순종 중국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드라마에 박해진의 연기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갔다. 현재 <치엔두오두오 결혼기>는 후난위성에서 방영되고 있으며 높은 시청률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5월 중순 동안 6부작인 <누들로드>가 CCTV9 다큐멘터리 채널을 통해 중국 공중파를 탔다. 중국 공중파를 통해 소개되는 한국 다큐멘터리는 매우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누들로드>가 방영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누들로드> 자체가 뛰어난 작품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인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다양한 면류가 있는 중국인들에게 <누들로드>는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사실 중국에서 방영되기 전 이미 중국 내 다큐멘터리 마니아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2010년 중국 공중파에 방영된 한국 드라마>

No.	작품명	해당채널	방송일시
1	내 사랑 금지옥엽	후난위성 금웅독파극장	첫 방송 2010.12.7 22:00
2	천사의 유혹	후난위성 금웅독파극장	2011.3.29-4.14 22:00
3	솔약국집 아들들	후난위성 금웅독파극장	2011.4.15-5.26 22:00
4	외과의사 봉달희	후난위성 금웅독파극장	2011.5.27-6.6 22:00
5	커피프린스 1호점	후난위성 우상독파극장	첫 방송 2011.9.10 8:30
6	하늘이시여	CCTV8	2011.7.5-8월 중순 17:00
7	역전의 여왕	BTV영상	2011.9.13-9.27 22:40

2. 영화 산업

중국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는 여전히 매력이 없다. 한국 영화가 인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 극장가에서 성공하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다. 중국에서 한 해 동안 개봉되는 한국 영화는 일 년에 2-3편 정도인데, 개봉된다 하더라도 할리우드 대작과 중국 대작 영화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흥행에 성공하기가 힘들다. 올해 중국 극장가에 걸린 한국 영화로는 <아저씨>, <마당을 나온 암탉>, <7광구> 등이 있다. <아저씨>, <7광구>는 중국 개봉 전 주연 배우가 중국을 방문 해 홍보에 나섰음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7광구>는 현재 개봉되고 있는데 좋은 성적을 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나마 <아저씨>는 관객들과 평론가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7광구>는 관객 수와 평론 부분에서 모두 실패하였다. 사실 한국에서 실패한 영화가 중국에서 성공하기란 쉬운 것이 아니다.

올해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중국영화의 성적도 신통치 못하다. 김희선이 출연한 <전국>이 지난 4월 개봉하였다. <전국>은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해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지만, 작품성과 흥행에서 모두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 출연하면서 김희선은 배우 개인적으로 중국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한채영이 출연한 <빅딜>은 11월 말 개봉하여 현재 상영 중이다. 첫 상영회 부터 큰 관심을 모아 흥행 대박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0위에 랭크돼 흥행에 참패하였다. 하지만 <전국>에서 김희선이 관심을 받은 것처럼, 배우 한채영 또한 중국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중국 극장가에서 한국 영화의 성적은 좋지 못하지만, 중국 영화계의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한국영화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신영화전기·몽유행동>(新电影传奇·梦幻行动)이다. <신영화전기·몽유행동>이 지난 11월 7일-10일 CCTV9 다큐멘터리 채널을 통해 재방영되었다. <신영화전기·몽유행동>은 총 10부작으로 제작되었으며, 그 중 5부가 한국영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다양한 한국 영화를 소개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한국 영화의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창의력 있는 작품들의 제작되고 있으며, 그 작품들은 사회와 문화의 화두, 그리고 시장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보았다. <신영화전기·몽유행동>은 10부작으로 제작되었지만, 주로 관심을 받은 부분은 한국영화에 대해 다룬 전반부 5부작이다. 지난 7, 8월 첫 방송 이후 큰 관심을 받자 CCTV9에서 구입해 지난 9월 방영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재방영한 것이다. 사실 내용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심도 있는 다큐멘터리는 아니다. 회당 방송시간은 30분이며, 주로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영화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국 영화가 왜 빠르게 발전하였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가에 대한 답을 주기에는 충분한 프로그램이었다.

CJ CGV가 국내에서 2008년부터 주최해온 ‘토토의 작업실’이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CJ CGV,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중국공산당 청년단 공동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50여 명의 중국과 한국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10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멘토들의 지도로 영화 제작을 진행하였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각 그룹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를 상영하였으며, 이 상영회에 객재용 감독과 배우 정일우가 특별 멘토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주중한국문화원과 북경전영학원 주최로 11월 18, 19일 양일 간 북경전영학원에서 <이준익 감독 초청 영화제>가 열렸다.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 이준익 감독의 대표작인 <왕의 남자(2005)>, <라디오스타(2006)>, <즐거운 인생(2007)>, <님은 먼 곳에(2008)>가 상영되었다. 그리고 19일에는 오후에는 이준익 감독과 북경전영학원 학생 간에 좌담회가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3. 음악 산업

중국에서 K-Pop은 완전히 하나의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았다. 다른 지역에서 부르는 열풍이라는 단어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K-Pop은 과거 H.O.T, 클론을 시작으로 중국 시장 공략을 시도했던 몇몇 스타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성장했다면 최근 2-3년 동안은 다양한 그룹들이 폭넓게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스타들이 가진 폭발력은 과거에 비해 약해진 느낌이다. 이것은 단순히 K-Pop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중국 내 뮤지션들 또한 과거에 비해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이는 음악 콘텐츠의 보급 형태와 소비행태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 중국에서 열린 K-Pop 스타들의 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가수 세븐, ‘2011 동팡잉스성디엔’ 출연

세븐은 3월 18일 베이징 국가수영장센터(国家游泳中心)에서 열린 ‘2011년 동팡잉스성디엔(2011东方影视盛典)’에 출연하였다. ‘2011년 동팡잉스성디엔’은 상하이 동방전매집단유한공사, 동팡 위성, SMG 대형활동부 등이 공동 주관하는 영화와 드라마 시상식이다. 주최 측은 시상식 축하 공연을 위해 중국 인기 가수인 판웨이보(潘玮柏), 쑤난(孙楠)과 한류스타 세븐을 초청하였다. 이번 시상식은 3월20일 저녁 9시 10분에 상하이 동팡위성을 통해 녹화 방송되었다.

2) 가수 비, 2011 첫 아시아 투어 및 환경보호 콘서트 개최

비는 3월 26일 베이징 완스다 센터(万事达中心体育馆, 구 우커쑹 체육관)에서 2011년 첫 아시아 투어 공연이자 환경보호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비는 ‘나쁜 남자’, ‘I'M COMING’, ‘PARTY TIME’ 등 20여 곡을 열창하였으며, 뛰어난 가창력

과 댄스 실력으로 중국 관객들을 열광시켰다.

3) 원더걸스, 베이징에서 열린 스타콘서트 참가

3월 26일 원더걸스가 베이징 올림픽 체육 중심(北京奥体中心)에서 열린 ‘스타콘서트 (赏心悦目, 尽在咪咕’群星音乐会)’에 참가하였다. 스타콘서트는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中国移动通信)’이 후원 및 주관하는 행사로 2009년부터 중국 각지에서 콘서트가 열렸다.

4) 가수 비, 마카오, 광저우 콘서트

비의 콘서트가 지난 5월 14일에 마카오에서, 5월 28일 광저우에서 콘서트가 있었다.

5) 가수 문희준, 솔로활동 10주년 기념 팬미팅

문희준이 지난 6월 12일 상하이 원봉극원(云峰剧院)에서 팬미팅을 가졌다. 이번 팬미팅은 H.O.T 데뷔 15주년과 문희준의 솔로 활동 1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문희준이 2008년 상하이에서 팬미팅을 가진 이래, 3년 만에 중국에서 열린 그의 공식행사였다. 그리고 그는 7월 9일 베이징에서 팬미팅을 가졌다.

6) SS501멤버 박정민, 팬미팅 개최

지난 6월 18일 SS501의 멤버 박정민이 자신의 첫 솔로앨범<Not Alone>발매를 기념하여 상하이에서 팬미팅을 개최하였다.

7) 가수 미나, 새 미니 앨범 ‘싱글파티’의 쇼케이스 개최

6월 24일 오후, 가수 미나가 베이징에서 새 미니 앨범인<싱글파티(单身派对)>의 쇼케이스를 가졌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50여 명의 기자와 팬들이 참석하였으며, 미나는 이번 쇼케이스에서 신곡 3곡과 뮤직비디오를 2편을 공개하였다. 미나는 지난 4월 싱글 ‘Songs in heart(写在心里的歌)’를 발표한 지 얼마 안 되어 미니앨범을 출시하면서 중국 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 가수 채연, 새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채연은 6월 30일, 채연은 베이징에서 새로운 중국어 앨범 <달콤한 기적(甜蜜的奇迹)>발매 기념 쇼 케이스를 가졌다.

9) 가수 토니안, 팬미팅 개최

토니안이 지난 7월 17일 상하이에서 팬미팅을 가졌다. 과거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H.O.T의 전 멤버 문희준에 이어 토니안이 중국을 방문을 해 H.O.T 데뷔

15주년의 의미를 되살렸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팬미팅에 토니안은 그의 기획사 소속인 신인 아이돌 그룹 스매쉬를 게스트로 출연시켜 중국 팬들에게 소개시켰다. 그들은 토니안과 함께 랩도 하고 춤을 추며 미래의 한류 스타로 발전 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10) 가수 브라이언, 새 미니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브라이언은 7월23일 상하이 다닝극장(大宁剧院)에서 새 미니앨범 <Unveiled>의 중국 발매를 기념하여 쇼케이스를 가졌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멤버로 활동하던 시절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솔로 활동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11) 가수 비스트, 언론 인터뷰 및 팬사인회

비스트가 7월 30일 상하이에서 언론 인터뷰와 팬사인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비스트가 중국에서 처음 가진 팬미팅이었다. 이번 행사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일본, 타이완, 중국을 방문하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시아 각지에서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끌어냈으며, 이번 투어의 마지막 지역인 상하이에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12) 가수 미스에이, <기묘견면회> 출연 및 신인상 수상 소식

미스에이가 출연한 절강위성의 인기 프로그램인 <기묘견면회(奇妙見面會)>가 10월 20일에 방영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미스에이는 '2011 CETV 아시아 10대 인기스타 시상식'에서 신인상 수상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여세를 몰아 지난 11월 17일 북경에서 3D뮤직비디오 발표회를 가졌다.

4. 공연/전시 산업

한중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올해 중국에서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공연, 전시가 있었다.

1) 양재범 그래픽전 Connections

이미 일본,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전시 한 바 있는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양재범 교수의 그래픽전 'Connections'이 북경 한국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렸다.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열린 이번 전시는 사람의 표정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단순화된 이미지로 표현하되, 형식적이 아닌 내적인 진실의 이미지를 담고자 하였다.

2) 2011 희망 나눔 확률 101% 캠페인

2월 23일 북경세기공원(北京世紀劇院)에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다. 이번 공연은 한·중 수교 19주년을 맞이하여 '2011년 희망 나눔 확률 101% 캠페인'이라는 구호로 개최된 음악회이다. 이번 공연은 베이징뿐만 아니라 텐진(24일), 칭다오(26일), 뎬윈강(27일)에서도 열렸다.

3) 장재록 개인전

도시의 풍경을 먹으로 그려내는, 도시의 동양화가 장재록의 개인전이 베이징 아터싸이디 화랑(阿特塞帝画廊)에서 3월 5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었다. 지필묵으로 그려낸 그림이라면, 전통적인 그림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한 인식을 깨고 도시의 풍경, 욕망의 산물들을 지필묵으로 표현했다.

4) 한국 문화원, 4주년 기획 전시 및 행사 개최

개원 4년째를 맞은 한국문화원이 4주년 기획 전시와 행사를 열었다. 지난 3월 24일부터 한국전통혼례 기획전 <백년가약 백년해로>를 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가회민화박물관 민화 초청전 <오색찬란 한국민화>을 지하 1층 전시실에 3월 22일부터 4월 16일까지 전시가 있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4주년 기념식을 했으며, 여성국악실내악단 ‘다스림’을 초청해 중국인들에게 한국 전통 음악의 멋을 선보였다.

5) <New Photography in Korea II>개최

지난 3월 12일 부터 5월 12일 사이 베이징 798에 있는 Paris-Beijing 화랑에서 사진전이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에 파리에서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던 <New Photography in Korea I>에 이어 베이징에서 개최된 것이다. 배찬효, 도로시윤, 화덕헌, 김금수, 김인숙, 구성수, 광모, 오향근, 원성원 등이 참가하였다.

6) 년버벌 퍼포먼스 <난타> 공연

지난 5월 17, 18 양일 동안 년버벌 퍼포먼스 <난타>의 공연이 베이징 바오리극원(保利劇院)에서 열렸다.

7) 백건우 <흑백 건반 위에 폭풍우> 연주회 개최

백건우는 지난 7월 9일 항주 대극원에서 ‘흑백 건반 위에 폭풍우(黑白鍵上的暴風雨)’ 연주회를 열었다. 그는 이번 공연에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 d단조 Op.30’을 연주하였으며, 관중들로부터 3분 넘게 기립박수를 받았다. 이번 공연에 항주 대극원은 3층 관람석을 이례적으로 개방해 중국 관중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8) <한중 서가 대표 작품전>,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개최

<한중 서가 대표 작품전>(中韩书家代表作品展)이 지난 9월11일 부터 20일까지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열렸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양진니(楊鎭尼), 김영기(金榮基), 선주선(宣柱善), 문공열(文功烈)이 참여했으며 중국을 대표해서는 리뉘(李铎), 천홍우(陈洪武), 장지에(张杰), 정샤오화(郑晓华)가 참가하였다.

9) 년버벌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 중국 순회공연 시작

년버벌 형식의 댄스 뮤지컬 <사랑하면 춤을 춰라(爱舞动)>의 중국 순회공연이 지난 9월 17일 상하이국제체육센터(上海国际体操中心)에서 열렸다. <사랑하면 춤을 춰라>는 2004년 한국에서 초연된 이후, 해외 수십여 곳의 도시에서 공연하면서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아온 작품이다.

10) 제 9회 중국 국제 디지털 콘텐츠 엑스포 개최

지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베이징에서 ‘제9회 중국 국제 디지털 콘텐츠 엑스포(第九届中国国际网络文化博览会)’가 열렸다. 이번 엑스포 기간에 ‘제 3회 한중 게임문화 페스티벌’도 열렸는데 특히 10월 29일에 개최된 ‘카트라이더 대회’는 중국 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캐릭터와 애니메이션 산업 부분은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다. 그나마 관심을 가질 만 한 것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중국에서 개봉한 것이다. 지난 10월 국경절 황금시즌에 한국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이 개봉했다. 올 상반기부터 중국 개봉 관련 소식들이 나왔으며, 여름에 개봉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황금주를 타겟으로 하여 9월 30일에 개봉하였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 개봉하기 일주일 전, <아저씨>가 개봉되었으나 여느 한국 영화처럼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다. 황금주에 반전을 기대했으나 기대로만 끝났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한국에 보도된 것처럼 중국 전역 3,000여개 극장에서 개봉되었다. 중국 개봉 전 ‘한국판 라이온 킹’, ‘한국 애니메이션의 자존심’ 등 중국 언론의 호평을 얻으며 많은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성적은 박스 오피스 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황금절을 타겟으로 하여 가족 단위의 관객들을 끌어 모으겠다는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끌어냈으며, 한국 애니메이션의 수준을 중국 영화계와 관객들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평과 달리 흥행에서는 참패하였다. 국경절 황금시즌이 아니라, 대작이 몰리지 않는 5월이나 11월 쯤 개봉했다면 의외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리라 본다.

6. 한스타일 및 기타

비빔밥 홍보를 위한 ‘비빔밥 유랑단’의 첫 해외 행사가 지난 9일 베이징 한국 문화원에서 열렸다. 본 통신원이 ‘비빔밥 유랑단’에 대한 소식을 처음 접한 것은 3월 초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들을 통해서였다. 직장 동료와 옛 친구 4명이 모여 전 세계 비빔밥 홍보 시식회를 펼치겠다는 소식이었다. 한식재단은 ‘비빔밥 유랑단’ 구성원인 강상균, 김명식(31), 정겨운(28.여), 김수찬(26)씨를 한식 홍보 대사로 위촉하였다. 그리고 CJ푸드빌의 비빔밥 체인인 ‘비비고’는 이들의 활동을 후원하기로 하였다. 베이징에서 열린 비빔밥 홍보 시식회에는 200여 명의 중국인들이 몰려 한식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베이징 한국문화원에서 각종 문화 강좌가 열리는 토요일에 열렸으며, 조금이나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이 펼쳐졌다.

한식재단의 한식 홍보대사로 임명된 슈퍼주니어는 3월 5일 상하이 웨라톤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한식 홍보행사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한식재단은 ‘슈퍼주니어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식 레시피’ 콘테스트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세계 각지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비야의 베스트셀러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의 중국어판 기념 사인회가 베이징 중관촌도서빌딩(中关村图书大厦)에서 열렸다. 사인회에는 유학생과 교민 등 300여 명이 모였으며, 사인회 전 강연회도 진행되었다.

2011 중국(상해) 한류 동향 보고

중국/상해
장진영 통신원

◆ 총 평

한국 드라마의 정규 편성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류의 확산을 제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중국이 해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중국은 비교적 고르게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과거 대만과 홍콩 드라마에 이어 한동안 한국 드라마를 유입해왔다. 이제는 한국 드라마의 유입을 제지하기 보다는 다양한 해외 문화를 유입하고 있는데서 나타난 결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 드라마의 유입은 줄었으나, 일본 드라마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드라마의 편성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한류 드라마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또 다른 이유로는 대동소이한 소재와 줄거리를 다루게 되면서 다양한 소재와 스토리를 원하는 중국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실제로 공중파에 편성되는 한국 드라마는 줄었으나, 인터넷은 물론이고, 유선방송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전보다 더 다양한 루트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더불어 그 노출 빈도는 과거보다 훨씬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중국의 인터넷 보급율은 15%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그 보급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2005년 드라마 <대장금>의 중국 방영 초대박 이후 방송사별 한국 드라마 편성 쿼터제 실시 및 해외 드라마 수입의 다양화를 통해 한류 드라마의 편성이 날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수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의 중국 내 노출은 오히려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류 스타 이민호의 인기를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중국에 정식으로 방영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연 배우가 먼저 인기를 얻는 현상에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드라마가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다만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한국 드라마의 편성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일본 드라마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드라마를 고르게 편성하는 것이기에 이를 한국 드라마의 편성 감소로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홍콩과 대만에서 한국의 최신 드라마를 방영함으로써 이 전파를 수신 가능한 중국 지역에서 함께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과, 이들 지역에서 중국어 자막이 처리된 영상을 통해 보다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륙에서 한국 드라마의 자리가 자꾸만 메인 방송사에서 지방으로, 비주류 방송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중국은 방송국 수에 비해 콘텐츠 수의 부족으로 다른 방송사에서도 같은 콘텐츠를 방영하거나, 심지어 20년 전의 드라마를 방영하는 등, 아직은 빈 시장이 많은 만큼 한국 드라마 콘텐츠를 확대 보급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특성상 중국에서 한 번 인기를 얻은 스타는 그 수명이 매우 길며, 한류의 초창기 단계에서 인기를 얻었던 김희선, 장동건, 이영애 등은 현재 중국 활동이 드물지만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며 각종 광고CF 촬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이들을 대체할 만큼의 영향을 가진 한류스타가 아직 없다는 점도 한류의 지속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반면 한국에서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중국에 진출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한 끝에 중국 드라마에도 출연하게 된 가수 채연의 성공 스토리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스타들에게 새로운 본보기가 될 것이다.

No.	채널명	작품명
1	봉황TV	너는 내 운명
2	자오치교육방송	코끼리
3	CCTV러시아어 국제채널	북경 내사랑(차인표 출연)
4	강소방송메이크업채널	신데렐라
5	천진방송문예채널	별은 내가슴에
6	자동차방송	아스팔트
7	동삼종합방송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8	LStime영화채널	티엔루오요칭(차인표 출연)
9	황하국제채널	코끼리
10	본강방송	너는 내 운명
11	온주방송 뉴스 종합채널	루루공주
12	닝보방송드라마영화채널	첫사랑
13	SiTV문물보고채널	코끼리
14	Animax	겨울연가
15	메이야방송	첫사랑
16	HBO	첫사랑
17	KBS world	오작교 형제들
18	국가지리야생채널	코끼리
19	메이야방송	성균관스캔들
20	시장위성	가을동화
21	오락방송	아가씨를 부탁해
22	영화1채널	가을동화
23	커지아방송HTV	세자매
24	Hd212	아가씨를 부탁해
25	Hd241	가을동화
26	카툰채널	팝콘

2. 영화 산업

2011년을 대표하는 한국 영화는 원빈 주연의 <아저씨>였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흥행에 힘입어 중국으로도 비교적 쉽게 진출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2010년 흥행작 <해운대>가 한국에서의 흥행을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하였으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마찬가지로 <아저씨>도 그 결과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다. <아저씨>는 중국 개봉 발표 당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탔고, 원래부터 원빈의 인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흥행 면에서는 재미를 보지 못했다. 중국 영화팬들은 영화 <아저씨>를 ‘따뜻한 살수(殺手)’로 이해하고 있으나, 정작 이 컨셉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드라마와 달리 상대적으로 짧고 제한된 시간 내에 영화설정과 배경, 스토리까지 한꺼번에 전달해야 하는 점이 문화상의 상이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미국영화를 볼 때보다 일본영화를 볼 때 더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미국 영화는 보기 전부터 문화가 상이하다는 점을 알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일본 영화를 볼 때는 같은 동양문화이기에 조금 상이한 점이 보이면 영화에 몰입하는 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 영화의 직접적인 중국 진출보다 중국 영화에 출연함을 통해 중국 영화계에 발을 들여 놓는 사례는 늘고 있다. 장동근, 송혜교, 김희선, 한채영 등이 좋은 예이다. 물론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중국 영화에 출연함으로써 그 입지를 굳히는 것도 한류의 발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지난 12월 2일 한채영이 출연하는 중국 영화 <거액교역>이 개봉 되었다.

3. 음악 산업

예년에 비해 한국 가요의 중국 진출은 다소 힘을 잃은 분위기이다. 상대적으로 K-Pop 가수들의 일본 진출이 많았던 한 해로 남을 것이다. 과거 한국 무대에서 해외로 시선을 돌릴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시장은 일본 시장과 중국시장이다. 그리고 2010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중국을 먼저 노크했다. 이유는 일본의 벽이 훨씬 높아 보였고, 중국의 벽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에서 대부분 중국 시장을 먼저 찾았다. 그러나 중국 시장을 만만히 보고 왔다가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과는 달리 장기전이 필요한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겪고 난 뒤 더욱 잘 알게 되었다. 더불어 일본 시장의 벽도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장기전이 필요한 중국보다는 음악 환경이 더욱 좋은 일본으로의 진출이 많아졌고, 그만큼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가 발전한 것 같다는 느낌도 준다. 월드 스타 비가 군 입대를 한 후 중국 최대의 한류 스타로 입지를 굳힌 가수 슈퍼주니어도 잇따른 악재와 멤버들의 군 입대로 내년 K-Pop의 전망이 더욱 어두운 것은 사실이다. 그나마 동방신기가 한국 가수의 자존심이 되어 주고 있다.

사실 이미 장나라, 채연 등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활동 중이나, 한류를 말할 정도 아니어서 빠른 시일내에 중화권으로 진출하는 한국가수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일본에 진출한 경우처럼 중국에서 현지 내수시장을 개척하여 진정한 중화권 스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순위	곡명	가수
1	我的心好冷(내 마음은 차가워)	sara
2	Nobody	원더걸스
6	这傻瓜(이 바보)	원더걸스
7	想太多(생각이 많아)	이구철

8	配角(공동 출연)	sara
11	呼唤爱情(사랑을 부르다)	장나라
12	我的心好冷 (remix)	sara
13	解脱(해탈)	이구철
14	我们的爱(우리의 사랑)	슈퍼 주니어
17	Tell me(영어 버전)	원더걸스
18	爱上你(너를 좋아해)	채연
19	珍爱(아끼고 사랑하는)	비
20	坏女人(나쁜 여자)	채연
21	冰河时代(빙하시대)	Noise
22	你哭了吗(너 우니?)	김현중
23	我会好好过(난 잘 지낼거야)	이구철
24	一个人(한 사람)	채연
25	只牵你的手(단지 너의 손에 끌려)	이구철
26	곰 세 마리(중국어)	
27	挽留你的歌(노래하지마)	비
28	都怪我(내탓이야)	이구철
30	夏天(여름)	이구철
32	不落的太阳(지지않는 태양)	장우혁
35	2 Ma Luv	신화
37	很漂亮嘛(이쁘잖아)	신화
38	U go girl	이효리
40	围墙(빙 둘러 쓴 답)	이구철
41	月亮啊月亮(달아 달아)	이정현
42	抱歉的心(미안한 마음)	원더걸스
43	幸福的眼泪(행복한 눈물)	채연
44	不爱了(사랑안해)	이구철
46	不完美(불완전한 아름다움)	이구철
47	因为是你(너때문에)	신혜성
49	死结(모순)	이구철
50	想念(그리움)	채연

4. 공연/전시 산업

일시	내용
7월 9일	베이징 세기그장, 문희준 팬미팅
8월 12일	윤은혜 첫 중국 광고 방송(휴대폰 광고, 중국 로컬 브랜드)
8월 21일	이다해 베이징 팬미팅
9월 26일	이민호, 현대 자동차 중국 모델 발탁
10월 2일	동방신기 2011아시아 순회 콘서트 북경 공연
12월 1일	이민호 상해 팬미팅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해당사항 없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최근 2010년 아시안 게임이 열렸던 중국 남방의 중심인 광저우 원엔징루에 한국인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지역에 한국거리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베이징의 왕징, 우다코우, 상하이의 홍추엔루, 즈팅루, 칭다오의 청양, 셴양의 시타에 이어 남방지역을 대표하는 한국거리이다. 그리고 이 한국거리가 최근 광주TV, 광동TV를 비롯해 매스컴들의 취재를 받으며 이 지역 중국인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이곳 한국 식당가의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급등한 환율 탓으로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빠져나갔으나, 이 공백을 중국인들로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일부 식당에서는 한국인 손님과 중국인 손님의 비율이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내 가장 많은 한국 식당 매장을 보유한 업체는 한라산으로 전역에 약 100여 개의 체인점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실제 한라산은 정통 한국요리가 아닌 중국적 맛으로 변환된 퓨전 한국식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맛 또한 한국 맛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나 원래부터 한국의 맛을 모르는 중국인들은 이 맛이 한국 음식의 맛으로 알고 즐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 전통의 맛을 자랑하는 한국 식당 중 대표 주자는 본가이다. 본가는 북경과 상해에 이어 올해는 광주에도 개업했다. 북경 본가와 상해 본가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성업 중인 대표적인 한국 식당이다. 이밖에 명동칼국수, 오발탄, 오막집 등도 다양한 지역에 체인점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그리고 본 통신원이 만나 본 중국인들의 대부분은 중국 음식맛과 별 차이가 없는 퓨전보다는 전통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삼겹살, 삼계탕, 떡볶이 등을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aT같은 공공기관에서 정통 한국음식 맛을 인증하는 제도 등을 도입해 중국인들에게 제대로 된 한국 음식 맛을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2011년은 한국 식품 업계가 중국의 내수시장에 가장 왕성하게 진입한 한 해였다. 일본식품은 일찍이 중국시장에 진출하여 내수시장에 활발히 유통 중이었으나, 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인해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었다. 또한 대만 음료에서 부적합한 첨가물이 검출되어 시장에서 퇴출된 탓에 시장의 공백이 생겼고, 이에 한국 식품이 어부지리를 얻은 측면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1 중국(홍콩) 한류 동향 보고

중국/홍콩
이성화 통신원

◆ 총 평

2010년이 한류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시점이라면 2011년은 다양화 된 한류 콘텐츠가 더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시기라 칭하고 싶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류는 음악, 드라마를 넘어서 한식, 한국어, 한국 제품의 열풍으로 이어졌다. 더욱 높이 사고 싶은 점은 그 열풍이 거품에 그치거나 끓는 냄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해 원더걸스의 홍콩 내 대활약을 지켜보는 이들은 그들의 인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또한 그들의 인기를 대체할 후발 주자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우려도 했었다. 하지만 걱정과 달리 원더걸스는 홍콩 내에서 이미 한류 스타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들 외에 소녀시대, 빅뱅 등의 그룹이 홍콩 내 음악계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드라마 또한 그 위치가 견고하다. <대장금> 열풍으로 시작된 한국 드라마의 인기는 이제 장르를 넘나들며 전 세대의 고른 사랑을 받고 있다. 홍콩 내 편성된 한국 드라마의 종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영화도 우수한 영상과 시나리오를 인정받으며 홍콩 국제영화제 등에서 다수 수상을 하는 등 맹활약하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의 한류도 여전하다. 한국의 의류 제품 브랜드와 화장품, 액세서리 등은 홍콩에서 최고의 인기품목이며 요즘 세대의 최고 키워드인 스마트 폰도 한국 제조업체가 우위에 있다. 이 외 한식 또한 맛과 영양의 우수성이 알려지며 전 세계 음식이 몰려있는 홍콩에서 인기 음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글 또한 제 2 외국어로서의 입지가 꾸준히 상승 중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홍콩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보(大公報)’, ‘문회보(文匯報)’, ‘명보(明報)’ 등 홍콩의 4대 중문 일간지를 대상으로 한국 관련 보도 건수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신문은 하루 평균 5~7건의 한국 뉴스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류 관광을 포함한 문화 및 스포츠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홍콩에서 발행되는 친 중국계 신문인 문회보(文匯報)는 지난 10월 6일 신문 6면 중 한 면 전체를 할애해 전 옥현 홍콩주재 한국총영사와의 인터뷰를 실으며 개천절과 한식, 10월 한 달간 열리는 한국문화행사인 ‘페스티벌 코리아’를 자세히 소개했다. 홍콩의 유력 영자신문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중국어 신문인 ‘대공보(大公報)’도 각각 개천절을 계기로 한국과 10월 열린 ‘페스티벌 코리아’ 행사를 소개하는 특별 지면을 할애하기 했다. 특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인기를 분석하는 글을 실어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류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이제 다양화된 형태로 홍콩 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도 인정한 사실이며 실제 조사의 통계 자료에서도 나타난다. 지금은 홍콩에 자리 잡은 한류의 가치를 더욱 자라게 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에 맞추어 다변화해야 할 시기다. 최근의 한류는 트위터, 페이스 북 같은 소셜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더욱 신속히 멀리 퍼지고 있다. JYJ의 김재중이 ‘트위터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쇼티 어워즈(Shorty Awards)’에서 미국의 팝 스타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유명인(Celebrity) 부문’ 1위에 올랐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홍콩 내 뿌리 깊은 한류가 더욱 가치를 뽐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홍콩 내 한국 프로그램 방영 내역 (방영 시점 순)>

TVB 채널	인어아가씨, 뉴 하트, 파스타, 추노, 아이리스, 제빵 왕 김탁구, 아내의 유혹, 로비스트, K-Pop, 성균관 스캔들, 80後環遊世界, 고맙습니다, 내조의 여왕, 나쁜 남자, 스포트라이트, 태양의 여자, 하얀 거짓말, 검사 프린세스, 태양을 삼켜라, 아빠 셋 엄마 하나, 디자인엔더시티, 與星同行시크릿 가든, 역전의 여왕, 드림하이, 천국의 계단, 트리플, 인생은 아름다워, 선덕 여왕, 웃어라 동해야, 별을 따다 줘, 내게 거짓말을 해봐, 온에어, 49일
ATV 채널	이산, 다 함께 차차차, 미우나 고우나, 하늘이시여, 너는 내 운명, 아줌마가 간다, YOOHOO&FRIENDS, 자이언트

2011년 한 해 동안 홍콩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어느 해 보다 그 수도 많았고 내용도 다채로웠다. 특히 한국에서 큰 히트를 친 <제빵 왕 김탁구>, <성균관 스캔들>, <시크릿>, <너는 내 운명>, <드림하이> 등은 한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 배우의 인기와 더불어 더욱 큰 인기를 얻었다. <시크릿>, <성균관 스캔들>, <드림하이> 등에 쓰인 OST의 경우 음악 상위 차트를 휩쓸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이틴물 외에도 <내조의 여왕>, <역전의 여왕>, <아줌마가 간다> 등 주 시청대가 주부층인 드라마들의 약진도 눈에 띄며 한류 층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외 이산, 선덕 여왕 등 한국 사극의 인기도 여전히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버라이어티 쇼 프로그램도 한류 스타의 영향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대표적인 예로 <런닝맨>을 들 수 있다. 홍콩 내에서 정규모 방송되고 있진 않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영상을 접하고 있는 팬들이 엄청나다라는 사실이 지난 홍콩 로케에서 알려졌다. 실제 <런닝맨>의 촬영이 이어진 지난 11월에는 홍콩 도심에 팬들이 몰려들어 도심이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런닝맨> 외에 <무한도전>, <1박2일>의 인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영화 산업

2011년 상반기에는 홍콩 내 한국 영화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우선 지난 3월 홍콩 국제영화제에는 열편의 한국 영화가 출품되며 풍년을 맞이했다. <옥희의 영화>, <아저씨>, <부당거래>,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방독피>,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 <파수꾼>, <무산일기>, <악마를 보았다>, <댄스 타운> 등이 상영되었다.

또한 홍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회 아시안필름어워즈 시상식에서는 <시>(2010)의 이창동 감독이 감독상과 각본상을, <악마를 보았다>(2010)가 편집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 밖에도, <황해>의 하정우가 남우주연상을, <하녀>의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공로상을 받았다. 영화 <파수꾼>(감독 윤성현)은 35회 홍콩국제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후반기에는 한국 영화의 홍콩 내 활약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반가운 소식들은 이어졌다. 우선 눈에 띄는 소식으로는 한국과 중화권을 넘나드는 영화로 기대되고 있는 <도둑들>이 홍콩과 배우들을 섭외하며 화제를 모았다는 점이다. 최동훈 감독의 영화 <도둑들>은 입달화 외에 홍콩과 중국배우 이신제와 중국상을 캐스팅하며 김혜수, 전지현 등의 탑스타 와 함께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했다. 한국과 홍콩의 탑 배우들이 등장하는

영화 <도둑들>은 벌써부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한국 스타들의 중화 권 내 활약이 눈에 띄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우선 권상우는 '재키 쉐' 성룡의 리브콜을 받았다. 지난 7월 프랑스에서 촬영을 시작한 <12 차이나스 조디악 헤즈>는 성룡판 <인디애나 존스>인 <용형호제> 시리즈의 3편 격인 영화다. 제작비 1천억 원 규모의 액션 어드벤처물로 권상우는 국내를 넘어 범아시아적 액션스타로 활약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미 촬영을 마친 <리핏 사랑해>는 장백지와 호흡을 맞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전지현 또한 <조이력 클럽>의 웨인 왕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중국과 미국 합작 영화 <설화와 부채의 비밀>을 올 여름 선보였다. 19세기 청나라 시대, 신분이 달랐던 두 여인의 우정을 그린 드라마로 중국의 리빙빙, <엑스맨>의 휴 잭맨이 출연했다. 미국에서는 올 7월 예술영화로 소개 돼, 24개 스크린에서 상영되었으며, 중국과 캐나다, 호주 등으로 확대 개봉되기도 했다.

이 외 신인배우 오우정이 한국배우 최초로 중국 관영 영화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영웅첩혈>은 중국 정부가 신해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게 위해 제작한 영화로 중국 전역 4,000개 극장에서 동시 개봉되었다.

3. 음악 산업

<상반기 음반 인기 순위>

순위	가수	앨범 또는 곡명
1	원더걸스	NO BODY
2	소녀시대	GEE
3	2AM	SAINT O'CLOCK
4	빅뱅	TONIGHT
5	소녀시대	HOOT
6	4MINUTE	4MINUTE
7	씨엔블루	BLUE LOVE
8	원더걸스	HONGKONGSPECIAL EDITION
9	소녀시대	OH
10	GD&TOP	HIGH HIGH
11	2PM	I'LL BE BACK
12	GNA	BLACK & WHITE
13	비스트	FICTION& FACT
14	SS501	
15	박정민	NOT ALONE

〈후반기 음반 인기 순위〉

순위	가수	앨범 또는 곡명
1	소녀시대	GEE
2	수퍼주니어	Mr. Simple
3	소녀시대	OH
4	현빈	시크릿가든 OST
5	2PM	HANDS UP
6	소녀시대	HOOT
7	빅뱅	LOVE SONG
8	비스트	FICTION
9	FT아일랜드	HELLO HELLO
10	MISS A	GOOD BYE BABY
11	4MINUTE	HEART TO HEART
12	현아	BUBBLE POP
13	소녀시대	Mr. Taxi
14	카라	STEP
15	F(X)	HOT SUMMER

올 2011년은 소녀시대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홍콩 음악계를 원더걸스가 휩쓸었다면 올해는 소녀시대가 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들은 유례없는 인기로 출시곡 대부분을 차트 순위 상위권에 올렸으며 2012년 초에 홍콩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어 공연 후 인기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에도 여전히 아이돌 그룹의 인기가 대단했다. 특히 올해에는 홍콩에서 아이돌 그룹의 대형 공연이 여러 번 펼쳐진지라 이러한 추세가 더욱 이어졌다.

결 그룹 중에는 소녀시대 외에 카라, MISS A, 씨스타, 포미닛, f(x)의 인기가 특히 높았으며 보이 그룹은 2AM, 수퍼주니어, 빅뱅, 비스트, SS501, FT아일랜드 등이 큰 인기를 얻었다. 이 외 드라마 <시크릿가든>의 OST가 현빈을 벗 삼아 큰 인기를 얻으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한편 홍콩 내에서 일본 가수와는 달리 한국 솔로 가수의 활약이 주춤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4. 공연/전시 산업

2011년 홍콩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대규모 공연 외에 다양한 예술 관련 전시, 공연이 이어졌다. 우선 드림캐티 홍콩을 찾았다. 평균 750석 이상의 공연장에서 점유율 82%를 기록하며 유럽인들의 극찬을 받았던 이들은 중화 권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홍콩 관광국 주최로 열린 ‘2011 캐세이 퍼시픽 신년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한국 공연 팀으로는 최초로 홍콩 일간지 ‘애플 데일리’ 1면에 크게 소개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유키스의 알라이와 케빈이 홍콩을 찾아 케이블채널 아리랑TV ‘스타데이트 워드 유키스 인 홍콩’에서 한류 팬들과 함께 현지 촬영을 했다. 이 프로는 아시아 각국과 문화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홍콩의 한류 팬 4명이 알라이와 케빈에게 홍콩의 다양한 관광지와 음식을 소개했다.

한편 현대음악 전문 연주단인 TIMF 앙상블은 중국 작곡가 탕록인이 쉐 실버스타인의 소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오페라로 재탄생시킨 ‘Tree Rhapsody’를 바탕으로 지난 2월 홍콩 아트 페스티벌에 출품, 다른 나라 팀과 기량을 겨루기도 했다.

한류 스타들의 대규모 공연도 이어졌다. 슈퍼스타K 2 출신 장재인은 지난 3월 22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레인보우 TV 어워드’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올해 처음 열리는 레인보우 어워드는 홍콩TV에서 주최한 행사로 장재인 외에 장나라, 오지호가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지난 4월 1일에는 홍콩 빅토리아 파크에서 성룡 주최로 일본 지진 피해자 돕기 범아시아적 자선행사 ‘국경 없는 사랑 311(Artistes 311 Love Beyond Borders)’이 열린 가운데 한국의 박진영과 원더걸스가 한국 대표로 참여해 공연을 펼쳤다.

모델, 탤런트 겸 가수 김재욱도 홍콩을 찾았다. 김재욱은 지난 4월 2일, 카우룬베이 국제무역센터에서 그의 밴드 ‘월러스(walrus-보컬 & 기타 김재욱, 드럼 김대현, 베이스 양시은, 기타 유승범)’와 함께 중화 권 팬들과의 첫 팬 미팅을 가졌다. 팬 미팅에는 1000여 명의 팬들이 김재욱과 월러스를 만나기 위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이 외 최근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스타 장근석이 4월 30일 홍콩에서 ‘2011 장근석 아시아 투어 ‘THE CRI SHOW’를 개최했다. 홍콩 카오룬만 국제 전람무역센터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홍콩은 물론 중국 대륙과 일본에서 찾아온 팬들로 가득 메워졌다.

2AM은 지난 5월26일 한류 열풍에 힘입어 홍콩 팬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직접 홍콩을 방문해 공연과 사인회를 열었다. 홍콩 내 한국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상반기 최고의 인기 한류 스타로 자리 잡은 그들의 공연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또한 멤버 광희를 필두로 홍콩의 새로운 한류 아이돌로 떠오르고 있는 제국의 아이들도 6월 30일 홍콩 공연을 펼쳤다. 그룹 SS501 출신 김형준 또한 홍콩 공략에 나섰다. 지난 3월 솔로 앨범을 발표한 김형준은 아시아 지역의 뜨거운 인기로 힘입어

7월 17일 홍콩에서 공연을 갖고 성공적인 홍콩 신고식을 마쳤다.

한편 최근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미국에도 K-Pop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류의 진원지 격인 홍콩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이틀간 한국 인기 아이돌 그룹 8개 팀이 참여하는 대규모 콘서트가 열렸다. 첫날인 23일에는 카라와 f(x), 미스에이, 시스타 등 여성 그룹들이 공연했으며 24일에는 2AM과 씨엔블루, FT아일랜드, 제국의 아이들 등 남자그룹들이 공연을 했다. 그 동안 홍콩에서는 가수 비와 원더걸스 등 한국 가수들이 여러 차례 공연을 했으나 이처럼 인기그룹들이 대규모로 합동 공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홍콩 현지 내의 반응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마지막으로 홍콩에서도 큰 규모의 팬을 갖고 있는 가수 김현중이 홍콩 내 1시간 거리인 중국 심천에서 지난 9월 16일 중화권 대표 가수들과 합동 공연을 펼쳤다.

2012년이 기대되는 소식도 들린다. 씨엔블루가 내년 1월 7일 홍콩 아시아 월드 아레나에서 여는 '2011 아시아 투어 콘서트-블루스톰(BLUESTORM)인 홍콩'의 티켓이 20일 예매 시작 한 시간 만에 매진되며 높은 인기를 확인 시켜주었다고 한다. 또한 1월 15일에는 홍콩 최고의 한류 공신 소녀시대의 콘서트도 열릴 예정으로 홍콩 내 한류 팬들의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예술품의 한류도 이어지고 있다. 홍익대 대학원에서 섬유미술을 전공한 유지은 작가는 홍콩 섬 소호거리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 아시아 미술에 관심이 많은 서양인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아시아 최고 아트 축제인 홍콩 크리스티의 '아시아 동시대 미술' 경매에서 백남준과 이우환의 작품이 낙찰되며 화제를 모았다. 홍콩 크리스티가 홍콩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연 '아시아 동시대미술' 이브닝 경매에서 백남준의 작품 'TV는 키치다(TV is Kitsch)'가 422만 홍콩달러, 한화 약 5억 8900만원(이하 수수료 포함)에 판매됐다. 또 크리스티 경매에 처음 출품된 이우환의 그림 '점으로부터'는 182만 홍콩달러(약 2억 5300만원)에 낙찰되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2011년은 게임, 캐릭터 등이 홍콩 내 힘을 발휘하는 한류 콘텐츠로 자리 잡은 한 해였다. 특히 한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가는 온라인 게임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라이브플렉스'는 대만의 온라인게임 기업 '엠이텔'과 자체 개발한 대형 온라인게임 '드라고나 온라인'의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게임개발업체 '시리우스 엔터테인먼트'는 홍콩 최고의 온라인 게임 기업 '게임

사이버'와 계약을 체결, '라임 오디세이'를 올해 홍콩 게임 시장에 정식으로 선보였다. 장르를 막론한 게임사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마이에트 엔터테인먼트는 대만 온라인게임 퍼블리셔 카이엔테크와 대만을 포함한, 홍콩, 마카오에 대한 '건즈2'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은 최초의 중화 권 진출이며, 캐주얼 게임인 '건즈2'의 첫 번째 해외진출로 화제를 모았다.

또한 (주)넥슨은 홍콩 퍼블리셔 게임사이버 테크놀로지(GameCyber Technology Ltd.)를 통해 (주)넥스토릭이 개발한 클래식 RPG '아스가르드(현지명 몽지령역)'의 홍콩 내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두 차례의 비공개 시범(클로즈드베타) 테스트를 이미 성공리에 마친 넥슨의 '아스가르드'는 홍콩 유명 게임 포털 '2000Fun'의 게임이 기대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홍콩 게이머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홍콩에서는 제 13회 ACGHK가 열렸다. ACGHK는 애니메이션(Animation), 코믹(Comic), 게임(Game), 홍콩(Hong Kong)의 약자로 매회 30만 명이 이상이 방문하는 콘텐츠 박람회로 홍콩 최대의 게임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이 참가해 최신 게임버전을 공개하고, 게임 외에 게임 일러스트 및 만화 전시, 게임 캐릭터 코스튬 플레이, 다채로운 현장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한편 (주)엔씨소프트의 아이온(AION) 게임이 한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 9개국이 참가한 '제 1회 아시아 온라인게임 어워드(Asia Online Game Awards)'에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8월 2일 저녁 홍콩 TVB 방송국 공개홀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중국출판협회(The Publishers Association of China), 홍콩 게임산업협회(Hong Kong Game Industry Association)홍콩특별행정구정부(Government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가 공동 주최하고 아시아 9개국(한국,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25개 작품이 참가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엔씨소프트의 아이온은 최고 영예인 대상(Asia Online Game Grand Award)과 최고 크리에이티브상(The Best Creative Award) 그리고 한국 최고 인기 온라인게임상(South Korea Most Popular Online Game Award) 등 3부분에서 영광을 차지했다.

한국 캐릭터의 홍콩 내 인기도 대단하다. EBS에서 방영 중인 캔(Can)과 애니멀(Animals)의 합성어 캐니멀(Canimals)이 홍콩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홍콩의 코즈웨이베이와 침사추이 지역에 있는 허버시티 쇼핑센터 내의 LCX 쇼핑몰에 캐니멀 상품이 입점 예정이며 야타, 시티 슈퍼, 시티스토어와 같은 백화점, 공항 내에 있는 릴레이 서점에서도 캐니멀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캐니멀은 국내에서 최초로 기념식에 활용된 캐릭터로도 유명하다. 파riba게뜨와 제휴를 맺은 제주항공이 매일 '이달

의 빵'을 선정하여 둘째, 넷째 주 금요일에 출발하는 국제 항공편(홍콩 행)에 빵을 제공하며 캐릭터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홍콩에서는 한국 피규어의 인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최초로 국내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할리우드에서 영화화되어 화제가 되었던 형민우 작가의 <프리스트>의 등장 캐릭터 3종 이반 아이작, 필그림, 제나 아이작이 그 주인공이다. 피규어 3종 모두 12인치의 액션 피규어로 현재 한국과 홍콩에서 동시 판매되고 있으며,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거의 흡사하고 고급스러운 의상이나 정교한 소품 등 제품의 완성도가 높아 소장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EBS에서 방영 중인 유아용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의 캐릭터 완구들이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종 애니메이션 '로보카 폴리'는 방영되기도 전에 홍콩의 대규모 완구사인 실버릿과 500억원 규모의 라이선싱 계약이라는 성과를 올려 화제를 모았었다.

6. 한스타일

지난해에 이어 홍콩 내 한국 음식의 인기는 점입가경이다. 예전에는 비빔밥, 불고기 등 한국 전통 음식이 인기를 얻었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분식 등 캐주얼 한 음식의 인기 또한 상당하다. 한국 음식이 그만큼 대중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길거리 음식의 대명사인 떡볶이, 오뎅, 김밥만으로 홍콩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은 분식 체인 전문점 '한점'의 경우 홍콩 공중파 방송인 TVB의 음식소개 프로그램 '화미소'에 소개되면서 매일 2~3배 매출이 오르기도 했다.

파크앤 샵, 웰컴 등 홍콩 내 대형 슈퍼마켓에 유통되는 한국 식품의 종류가 상반기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각 마트에는 한국 식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이다. 특히 한국산 냉면, 만두, 우동 등의 냉장 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산 고추장, 된장 등 식 재료의 판매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내 한국어의 인기도 여전하다. 이에 따라 한국어의 수요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 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우는 홍콩 여자 과반수 (53.8%)가 취미로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취업 목적을 위해 배우는 여자는 21%, 한국연수는 2.6%로 나타나 최근 7~8년간 보여준 한국어 열풍이 대중문화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분석됐다.

마지막으로 한국 산 물품, 특히 화장품의 열기를 들을 수 있겠다. 이미 홍콩 내 한

국 화장품의 인기는 꾸준히 이어졌었지만 올해만큼 큰 성과를 보인 적은 없었다. 최근 홍콩 내 쇼핑가에 나가보면 한국에서 히트치고 있는 화장품은 거의 구할 수 있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 한 것이다. ‘토니모리’, ‘미샤’, ‘스킨푸드’ 등의 화장품은 가격대비 우수한 기능으로 최근 홍콩 젊은 여성들의 베스트셀러로 꼽히고 있다. 최근 열렸던 미용전시회에서 한국 제품이 큰 활약을 보인 것도 홍콩 내 한국산 미용품의 인기를 대변해준다.

2011 대만 한류 동향 보고

대만 / 타이페이

홍길동 통신원

◆ 총 평

2011년 대만 내 한류는 한국 드라마의 흥행과 한국 음악의 흥행으로 풀이된다. 먼저 한국 드라마를 살펴보면 1년 동안 75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며 대만 내 한국 드라마 흥행의 기록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2010년 1년 동안 162편의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대만 내 자체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만 총리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은 너문 자주 재방, 삼방을 하는 한국 드라마 보고 있자니 역겹다며 한국 드라마를 평가했고 이는 대만 정치권에서 자국 내 드라마 산업을 보호하는 운동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방영된 한국 드라마는 2010년에 방영된 162편에 비해 상당히 준 75편이 방영되었다.

음악 분야에서 2011년 단연 화제의 그룹은 슈퍼주니어다. 대만에서 슈퍼주니어는 한류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대만 내 중장년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음악은 대만 젊은 층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 음악에 대한 사랑은 대만 내 몸짱 열풍의 출현, 한국 연예인 따라 하기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영화산업은 방송 산업이나 음악 산업에 비해 다소 영향력이 약한 한류 장르로 평가된다. 2011년 대만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는 8편이고, '슈퍼 쇼 3D'를 제외하고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었다. 슈퍼 쇼는 슈퍼주니어의 콘서트를 다큐멘터리화 해서 극장에서 개봉한 것인데 이는 대만(타이페이)에서 NTD 510만의 흥행수익을 올리며

돌풍의 주역이 되었다. 이는 향후 한국 영화 콘텐츠의 대만 진출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1년은 대만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로, 대만 자체적으로 건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그 중 한국의 대표적인 음악가 조수미와 백건우가 초청되어 대만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대만 건국 100주년 기념 한국 사절단이 대만을 국민 방문 하였다.

한국의 패션과 음식문화는 한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2011년 11월 한국 음식 페스티벌이 개최되어 보다 많은 대만인들이 한국 음식을 체험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하지만 대만 현지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의 마스크 팩에서 대만 내에서 인체에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이는 한국 화장품 전반에 대한 이미지 하락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이 경우는 한국과 대만 간 인체에 사용을 금지하는 성분에 대한 법 규정이 다른 연유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으로 대만이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은 대만 보다 정확한 법률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대만 내 한류의 가장 큰 흐름의 중심에는 한국의 방송 콘텐츠가 있다. 한국의 방송 콘텐츠는 아시아적 유교정서를 기반으로 둔 한자 문화권이라는 동질감과 한류 스타들을 앞세운 마케팅 전략으로 대만 내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한류 장르이다. 2011년 대만 유선채널에서 방영되었던 한국 방송 콘텐츠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현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2011년 대만 유선채널에서 방영되었던 한국 방송 콘텐츠 현황이다.

〈2011년 대만 각 방송사의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 현황〉

방송사	제목	첫 방송일	방영 시간대	방영 제목
웨이라이 채널 (緯來戲劇台) - 드라마 -	다 줄꺼야	1월 31일	매주 월~금 저녁 20:00	不能沒有你
	파트너	2월 7일	매주 월~금 저녁 22:00	夥伴情人
	인생은 아름다워	3월 15일	매주 월~금 저녁 21:00	人生多美麗

웨이라이 채널 (緯來戲劇台) - 드라마 -	주홍글씨	3월 29일	매주 월~금 저녁 22:00	愛的烙印-紅字
	성균관 스캔들	6월 16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成均館緋聞
	아가씨를 부탁해	6월 22일	매주 월~금 저녁 11:00	拜託小姐
	탐나는 도다	6월 25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渴望之島
	호박꽃 순정	7월 26일	매주 월~금 저녁 07:00	南瓜花純情
	파라다이스 목장	8월 1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天堂牧場
	연애결혼	8월 31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戀愛結婚
	밤이면 밤마다	9월 26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想你每天每夜
	9회말 2아웃	10월 10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9局下半2出局
	당신 참 예쁘다	10월 13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妳真漂亮
	로맨스가 필요해	11월 14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需要浪漫
	웨이라이 채널 (緯來戲劇台) - 오락예능 -	우리결혼했어요3	1월 15일	매주 일요일 저녁 09:30
1박2일		1월 30일	매주 일요일 저녁 07:30	2天1夜
패밀리가 떴다		2월 19일	매주 토요일 저녁 07:30	家族的誕生
해피투게더		5월 7일	매주 토요일 저녁 09:30	歡樂在一起
빠다 채널 (八大戲劇台) - 드라마 -	오버 더 레인보우	1월 1일	매주 토~일 오후 18:00	跨越彩虹
	고맙습니다	2월 10일	매주 월~금 저녁 21:00	謝謝你的愛
	눈의 여왕	3월 2일	매주 월~금 저녁 22:00	雪之女王
	웃어라! 동해야	3월 17일	매주 월~금 저녁 21:00	笑吧! 東海
	봄의 왈츠	3월 26일	매주 월~금 저녁 22:00	春之戀
	90일, 사랑할 시간	3월 27일	매주 월~금 저녁 21:00	90天,相愛的日子
	신돈	4월 2일	매주 토~일 오전 10:00	辛旽
	히트(H.I.T)	4월 11일	매주 월~금 오후 02:00	H.I.T重案組
	에어시티	5월 24일	매주 월~금 오후 02:00	空中情緣
	제빵왕 김탁구	5월 25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麵包王金卓求
	웃어요, 엄마	6월 8일	매주 월~금 저녁	媽媽的欲望

빠다 채널 (八大戲劇台) - 드라마 -			09:00	
	반짝반짝 빛나는	7월 28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燦爛人生
	최고의 사랑	7월 28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最佳愛情
	도망자 Plan.B	8월 8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城市英雄
	내게 거짓말을 해봐	9월 1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甜蜜謊言
	사랑을 믿어요	9월 19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相信愛
	나쁜남자	10월 5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愛上壞男人
	당신이 잠든 사이	11월 7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愛的呼喚
보스를 지켜라	11월 10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守護老闊	
똥선 채널 (東森戲劇台) - 드라마 -	검사 프린세스	1월 3일	매주 월~금 저녁 20:00	檢察官公主
	살맛납니다	1월 20일	매주 월~금 오후 19:00	享受人生
	황금물고기	2월 21일	매주 월~금 저녁 22:00	禁忌的愛戀
	마이 러브	2월 22일	매주 월~금 저녁 20:00	意外情緣My Love
	누구세요?	3월 11일	매주 월~금 저녁 20:00	幸福3小時
	결혼해주세요	3월 30일	매주 월~금 저녁 20:00	嫁給我吧
	역전의 여왕	5월 17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逆轉女王
	인연 만들기	5월 25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天降情緣
	잘했군 잘했어	5월 26일	매주 월~금 저녁 07:00	衝吧！我的愛
	욕망의 불꽃	6월 14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慾望之火
	구미호: 여우누이뎐	6월 25일	매주 토~일 저녁 10:00	九尾狐的復仇
	드림하이	7월 4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夢想起飛 Dream High
	몽땅내사랑	7월 13일	매주 월~금 저녁 07:00	金枝玉葉向錢衝
	신기생던	8월 1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芙蓉閣之戀
	마이 프린세스	8월 4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我的公主My Princess
전설의 고향	8월 6일	매주 토~일 저녁 11:00	傳說的故鄉	

<p>동선 채널 (東森戲劇台) - 드라마 -</p>	대한민국 변호사	9월 5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大富豪與小律師
	우리 집에 왜 왔니	9월 8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訂做一個他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9월 21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嫁給百萬富翁
	산부인과	9월 24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愛情的代價
	세자매	10월 6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姊姊妹妹站起來
	매니	10월 10일	매주 월~금 오후 05:00	型男保姆到我家
	장미의 전쟁	10월 11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薔薇的戰爭
	자명고	10월 30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自鳴公主
	49일	11월 1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真心給我一滴淚
	남편이 죽었다	11월 17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丈夫死了
	미쓰 아줌마	11월 29일	매주 월~금 저녁 10:00	加油！歐巴桑
<p>웨이쓰 채널 (衛視中文台) - 드라마 -</p>	커피하우스	1월 12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咖啡情緣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2월 22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白色戀人
	나는 전설이다	3월 29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我是傳說
	메리는 외박 중	5월 2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瑪莉外宿中
	아테나:전쟁의 여신	6월 8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雅典娜
	시크릿 가든	7월 4일	매주 월~금 저녁 08:00	秘密花園
	미스리플리	9월 19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雷普利小姐
	로맨스타운	10월 24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浪漫小鎮
	지고는 못살아	12월 6일	매주 월~금 저녁 09:00	絕不認輸
<p>중티엔 채널 (中天綜合台) - 드라마 -</p>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1월 5일	매주 월~목 저녁20:00	還想結婚的女子
	공주가 돌아왔다	2월 17일	매주 월~목 저녁20:00	公主回來了
	달콤한 나의 도시	4월 5일	매주 월~목 저녁 08:00	我的甜蜜情人
	닥터 챔프	5월 9일	매주 월~목 저녁 08:00	愛上冠軍醫生

	폭풍의 연인	6월 15일	매주 월~목 저녁 08:00	暴風的戀人
	천하무적 이평강	10월 27일	매주 월~목 저녁 08:00	絕配冤家
V 채널	인기가요	2010년 5월 1일	매주 토요일 저녁 08:00	韓國人氣歌謠
- K-Pop -	뮤직뱅크	2010년 6월 6일	매주 금요일 저녁 11:00	Music Bank
동풍TV 채널 (東風電視台) - K-Pop -	음악중심	2010년 8월 7일	매주 토요일 저녁 08:00	Show! 音樂中心
통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마 분야: 총 5개 채널에서 75편의 한국 드라마 방영. • 오락예능 분야: 총 1개의 채널에서 4편의 한국 예능오락프로 방영. • K-Pop 분야: 총 2개의 채널에서 3편의 K-Pop 프로 방영. 			

2011년 한국 방송 콘텐츠는 총 7개의 대만 유선채널에서, 총 82편의 방송 콘텐츠가 방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드라마 분야는 5개의 유선채널에서 75편의 드라마가 방영되었으며, 예능오락분야는 1개의 유선채널에서 4편의 예능오락 프로그램이 방영되었고, K-Pop분야는 2개의 유선채널에서 3편의 K-Pop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각 분기별 한국 방송 콘텐츠 방영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분기 대만 방송 시장에서 한국드라마는 총 5개의 방송국에서 21편이 방영되었다. 빠다(八大戲劇台) 드라마 채널에서 방영 되고 있는 <웃어라! 동해야> 는 3월 중순 방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내 많은 이슈를 만들어 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대만에서 동해 역으로 열연한 지창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예능과 음악 분야에서는 2010년 4/4분기와 마찬가지로 <인기가요>, <뮤직뱅크>, <패밀리가 떴다>, <1박 2일>, <우리 결혼했어요> 등이 지속적으로 인기를 누렸다.

2/4분기 대만 방송시장에서 한국 드라마는 총 19편이 방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월에 4편, 5월에 7편, 6월에 8편이 대만 시청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방영과 별개로 한국 배우들의 대만 드라마 출연이 빈번해지면서 한국 드라마뿐만 아니라 대만 드라마에서도 한국배우를 찾아 볼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슈퍼주니어의 동해와 시원이 대만 드라마 <화려한 도전>에 출연하였으며, 박신혜 또한 <선풍관가>에 출연하였다. 대만드라마는 모두 사전 제작 후 방영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이유로 한국배우가 대만에 직접 체류하면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대만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대만 언론매체와의 접촉 빈도가 높아지면서, 대만 드라마에 출연한 스타들의 대만 내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효과를 창출해 내기도 했다. 2/4분기 오락 콘텐츠를 살펴보면 기존에 사랑 받았던 한국의 대표 예능프로인 <패밀리가 떴다>, <1박2일>, <우리 결혼했어요3> 등이 꾸준한 사랑을 받는 가운데 <해피투게더>가 5월 7일부터 방송되면서 한국 예능프로그램의 대만 내

흥행가능성을 보였다.

3/4분기 대만 방송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는 총 20편이 방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월에 6편, 8월에 6편, 9월에 8편이 방영되어 대만 시청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3/4분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 많은 한국 드라마를 방영하던 중티엔(中天綜合台) 채널에서 단 한편의 한국 드라마도 방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중티엔 채널에서 성황리에 방영중인 <Celebrity Imitated Show> 프로그램 에서는 8월 4일 ‘한국드라마의 기원은 대만인가?(원제: 韓流的起源地是台灣嗎?)’란 주제로 2010년 한 해 동안 162편의 한국드라마가 방영되고, 현 대만에서 재방, 삼방되고 있는 한국드라마의 방영실태를 비판하였다. 또한 대만의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 구역질이 난다.’는 말을 모티브로 삼아 9월 15일 ‘우둔이 행정원장 한국 드라마를 보다. (원제: 吳揆看韓劇)’란 주제로 역시 대만의 한국드라마 범람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4분기 <프레지던트>, <나쁜남자> 등 총 5편의 한국드라마가 중티엔 채널을 통해 방영될 예정이어서 중티엔 채널의 한국드라마 미 방영은 방송사 내부의 사정으로 인한 단기적인 사례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3/4분기 오락 키타엔츠에서는 기존에 사랑 받았던 한국의 대표 오락예능프로인 <패밀리가 떴다>, <1박2일>, <우리 결혼했어요3>, <해피 투게더>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4/4분기 대만 방송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는 총 15편이 방영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에 9편, 11월에 6편이 방영되었다. 4/4분기에는 지난 3/4분기 단 한편의 한국 드라마도 방영하지 않았던 중티엔 채널(中天綜合台)에서 <천하무적 이평강>을 방영하며 다시 한국 드라마 방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4/4분기 예능오락프로그램은 여전히 <패밀리가 떴다>, <1박2일>, <우리 결혼했어요3>, <해피 투게더>가 인기를 끌며 선전했다.

2. 영화 산업

대만의 영화시장에서 한국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드라마가 대만 방송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현저히 적다. 대만의 영화시장은 화려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시장 중 하나이며, 그 밖에 홍콩, 중국, 일본 등에서 제작된 영화가 환영 받고 있다. 2011년 대만(타이페이) 박스 오피스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대만(타이페이) 박스 오피스 순위>

기간(2011년)	순위	영화제목	영화표 누적 판매액수	국가
1월	1	그린 호넷	NTD 1738만	미국

	2	Night Market Hero	NTD 503만	대만
	3	버레스크	NTD 4892만	미국
	4	신소림사	NTD 1323만	중국
	5	쉬즈더원 2	NTD 183만	중국
	6	마루 밀 아리에티	NTD 1648만	일본
	7	대소강호	NTD 105만	중국
	8	The Nutcracker in 3D	NTD 362만	영국
	9	러브 & 드럭스	NTD 4659만	미국
	10	세 얼간이	NTD 660만	인도
	2월	1	생텀	NTD 1061만
2		언노운	NTD 996만	미국
3		블랙스완	NTD 957만	미국
4		드라이브 앵그리 3D	NTD 358만	미국
5		친구와 연인사이	NTD 3374만	미국
6		Night Market Hero	NTD 4837만	대만
7		127시간	NTD 932만	미국
8		더 라이트:악마는 있다	NTD 1787만	미국
9		더 브레이브	NTD87만	미국
10		세 얼간이	NTD 1000만	인도
3월	1	컨트롤러	NTD 899만	미국
	2	월드 인베이전	NTD 1528만	미국
	3	킹스 스피치	NTD 1927만	영국
	4	블랙스완	NTD 3659만	미국
	5	아이 엠 넘버 포	NTD 2013만	미국
	6	레드 라이딩 후드	NTD 821만	미국
	7	Tomorrow's Joe	NTD 89만	일본
	8	언노운	NTD 2549만	미국
	9	간츠	NTD 103만	일본
	10	생텀	NTD 2553만	미국
4월	1	옥보단 3D	NTD 2996만	홍콩
	2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NTD 1025만	미국
	3	리미트리스	NTD 2558만	미국
	4	저스트 고 워드 잇	NTD 3585만	미국
	5	소스 코드	NTD 4167만	미국
	6	리오	NTD 1585만	미국
	7	The Unborn Child	NTD 306만	태국
	8	Beautiful Lies	NTD 311만	프랑스
	9	스크립4	NTD 507만	미국
	10	인시디어스	NTD 720만	미국
5월	1	캐리비안의 해적 4 : 낯선 조류	NTD 11007만	미국

	2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NTD 14883만	미국
	3	토르 : 천둥의 신	NTD 8567만	미국
	4	비스틀리	NTD 643만	미국
	5	워터 포 엘리펀트	NTD 973만	미국
	6	간즈 : 퍼펙트 앤서	NTD 121만	일본
	7	Young at Heart: Grandma Cheerleaders	NTD 266만	대만
	8	사운드 오브 노이즈	NTD 121만	스웨덴
	9	레드라인	NTD 37만	일본
	10	상실의 기억	NTD 147만	미국
	6월	1	슈퍼 에이트	NTD 1479만
2		엑스맨 : 퍼스트 클래스	NTD 4275만	미국
3		더 행오버2	NTD 3557만	미국
4		쿵푸팬더2	NTD 4432만	미국
5		프리스트 3D	NTD 866만	미국
6		캐리비안의 해적 4 : 낮선 조류	NTD 11007만	미국
7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NTD 14883만	미국
8		두번째 찬스	NTD 66만	프랑스
9		러브 앤 프렌즈	NTD 238만	미국
10		The Detective 2	NTD 33만	홍콩
7월	1	퍼스트 어벤처	NTD 6114만	미국
	2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	NTD 13532만	미국
	3	트랜스포머3	NTD 32574만	미국
	4	살수구양분재	NTD 2033만	대만
	5	무협	NTD 1869만	홍콩
	6	Ladda Land	NTD 1174만	태국
	7	Beat the World	NTD 296만	캐나다
	8	파퍼씨네 펭귄들	NTD 3317만	미국
	9	미드나잇 인 파리	NTD 540만	미국/스페인
	10	명탐정 코난: 침묵의 15분	NTD 1394만	일본
8월	1	You Are the Apple of My Eye	NTD 16586만	대만
	2	파이널 데스티네이션5	NTD 4860만	미국
	3	원 데이	NTD 2540만	미국
	4	Jump Ashin!	NTD 3699만	대만
	5	동물원 사육사	NTD 907만	미국
	6	카2	NTD 2475만	미국
	7	코난 3D	NTD 436만	미국
	8	슈퍼 쇼 3D (슈퍼주니어)	NTD 510만	한국
	9	혹성탈출: 진화의 시작	NTD 5982만	미국
	10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	NTD 13532만	미국
9월	1	시디그 발레 (상편)	NTD 10385만	대만

	2	Mayday 3DNA	NTD 831만	대만
	3	You Are the Apple of My Eye	NTD 16586만	대만
	4	프렌즈 워드 베네핏	NTD 683만	미국
	5	쟈니 잉글리쉬: 네버다이	NTD 480만	미국
	6	끔찍한 보스들	NTD 2085만	미국
	7	드라이브	NTD 100만	미국
	8	원 데이	NTD 2540만	미국
	9	Jump Ashin!	NTD 3699만	대만
	10	FRIGHT NIGHT 3D	NTD 220만	미국/인도
	10월	1	리얼 스틸	NTD 11908만
2		시디그 발레 (하편)	NTD 10222만	대만
3		시디그 발레 (상편)	NTD 18403만	대만
4		샤크 나이트 3D	NTD 392만	미국
5		괴물: 더 오리지널	NTD 542만	미국
6		백사대전	NTD 397만	중국
7		왓츠 유어 넘버?	NTD 914만	미국
8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NTD 281만	미국
9		토스트	NTD 202만	영국
10		You Are the Apple of My Eye	NTD 17878만	대만
11월	1	브레이킹 던 part 1	NTD 2328만	미국
	2	머니볼	NTD 1491만	미국
	3	인타임	NTD 5910만	미국
	4	신들의 전쟁	NTD 1804만	미국
	5	턴틴: 유니콘호의 비밀	NTD 802만	미국
	6	별이 빛나는 밤	NTD 1377만	대만
	7	헬프	NTD 183만	미국
	8	리얼 스틸	NTD 11908만	미국
	9	시디그 발레 (하편)	NTD 13192만	대만
	10	타워 하이스트	NTD 1153만	미국
출처: Taiwan ATMOVIES				

영화제목	상영기간	영화표 판매 액수
시	2011.01.14 ~ 2011.02.01	NTD 25만
고스트:보이지 않는 사랑	2011.01.21 ~ 2011.02.01	NTD 20만
심야의 FM	2011.04.15 ~ 2011.05.05	NTD 14만
초능력자	2011.05.27 ~ 2011.06.13	NTD 9265만
김종욱 찾기	2011.06.06 ~ 2011.06.10	NTD 6만
설화와 비밀의 부채	2011.07.22 ~ 2011.08.04	NTD 25만
해결사	2011.07.27 ~ 2011.08.17	NTD 1만
슈퍼 쇼 3D (슈퍼주니어)	2011.08.26 ~ 2011.09.16	NTD 510만

2011년 대만에서 한국 영화는 8편이 개봉하여 대만 관객들과 만남을 가졌으나 흥행성적은 '슈퍼 쇼 3D'를 제외하고는 부진했다. 각 분기별 대만 영화시장의 상황과 한국 영화의 개봉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분기 대만 영화시장에서 미국영화의 흥행은 2010년 4/4분기 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기존에 보였던 다국적 국가(네덜란드, 홍콩, 중국, 한국, 일본 등)의 영화는 이와 대비되는 약진을 보였다. 대만 자체 제작 영화인 <Night Market Hero>는 활발한 마케팅 홍보 전략으로 NTD 4837만의 흥행수익을 올렸다. 한국영화는 <시>와 한일 합작영화 <고스트: 보이지 않는 사랑>이 개봉했으며, 흥행성적은 부진했다. 특히 <시>는 이창동 감독, 윤정희 주연의 작품성이 높은 영화로, 63회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 경력에 힘입어 기대를 받았으나 NTD 25만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2/4분기 대만의 영화시장에서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어떤 때 보다 높았다. 특히 미국의 대작으로 꼽히는 <캐리비안의 해적 4: 낫선 조류>는 대만시장에서 영화 표 수익만 NTD 11007만을 달성하며 흥행몰이를 하였고, 뒤이어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쿵푸팬더2>등이 연달아 흥행하였다. 특히 개봉 전부터 여배우들의 과도한 노출로 화제를 모은 홍콩의 영화 <옥보단 3D>은 약 NTD 3000만의 수익을 올리며 약진했다. 한국영화는 <심야의 FM>, <초능력자>, <김종욱 찾기> 총 3편이 개봉하였지만 흥행성적은 부진했다. 특히 배급상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대만에서 한국영화 부진의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이는 <심야의 FM>이 개봉할 당시 타이페이 시내 개봉관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 <심야의 FM>의 개봉관 수는 고작 1관 이었다.

3/4분기 대만의 영화시장의 주요한 특징은 대만 자체 제작 영화의 도약이다. 대만 영화시장에서 미국 할리우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독점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분기 개봉한 대만 영화 <You Are the Apple of My Eye>, <시디그 발레>, <Mayday 3DNA>, <Jump Ashin!> 등은 할리우드 영화와 다른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대만 시장을 공략함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얻었다. 특히 대만 시골 고등학생들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청춘 영화 <You Are the Apple of My Eye>는 아기자기한 에피소드를 희화화 하여 중장년층까지 공략함으로써 타이페이에서만 16586만 대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렸다. 한국 영화는 <설화와 비밀의 부채(전지현 주연)>, <해결사>, <슈퍼 쇼(슈퍼주니어)> 총 2편의 한국제작 영화를 만나 볼 수 있었다. 한국 배우 전지현이 주연한 <설화와 비밀의 부채>는 25만 달러의 흥행성적을 거두면서 약진했고, <해결사>는 1만 대만달러의 흥행수익을 올렸다. 이번 분기 무엇보다 주

목할 부분은 슈퍼주니어의 콘서트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한 <슈퍼 쇼>의 대만 개봉이었으며, 개봉성적 또한 510만 대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올리면서 돌풍을 일으켰다. 이번 사례는 대만에서 슈퍼주니어 아이돌 그룹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평가된다.

4/4분기 대만의 영화시장은 대만 자체 제작 드라마의 약진과 미국 할리우드 영화의 재도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분기에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 <리얼 스틸> 등이 화려한 볼거리를 내세워 흥행 물이를 하였고, 일제식민지 시대 대만 원주민의 항일운동을 그린 대만 제작 드라마 <시디그 발레 (하편)>이 개봉하면서 역시 대만 영화의 흥행 가능성을 보였다. 4분기에 개봉한 한국 영화는 없었다.

<2011년 대만(타이페이) DVD 순위>

기간(2011년)	순위	DVD제목	국가
1월	1	타운	미국
	2	고백	일본
	3	월 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	미국
	4	가디언의 전설	미국
	5	그로운 업스	미국
	6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미국
	7	슈렉 포레버	미국
	8	인셉션	미국
	9	드래곤 길들이기	미국
	10	피라냐	미국
2월	1	라이프 애즈 워 노우 잇	미국
	2	소셜 네트워크	미국
	3	타운	미국
	4	월 스트리트: 머니 네버 슬립스	미국
	5	고백	일본
	6	쑤우3D	미국
	7	인셉션	미국
	8	그로운 업스	미국
	9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미국
	10	피라냐	미국
3월	1	투어리스트	미국
	2	레드	미국
	3	언스토퍼블	미국
	4	22 블렛	미국
	5	익스펜더블	미국
	6	킬러스	미국
	7	클로이	미국
	8	스위치	미국
	9	아메리칸	미국
	10	라이프 애즈 워 노우 잇	미국
18	영웅본색:무적자	한국	

4월	1	쓰리 데이즈	미국
	2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미국, 영국
	3	패스터	미국
	4	소림사	중국, 홍콩
	5	버레스크	미국
	6	트론 : 새로운 시작	미국
	7	라퐁젤	미국
	8	나니아 연대기 : 새벽 출정호의 항해	미국
	9	투어리스트	미국, 프랑스
	10	언스토퍼블	미국
5월	1	메카닉	미국
	2	세얼간이	인도
	3	러브 & 드럭스	미국
	4	그린 호넷	미국
	5	걸리버 여행기	미국
	6	조씨고아	중국
	7	히어애프터	미국
	8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미국, 영국
	9	굿모닝 에브리원	미국
	10	쓰리 데이즈	미국
6월	1	아이 엠 넘버 포	미국
	2	나이트 마켓 히어로	대만
	3	친구와 연인사이	미국
	4	세얼간이	인도
	5	메카닉	미국
	6	미트 페어런츠 3	미국
	7	러브 & 드럭스	미국
	8	파이터	미국
	9	그린 호넷	미국
	10	굿모닝 에브리원	미국
7월	1	인시디어스	미국
	2	드라이브 앵그리 3D	미국
	3	저스트 고 워드 잇	미국
	4	언노운 화이트 메일	미국, 영국
	5	시즌 오브 더 위치: 마녀 호송단	미국
	6	삼국지: 명장 관우	홍콩
	7	써커 펀치	미국
	8	랭고	미국
	9	레드 라이딩 후드	미국, 캐나다
	10	생텀 3D	미국
8월	1	캐리비안의 해적4: 낫선 조류	미국
	2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미국
	3	소스코드	미국
	4	마루 밑 아리에티	일본
	5	옥보단 3D	홍콩
	6	The Unborn Child	태국

	7	The Detective 2	홍콩
	8	리오	미국, 브라질
	9	저스트 고 워드 잇	미국
	10	워터 포 엘리펀트	미국
9월	1	토르: 천둥의 신	미국
	2	리미트리스	미국
	3	프리스트	미국
	4	캐리비안의 해적: 낫선 조류	미국
	5	비스틀리	미국
	6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미국
	7	한나	미국, 영국
	8	소스코드	미국
	9	마루 밑 아리에티	일본
	10	워터 포 엘리펀트	미국
10월	1	트랜스 포머 3	미국
	2	그린 랜턴	미국
	3	엑스 맨: 퍼스트클래스	미국
	4	토르: 천둥의 신	미국
	5	웨이 백	미국
	6	블리츠	영국
	7	스크림 4	미국
	8	리미트리스	미국
	9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미국
	10	비스틀리	미국
11월	1	퍼스트 어벤저	미국
	2	파퍼씨네 펑켄들	미국
	3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2부	미국
	4	런던 브러마드	영국
	5	트랜스 포머 3	미국
	6	쿵푸 팬더 2	미국
	7	무협	홍콩
	8	그린 랜턴	미국
	9	마리솔의 첫사랑	스페인
	10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미국
출처: Taiwan blockbuster			

〈2011년 대만(타이페이) 에서 발매된 한국 DVD 목록〉

DVD 제목	DVD 대만 발매일
어깨너머의 연인	1월 6일
웬트하우스 코끼리	2월 23일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2월 23일
비스티 보이즈	2월 28일
웨딩 드레스	3월 1일
프이	3월 3일

아파트	3월 3일
영웅본색:무적자	3월 17일
시	4월 1일
그랑프리	4월 1일
흡혈형사 나도열	4월 22일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	4월 22일
거룩한 계보	7월 29일
김종옥 찾기	10월 6일
부당거래	10월 6일
출처: Taiwan blockbuster	

대만에서 개봉되는 한국영화가 대만 현지 내 배급의 문제로 흥행에 부진하는 상황에서 DVD는 차선책으로 한국영화의 흥행성적을 알아 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써 의미를 가진다. 2011년 대만 내 DVD시장 현황과 한국 DVD발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분기 대만 DVD시장에서 미국 영화 콘텐츠의 흥행은 더욱 독보적 이었으며, 한국 영화 DVD는 3월 발매된 <영웅본색: 무적자>가 순위권에 드는데 그쳤다. 그밖에 총 8편의 한국 DVD가 대만에서 발매되어, 대만 팬들과 만났으며, 특히 주목할 점은 2006년에 제작된 공포영화 <아파트>와 2007년에 제작된 공포영화 <미>가 뒤늦게 대만 팬들을 만났다는 점이다. 한국 공포영화는 대만에서 가장 팬층이 두꺼운 장르로, 이러한 팬들의 수요에 힘입어, 5년이 지난 후 대만에서 발매된 것이다.

2/4분기 대만의 DVD 시장에서는 <시>, <그랑프리>, <흡혈형사 나도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습니까?>총 4편의 한국영화를 만나 볼 수 있었지만, DVD의 발매일이 모두 4월에만 집중되었고, 5월과 6월에는 한국 영화 DVD가 발매되지 않았다.

3/4분기 대만의 DVD 시장에서는 <거룩한 계보> 단 한 편의 한국 DVD를 만나볼 수 있었다.

4/4분기 대만의 DVD 시장에서는 <김종옥 찾기>와 <부당거래>가 발매되었다.

3. 음악 산업

한국음악은 현재 대만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류 장르 중 하나로,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 몸짱 열풍을 일으키는 등 한국 드라마와 함께 대만에서 한류 흥행을 선도하고 있는 쌍두마차 중 하나이다. 2011년 대만 국민들에게 사랑 받았던 한국 음악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대만 K-Pop순위〉

기간(2011년)	순위	제목	가수
1월	1	미인아	슈퍼 주니어
	2	Run Devil Run	소녀시대
	3	말도없이(미남이시네요OST)	장근석
	4	더 퀸	손담비
	5	Hello	SHINee
	6	Saint O`clock	2AM
	7	원 모어 타임	장난스런 키스OST
	8	너무 그리워	SM발라드
	9	Breaking Heart	티아라
	10	Bluetory	CNBLUE
2월	1	미인아	슈퍼 주니어
	2	말도없이 (미남이시네요OST)	장근석
	3	Run Devil Run	소녀시대
	4	Hello	SHINee
	5	Hello Hello (매리는외박중OST)	장근석
	6	Saint O`clock	2AM
	7	더 퀸	손담비
	8	Breaking Heart	티아라
	9	Bluetory	CNBLUE
	10	Blue Love	씨엔블루
3월	1	미인아	슈퍼 주니어
	2	Run Devil Run	소녀시대
	3	말도없이 (미남이시네요OST)	장근석
	4	In to the new world	소녀시대
	5	Hoot	소녀시대
	6	Hello	샤이니
	7	Saint O' clock	2AM
	8	다시	엠블랙
	9	Bluetory	씨엔블루
	10	Breaking Heart	티아라
4월	1	미인아 - 슈퍼 주니어	슈퍼주니어

	2	HOOT - 소녀시대	소녀시대
	3	Oh! - 소녀시대	소녀시대
	4	외톨이야 - 씨엔블루	씨엔블루
	5	Hello - 샤이니	샤이니
	6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	슈퍼주니어
	7	전화를 받지 않은 너에게	2AM
	8	직감	씨엔블루
	9	Run Devil Run	소녀시대
	10	VISUAL DREAMS	소녀시대
	5월	1	미인아
2		직감	씨엔블루
3		Love Girl	씨엔블루
4		HOOT	소녀시대
5		Oh!	소녀시대
6		거울아 거울아	4 Minute
7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슈퍼주니어
8		외톨이야	씨엔블루
9		Hello	샤이니
10		Run Devil Run	소녀시대
6월	1	미인아	슈퍼주니어
	2	Danger	f(x)
	3	HOOT	소녀시대
	4	직감	씨엔블루
	5	Love Girl	씨엔블루
	6	Oh!	소녀시대
	7	거울아 거울아	4 Minute
	8	너 같은 사람 또 없어	슈퍼주니어
	9	그 사람(제빵왕 김탁구 OST)	이승철
	10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2AM
7월	1	미인아	슈퍼주니어
	2	Hello Hello	FT아일랜드
	3	잠들지 않은 꿈(제빵왕 김탁구 OST)	규현(슈퍼주니어)
	4	그 남자(시크릿 가든 OST)	현빈
	5	그 여자(시크릿 가든 OST)	백지영
	6	Fiction	비스트
	7	Love Song	빅뱅
	8	Hoot!	소녀시대
	9	Oh!	소녀시대
	10	직감	씨엔블루
8월	1	Mr. Simple	슈퍼주니어
	2	미인아	슈퍼주니어

	3	Hands Up!	2PM
	4	그 남자(시크릿 가든 OST)	현빈
	5	Hot summer	f(x)
	6	Bubble Pop	현아
	7	그 여자(시크릿 가든 OST)	백지영
	8	Hoot!	소녀시대
	9	Love Song	빅뱅
	10	Hello Hello	FT아일랜드
9월	1	Mr. Simple	슈퍼주니어
	2	Hands Up!	2PM
	3	내가 제일 잘나가	2NE1
	4	미인아	슈퍼주니어
	5	Opera	슈퍼주니어
	6	UGLY	2NE1
	7	Superman	슈퍼주니어
	8	Be my girl	슈퍼주니어
	9	그 남자(시크릿 가든 OST)	현빈
	10	Hoot!	소녀시대
10월	1	Mr. Simple	슈퍼주니어
	2	A-CHA	슈퍼주니어
	3	Hands Up!	2PM
	4	Superman	슈퍼 주니어
	5	내가 제일 잘나가	2NE1
	6	미인아	슈퍼주니어
	7	스텝	카라
	8	The boys	소녀시대
	9	Hoot!	소녀시대
	10	Bubble Pop	현아
11월	1	Mr. Simple	슈퍼주니어
	2	The boys	소녀시대
	3	A-CHA	슈퍼주니어
	4	Hands Up!	2PM
	5	Superman	슈퍼주니어
	6	내가 제일 잘나가	2NE1
	7	미인아	슈퍼주니어
	8	스텝	카라
	9	Hoot!	소녀시대
	10	Good bye baby	미스에이
출처: Taiwan KKBOX			

1/4분기 대만음악시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슈퍼주니어의 독보적인 흥행이다.

슈퍼주니어의 타이틀곡 ‘미인아’가 44주째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기는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슈퍼주니어 슈퍼쇼3’에 대만 관객 3만여 명을 동원하면서 입증되었다. 아직까지 많은 대만인들은 K-Pop하면 원더걸스의 ‘노바디’와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미인아’를 떠올리는 현상은 대만 내 시장에서의 원더걸스와 슈퍼주니어의 독보적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하지만 원더걸스의 음악이 1/4분기 동안 순위권에 진입하지 못하면서, 슈퍼주니어의 대만 내 위치는 더욱 공고해졌다. 또한, 1/4분기 동안 사랑 받은 K-Pop은 대부분 빠른 댄스 곡 위주이며, 아이돌 그룹의 빠른 댄스 리듬과 화려한 군무는 슈퍼주니어가 대만에서 사랑 받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추론된다. 드라마 ‘매리는 외박중’이 사랑받으면서, OST인 ‘Hello Hello’가 2월 K-Pop순위의 5위에 랭크되었으며, ‘미남이시네요’의 OST는 1/4분기 동안 연일 상위권에 랭크되면서, 드라마를 통한 한류의 파급효과를 증명했다.

2/4분기 대만에서 K-Pop을 논의할 때 제일 먼저 논의되는 화두는 단연 슈퍼주니어이다. 그 이유는 슈퍼주니어의 ‘미인아’가 대만 음악차트에서 1년 연속 1위를 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돌 그룹의 빠른 댄스곡은 그 유행의 주기가 짧다는 점과 대조해 보면, 슈퍼주니어의 인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슈퍼주니어의 인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대만 방송매체와의 접촉 빈도를 높여 대만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점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하지만 슈퍼주니어의 대만에서의 흥행은 그 흥행에 비례하여, 다른 한국의 가수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대만 국민들의 관심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씨엔블루 등 몇몇 가수들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한국 가수들이 대만에서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가수들이 드라마 OS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대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배우 장근석은 본인이 출연한 드라마 OST에 직접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 겸 가수로서 대만 국민들에게 다가간 결과, 대만 야후 여론조사센터에서 실시한 ‘한국 남성 연예인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3/4분기 대만 K-Pop 시장에서 슈퍼 주니어는 단연 독보적이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슈퍼 주니어의 신곡 ‘Mr. Simple’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 발표됨과 동시에 대만 한국노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슈퍼주니어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켰다. 특히 9월에는 기존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미인아’와 ‘Mr. Simple’ 이외에 ‘Superman’, ‘Opera’, ‘Be my girl’ 등도 10위권 순위에 랭크되면서 총 5곡의 슈퍼주니어의 곡이 10위권 순위에 포함되었다. 슈퍼 주니어의 흥행 이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빈이 부른 <시크릿 가든>의 OST ‘그 남자’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 남자’는 7, 8월에는 4위, 9월에는 9위에 랭크되며 대만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았다. 이는 대만에서의 한류의 프레임 형태가 한국드라마를 시작으로 음악, 패션 등으로 확대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4/4분기 대만 K-Pop 시장에서도 슈퍼주니어의 활약은 두드러졌다. 4분기 K-Pop 순위에서 슈퍼주니어의 곡 ‘Mr. Simple’, ‘A-CHA’, ‘Superman’, ‘미인아’ 총 4곡이 랭크되며 입지를 다져나가며 독보적인 흥행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다.

4. 공연·전시 산업

〈2011년 대만 한류 관련 공연/전시 현황〉

기간	분야	행사명	주관기관/장소	일정
1분기	전시	제1회 한국도서문화전	국립중산대학	1.14~2.13
	공연	2011 텐드럼 국제 드럼 페스티벌 - 평택농악 초청공연	Ten Drum /대만 타이난시	2.3~2.7
	심포지엄	한국-대만 교육교류를 위한 심포지엄	한-대 교육여행협회	2.12~17
	IT 교류	한국-대만 스페셜 포스 챔피언쉽	한-대 E스포츠 협회	3.5~3.6
	의학 교류	한국-대만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서 조인식	대한한의사협회-대만중의사공회 전국 연합회	3.13
2분기	콘서트	JYJ World Tour Concert in 2011	台北小巨蛋	4.23
	공연	소프라노 조수미 대만 공연	국립중정문화중심	5.12
	공연	피아니스트 백건우 대만 공연	국립중정문화중심	6.11~12
3분기	콘서트	SHINee THE 1ST CONCERT IN TAIPEI	台北小巨蛋	7.16
	콘서트	2011 GIRLS' GENERATION TOUR in TAIPEI	台北小巨蛋	9.9~11
	팬미팅	The 1st BEAST Fan Meeting Asia Tour in Taipei	國父紀念館大會堂	7.22~23
	팬미팅	2011 CHA SEOUNG WON FAN MEETING IN TAIWAN	台北國際會議中心	7.24
	팬미팅	Kim Hyung Jun Fan Meeting in Taipei	國父紀念館大會堂	7.24
	교육교류	한국교육자대표단 대만 방문	晶華酒店	8.1~6

	경제정치 교류	대만 건국 100주년 기념 한국 사절단 대만 방문	대만 외교부	9.21~25
4분기	콘서트	2PM HANDS UP ASIA TOUR in TAIPEI	대만대 종합체육관	10.7~8
	팬미팅	이동욱 대만 팬 미팅	대만 과학기술대학교	10.9
	문화	제1회 한국어말하기 대회	고웅시한인회	11.4
	팬미팅	차승원 대만 팬 미팅	타이페이 101국제금융센터	11.7~9
	문화	한국 음식 페스티벌	원산호텔	11.15~20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해당 사항 없음.

6. 한스타일

2/4분기 대만에서 한국어를 정식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인 국립정치대학 한국어과에서 한국어 노래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다. 5월 15일, 국립정치대학의 대강당에서 개최된 본 대회는, 대만인 참가자는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한국인 참가자는 중국어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 한편, 본 대회에서 대만 참가자들은 노래뿐만 아니라 한국 아이돌 그룹의 춤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대만인 참가자 황위윈(黃郁雯)에게는 부상으로 디지털 카메라(삼성)가 상품으로 주어졌다.

7. 반 한류 사례

기간	내용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 여성그룹 XOXO의 '모카자바(Mocha Java)'의 뮤직비디오가 한국의 여성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 카다브라'와 그룹 2NE1의 '캔노바디'를 표절했다는 의혹의 제기됨. 이 문제는 양국 네티즌의 양국 비방으로 확대됨. 대만 여가수 '왕채화(王彩樺)'의 신곡 '보비(保庇)'가 한국 걸그룹 티아라의 '보핍보핍'을 리메이크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 원곡보다 리메이크한 곡이 더 좋다', '열등한 한국인이 이런 노래를 만들 만큼 진화했다니, 대단한데?' 등 한국비하 발언을 함. 이에 한국 네티즌들과 대만 네티즌들 사이에 설전이 펼쳐짐. 대만 블로거가 자신의 블로거에 대만 총통 마잉지우(馬英九)가 한국 삼성제품

	<p>을 상용한다며 비판함. 이에 대만 총통부는 정식으로 현재 한국 삼성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스타 린웨이링(林韋伶)이 한국에서 연예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성상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 이 사건은 고 장자연 사건과 연관되어,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에 악 영향을 미침.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의 반 한류 기류의 기원인 공자의 한국인 설에 대해서, 한국인 유학생 이진희씨가 대만의 총통에게 직접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주목을 받았다. 사실 많은 대만인들은 중화권 정신문화의 중심인 공자를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한다며 오해해왔다. 하지만 이는 일부 중국 매체에서 왜곡한 사실이 그대로 보도되어 생겨난 오해로, 아직까지 많은 대만인들이 정확한 사실은 모른 채 한국인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며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진희씨는 대만 총통에 직접, ‘한국 사람들은 공자가 중국 사람이라고 배웠다.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자의 한국인 설은 사실이 아니다. 이를 대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총통께서 직접 해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한국인 유학생과 대만 총통과의 대화내용이 대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만인들의 오해가 조금은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 대만 중국문화대학에 재학 중인 징징(晶晶)은 본인이 소녀시대 제시카와 외모가 너무 흡사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을 제시카로 오해하며, 제시카를 닮은 외모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다고 호소하였으나 이러한 소식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은 징징(晶晶) 주장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의 총리에 해당하는 우둔이(吳敦義) 행정원장이 14일 대만 유 텔레비전의 현황을 지적하며, ‘대만 내 텔레비전에서 매일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보면 볼수록 기분이 상한다. 어떤 드라마는 수차례 재방영된다. 구역질이 날 정도다.’라고 발언함. 이후 대만 각 여야 정치인들까지 그의 발언을 지지하며 대만 내 한국드라마의 범람을 비판. •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의 ‘토마톡스 매직 화이트 마사지팩’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21일 대만 위생국이 적발함. 관련 사실이 핑귀일보 등 다수의 대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만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한국화장품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침.

8. 기타 산업

기간	내용
1월	한국 에어부산이 부산과 대만 타이페이간 노선을 취항. 1월 27일부터 부산-타이페이 운항은 하루 왕복 1편으로, 부산과 대만 타이페이간 관광객 교류 증가가 예상됨.
2월	• 길종섭 한국 케이블TV 방송 협회장이 한국-대만 간 케이블TV 산업 교류·및 협력을 위해 대만을 방문함.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대만 미디어 시장 및 케이블TV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양국의 교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p>위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SK텔레콤은 6월 중 대만의 스마트폰 앱 시장에 안드로이드 OS를 중심으로 한 ‘독립형 앱스토어’ T스토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만 단말 유통업체 East Power사와 제휴를 맺음.
3월	<p>한국 여성 관광객이 타이페이 소재의 마사지 샵 ‘XX養生館(中山北路1段)’에서 마사지와 피부미용을 받던 중 마사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 이 일로 주 타이페이 한국 대표부(공관장 구양근)에서 경고 공고문을 게시함.</p>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식품업체들은 불법짜구려 원료인 DEHP가 첨가제에 들어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유해 첨가제인 이 원료를 사용해 각종 음료, 과일주스 등 식품들을 제조해 대만 국내에서 판매하고 중국 등 중화권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 • 연합뉴스 타이페이 통신원(이상민)은 대만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005년 대만에서 첫 시험이 실시된 후,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들이 2009년 27.4%, 2010년 30.9%로 계속 늘어났으며, 시험장소 또한 수도 타이페이에서 가오슝까지 확대되었다고 보도했다.
8월	<p>대만대학병원에서 29일, 에이즈 환자의 장기가 5명의 환자에게 이식되는 의료 사고가 발생함.</p>
9월	<p>주 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에 정상기(丁相基)공관장이 새로 취임함.</p>
11월	<p>2012년 3월 대만 타이페이 시내에 위치한 송산공항과 서울 김포공항의 직항노선을 개설하기로 한국과 대만 정부가 협의함.</p>

◆ 2012년 한류 예측

2012년 대만의 한류 흥행의 성패는 한국 드라마의 방영 비중의 확대에 달려있다. 기존에 언급했다시피 대만 내에서 한국 드라마 범람에 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각 방송사는 한국 드라마 방영 편수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접근성과 파급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한류 장르를 넘어서는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영향력이 약하다고 여겨졌던 영화 산업에서 2012년 한국 가수들의 콘서트와 병행한 마케팅 전략을 벌인다면 영화 산업에서도 한류의 흥행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전히 고질적인 배급의 문제의 해결 방법도 연구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2011년 하반기 컴백한 원더걸스가 한국 활동을 마감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인 해외활동을 시작한다면 이를 기점으로 대만 내 한국 음악은 다시 한 번 봄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1 태국 한류 동향 보고

태국/방콕
윤경미 통신원

◆ 총 평

2010년 10월 태국에서는 최초로 ‘한류스타 라이선싱 상품박람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실이 맺어지듯 2011년에는 한류로 인한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 태국인들이 한국의 외식사업 브랜드를 직접 들여와 한국과 같은 메뉴와 맛으로 태국 현지인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태국 인기 여배우인 싸씨칸은 한국 프랜차이즈 외식 사업을 하는 이원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지난 2월 방콕의 ‘통러 소이 13’지역에 투다리(TUDARI)를 오픈한 후 꾸준히 지점을 확장하고 있다. 통러 지역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일본식 뷔페로 유명한 오이시 뷔페 및 세계 각국의 레스토랑 카페와 클럽이 많아 한국의 청담동과 비슷한 거리이다.

이뿐만 아니라 ‘교촌 치킨’이 태국에 진출하였다. 오너인 타냐는 미국 유학 중 뉴욕에서 먹게 된 교촌치킨을 태국에 소개하였으며, 강력한 향신료로 길들여진 태국 사람에게는 생소한 마늘 간장 소스로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곳에서는 한국의 소주를 함께 곁들여 마실 수 있다. 이미 맛 집 전문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소문이 퍼져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12월 태국 중심가에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전통 비빔밥 전문점 ‘The Bibim Bab’이 오픈하여 한국의 맛을 전파하고 있다.

태국 공영 방송이나 거리의 웹보드에 한국의 K-Pop스타를 기용한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2NE1은 야마하 ‘Fiore 모터사이클’, 장근석은 ‘OLE Beauty Collagen Candy’, 빅뱅은 ‘Eversense Cologne’, 슈퍼주니어는 ‘12 Plus Cologne’, 2PM은

‘Hanami 스낵’, 이민호는 ‘던킨도너츠’와 ‘LG mobile’, 닉쿤은 두뇌발달 촉진 건강 음료와 ‘OPPO Mobile Phone’, 삼성카메라, 포미닛과 씨엔블루는 ‘Scotch Pure’ 미용 건강음료, 동해는 ‘Maxim contact lenses’,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ACER 컴퓨터, 공식 프리젠티 등 한류스타들이 CF 천하통일을 이루고 있다. 야마하는 Fiore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모터사이클을 2NE1 멤버들의 개성 있는 외모 및 컬러풀한 노래와 매치시켜 광고를 보는 이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들었다. 다국적 기업인 던킨도너츠는 태국모텔을 기용하지 않고 한국 던킨 도너츠의 이민호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여 ‘맛있다’라는 한국어 멘트까지 살리고, 태국어로 ‘맛있다’에 해당하는 ‘아러이(อร่อย)’를 자막 처리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나미(스낵) 같은 경우에는 2PM 한정판을 출시하고, 해당 광고에도 2PM 전원이 출연한다. 닉쿤의 BRAND CF에는 ‘댄스교본’이라고 한글이 적힌 장면과 배경에 한글을 삽입하여 닉쿤이 한류스타임을 부각하였다. 이는 태국 기업주들이 한류가 제품 홍보, 기업 이미지와 판매 촉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 콘텐츠 부분의 대기업의 투자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SM-True’합작 연예 법인 설립되어 향후 SM 저작권 및 소속 연예인들의 음원, 콘서트 및 태국 내 모든 활동은 SM True의 이름으로 진행되며 닉쿤처럼 유망한 아이돌 스타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도 함께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10월 5일 GS홈쇼핑의 한국-태국 합작사 ‘트루GS’가 태국에 개국했다. 이 회사는 태국 내 제 1의 미디어 그룹 ‘트루비전(True Visions)’, ‘더몰그룹(The Mall Group)’, ‘CP올(CP All)’이 각각 35:45:10:10 의 비율로 출자하여 탄생했다. 채널명은 ‘트루셀렉트(True Select)’로 트루비전(True Visions)방송사의 유료방송 채널 11번과 무료 위성방송의 전파를 타고 24시간 방송되며 태국 전역의 약 800만 가구로 송출되며 판매상품의 60%는 한국의 유명 중소기업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판매되고 있다. 기존의 스타와 팬과의 관계가 팬들의 스타에 대한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이 많았으나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스타와의 양방향 교류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4월 ‘JYJ WORLD TOUR CONCERT IN THAILAND’ 가 개최되기 이전에 영웅재중이 태국을 방문하여 팬들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콘서트 구성 및 무대 디자인을 꾸몄다. 또한 콘서트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국민이 존경하는 태국국왕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국왕의 회복을 기원하는 등 민간대사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태국에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자 홍수피해를 입은 태국 팬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태국이 고향인 닉쿤과 2PM 멤버는 애용하는 의상과 소장품을 경매에 부쳐 얻은 수익금을 수해 복구지원금으로 보내는가 하면 ‘터치(TOUCH)’와 ‘보이프렌드’는 홍수 이재민들의 임시 대피소인 구(舊)공항 ‘던무앙 터미널2’를 찾아 구호품 포장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이전에 공연이나 팬 미팅으로

태국을 방문 했던 한류 스타들도 트위터를 통하여 태국의 팬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 중 FT아일랜드의 정훈(FtGtJH@) 또한 놀랍게도 태국어로 ‘태국 홍수 사태가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태국에 가서 도와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며 태국의 팬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K-Pop아이돌 19팀의 초특급 스타들이 총출동한 ‘코리아 뮤직 웨이브 인 방콕’ 초대형 콘서트를 비롯하여 13개가 넘는 K-Pop 스타들의 콘서트, 팬 미팅이 있었다. 태국 홍수로 취소된 2NE1과 Miss A의 2개 콘서트를 제외한 기록이며, 이는 매달 태국에서 한 차례 이상씩 K-Pop콘서트가 태국에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태국에서 한류는 비단 K-Pop이나 문화산업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테마공원의 한국식 푸드코트, 쇼핑몰 홍보, 사교육 시장, 한국어 교육, 아동복, 고가구, 일반 가구 시장 등 영역의 구분 없이 라이프 스타일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태국에 불어 닥친 한류의 열기가 한국 제품의 홍보 수단 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국 스타일, 한국산 제품이라는 문구만으로도 소비자의 시선과 관심을 끌고 제품 판매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한류는 태국인들의 생활 전반을 파고들고 있다.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 태국은 버마,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한다. 이 중 라오스 지역은 태국어를 사용하며, 버마와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일자리가 적어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비교적 경제력이 높은 태국에 와서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는 태국의 위성 방송을 인근 국가도 시청하고 있으며 비록 태국어 방송이지만 태국어가 통용되는 주변국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구 내수시장 6천 5백만 명의 규모 이상으로 무척 매력적인 곳이다. 이처럼 그간 문화적으로 토대를 쌓아왔던 한류 열풍이 경제적인 효과로도 나타났던 한해였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태국 최대 위성 TV방송사 ‘True Vision’에서는 ‘한류의 공격(Korean Attack)’이라 명명하며 11월~12월 프로그램에 한국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편성하여 방송하고 있다. 지난 29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2011 엠넷 아시아 뮤직 어워드(tvN)’ 생방송을 포함하여 영화, 드라마, 연예 오락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2011년도 하반기 태국 지상파 및 위성 TV에서

방송되는 한국 콘텐츠는 한 달 평균 약 98편 가량이다. 또한 True Vision은 지난 2006년부터 TCTA(태국케이블방송협회)와 채널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TCTA산하 케이블 방송국을 통해 KBS World 채널의 프로그램을 방송해 오다가 최근 들어 사업자를 'True Vision'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12월에는 한국과 합작하여 만든 'True Vision'을 통해 채널 144번에서 한국 방송을 항상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채널 GS홈쇼핑의 한국-태국 합작사 'True GS'가 'True Select'채널인 11번을 통해 한국의 GS 홈쇼핑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홈쇼핑 판매 상품의 60%이상이 한국의 우수 중소기업 상품이다. 이처럼 태국은 현재 한국 방송 천하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한국 콘텐츠들로 넘쳐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방송 현황>

No	채널	장르	제목	방영시간
1	CH 3	드라마	천추태후	매주 토 17.45-19.45 (11일 마지막 회)
2	CH 3	드라마	동이	매주 토 17.45-19.45 (12일 제 1회)
3	CH 7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	매주 토~일 09.15-11.00
4	CH 7	드라마	온에어	수~금 09.00-11.00 (22일 마지막 회)
5	CH 7	드라마	천국의 나무	수~금 09.00-11.00 (23일 제 1회)
6	CH 9	드라마	커피하우스	월~목 13.00-13.50
7	True Asian Series (D64)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2	매주 일 22.00-23.00
8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천만번 사랑해	매주 토 22.00-23.00 매주 일 15.50-17.00 매주 토 15.55-17.00
9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스타의 연인	매주 화~일 00.10-01.20
10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자명고	월 22.00-23.00 화 05.00-06.00, 14.35-15.35, 22.00-23.00 수 05.00-06.00, 15.00-16.00
11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아내의 유혹	토, 일, 월, 화 23.00-00.10 수, 목, 금 23.10-00.20

12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	수 22.00-23.00 목, 금 15.00-16.10, 22.00-23.10, 05.10-06.10 토 05.10-06.15,14.50-15.55
13	CH 5	버라이어티쇼	Asian Countdown (Asian Music Show)	매주 일 22.55-23.45
14	CH 7	버라이어티쇼	Sat Zone (Asian Music Show)	매주 일 01.30
15	CH 9	버라이어티쇼	스폰지	매주 목 20.30-21.30
16	CH 9	버라이어티쇼	Show! Music Core	매주 금 24.00-00.45
17	Bang Channel	음악방송	A-Port (Asian Music Show)	월~금 20.00-21.00
18	Channel V	음악방송	Asian Hero (Asian Music Show)	매일 05.00-06.00, 12.00-12.45, 18.00-19.00
19	Channel V	음악방송	Asian Chart (Asian Music Show)	매일 14.00-15.00
20	Pop Live TV	음악방송	Aisan Time Non Stop-Hits (Asian Music Show)	월 09.30-11.00, 화, 수, 금 09.00-11.00, 목 09.00-11.00 / 14.30-16.30, 토 09.00-10.30 / 17.00-19.00, 일 09.00-11.00 / 11.30-13.30
21	True X-Zyte (A18, D62)	버라이어티쇼	엑스맨	금 09.00-10.05 토 23.20-00.35
22	True X-Zyte (A18, D63)	버라이어티쇼	스타킹(시즌3)	토 22.00-23.20 일 02.25-03.40, 09.00-10.00, 12.05-13.20, 18.35-20.00
23	True X-Zyte (A18, D64)	버라이어티쇼	행복주식회사	일 22.00-23.00
24	True X-Zyte	음악방송	Asian Top 10	화 04.00-05.00

	(A18, D65)			
25	True X-Zyte (A18, D66)	버라이어티쇼	지금은 꽃미남시대	수 09.00-10.00
26	True X-Zyte (A18, D67)	버라이어티쇼	Idol Show MBLQ (Variety)	일 20.00-21.00
27	True Inside (A17, D61)	버라이어티쇼	Asiaism	월 05.30-06.30 / 09.00-09.30 / 22.45-23.10 목 00.10-00.40 금 03.10-03.35 / 13.30-13.55 토 18.00-18.30
28	True Asian Series (D65)	버라이어티쇼	소녀시대의 헬로 베이비	매주 토 17.00-18.00
29	True Asian Series (D66)	버라이어티쇼	Star News 2011	월, 화, 금 19.50-20.00
30	True Asian Series (D67)	버라이어티쇼	Star News Weekly 2001	목 20.00-21.00
31	True Asian Series (D68)	음악방송	인기가요 (Live K-Pop)	토 18.00-19.00 월 20.00-21.00
32	True Asian Series (D69)	버라이어티쇼	강심장	금 20.00-21.00 일 17.50-19.00
33	True Asian Series (D70)	버라이어티쇼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2)	토 20.00-21.00
34	True Asian Series (D71)	버라이어티쇼	Super Junior's Miracle	일 20.00-21.00
35	True Film Asia (A11 / D41)	영화	GP506	
36	True Film Asia (A11 / D41)	영화	기담	
37	True Film Asia (A11 / D42)	영화	천년여우 여우비	
38	True Film Asia (A11 / D45)	영화	아랑	
39	True Film Asia (A11 / D46)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40	True Film Asia (A11 / D47)	영화	과속 스캔들	
41	True Film Asia (A11 / D48)	영화	트럭	
42	True Film Asia (A11 / D49)	영화	내 사랑	
43	True Film Asia (A11 / D50)	영화	여기보다 어딘가에	

44	True Film Asia (A11 / D51)	영화	전설의 고향	
45	True Film Asia (A11 / D52)	영화	님은 먼 곳에	
46	True Film Asia (A11 / D53)	영화	경축! 우리 사랑	
47	True Film Asia (A11 / D55)	영화	1724 기방난동사 건	
48	True Film Asia (A11 / D56)	영화	페이지	
49	True Film Asia (A11 / D57)	영화	태풍	
50	True Film Asia (A11 / D58)	영화	해바라기	
51	True Film Asia (A11 / D59)	영화	걸스카우트	
52	True Film Asia (A11 / D60)	영화	해운대	
53	True Film Asia (A11 / D61)	영화	쌍화점	
54	True Film Asia (A11 / D62)	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55	True Film Asia (A11 / D64)	영화	여행자	
56	True Film Asia (A11 / D65)	영화	차우	
57	True Film Asia (A11 / D66)	영화	중천	
58	True Film Asia (A11 / D67)	영화	로맨틱 아일랜드	
59	True Film Asia (A11 / D69)	영화	우리 형	
60	True Film Asia (A11 / D72)	영화	청풍명월	
61	True Film Asia (A11 / D76)	영화	신기전	
62	True Film Asia (A11 / D78)	영화	다찌마와 리	
63	True Film Asia (A11 / D79)	영화	영화는 영화다	
64	True Film Asia (A11 / D80)	영화	아홉살 인생	
65	True Film Asia (A11 / D83)	영화	작업의 정식	
66	True Film Asia	영화	키친	

	(A11 / D85)			
67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후아유	
68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B형 남자친구	
69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동갑내기 과외하기	
70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비스티 보이즈	
71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헨젤과 그레텔	
72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마이 파더	
73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화이트 발렌타인	
74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달려라 자전거	
75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위대한 유산	
76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폼행제로	
77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78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돌려차기	
79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연애소설	
80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내 남자의 로맨스	
81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마이 뉴 파트너	
82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울 학교 이티	
83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올드보이	
84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와니와 준하	
85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고死: 피의 중간고사	

<2011년 하반기 방송 현황>

No	채널	장르	제목	방영시간
1	CH 3	드라마	천하여인 (女人天下)	매주 월-금 13.40-14.40

2	CH 3	드라마	동이	매주 토-일 17.45-19.30
3	CH 3	드라마	이산(李祿)	매주 월-금 02.45-03.55
4	CH 7	드라마	때려	매주 월-목 03.25-04.15
5	CH 7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토-일 09.15-11.15
6	CH 9	드라마	로비스트	월-금 02.00-03.00
7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하자 전담반 체로	월-금 01.00-02.00
8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별을 따다줘	토 22.00-23.00 일 22.00-23.00
9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산부인과 여의사	토 15.45-16.55 일 16.00-17.10
10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일지매 (一枝梅)	월 15.40-16.45 화 15.35-16.40
11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신데렐라맨	월 16.45-17.50 화 16.40-17.50
12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2009 외인구단	월 17.50-19.00 화 17.50-19.00
13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그대, 웃어요	수 16.50-19.00 목 08.50-11.00, 16.00-19.00 금 08.50-11.00, 16.00-19.00 토 08.50-11.00
14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보석비빔밥	수 22.00-23.00 목 22.00-23.00 금 22.00-23.00
15	True Asian Series (D64)	드라마	아내가 돌아왔다	월 22.00-23.00 화 05.00-06.00, 14.35-15.35, 22.00-23.00 수 05.00-06.00, 15.00-16.00
16	CH 5	버라이어티쇼	Asian Count down (Asian Music Show)	매주 일 22.55-23.45
17	CH 7	버라이어티쇼	Sat Zone (Asian Music Show)	매주 일 24.15-01.15

18	CH 9	버라이어티쇼	스폰지	매주 목 20.35-21.25
19	CH 9	버라이어티쇼	Show! Music Core	매주 금 23.45-24.45
20	Bang Channel	음악방송	A-Port (Asian Music Show)	월 20.00-21.00
21	Channel V	음악방송	Asian Hero(Asian Music Show)	월 05.00-06.00, 12.00-13.05, 8.00-19.00 토 20.05-21.05
22	Channel V	음악방송	Asian Chart (Asian Music Show)	토 11.55-13.05
23	Pop Live TV	음악방송	Aisan Time Non Stop-Hits (Asian Music Show)	월 09.30-11.00, 화, 수, 금 09.00-11.00 목 09.00-11.00/ 14.30-16.30 토 09.00-10.30 /17.00-19.00 일 09.00-11.00 /11.30-13.30
24	True X-Zyte (A18, D62)	버라이어티쇼	Family Outing III	일 20.00-21.25
25	True X-Zyte (A18, D62)	버라이어티쇼	엑스맨	금 09.00-10.05 토 23.20-24.35
26	True X-Zyte (A18, D63)	버라이어티쇼	스타킹(시즌3)	토 22.00-23.20 일 02.25-03.40, 09.00-10.00, 12.05-13.20, 18.35-20.00
27	True X-Zyte (A18, D64)	버라이어티쇼	행복주식회사	일 22.25-23.25
28	True X-Zyte (A18, D66)	버라이어티쇼	지금은 꽃미남 시대	수 09.00-10.00
29	True Asian Series (D65)	버라이어티쇼	소녀시대의 헬로 베이비	토 16.55-17.50
30	True Asian Series (D66)	버라이어티쇼	Star News 2011	월, 화, 수, 금 19.50-20.00
31	True Asian Series (D67)	버라이어티쇼	Star News Weekly 2001	목 20.00-21.00
32	True Asian Series (D68)	음악방송	인기가요 (Live K-Pop VI)	토 17.50-19.05 월 20.00-21.00
33	True Asian Series (D69)	버라이어티쇼	강심장	금 20.00-21.00 일 17.55-19.10
34	True Asian	버라이어티쇼	우리 결혼했어요	토 19.55-21.00

	Series (D70)		(시즌2)	
35	True Asian Series (D71)	버라이어티쇼	Super Junior's Miracle	월 02.00-03.00
36	True Asian Series (D71)	버라이어티쇼	아이돌메이드	일 20.00-21.00
37	True Film Asia (A11 / D41)	영화	GP 506	
38	True Film Asia (A11 / D41)	영화	기담	
39	True Film Asia (A11 / D45)	영화	아랑	
40	True Film Asia (A11 / D47)	영화	과속 스캔들	
41	True Film Asia (A11 / D50)	영화	여기보다 어딘가에	
42	True Film Asia (A11 / D51)	영화	전설의 고향	
43	True Film Asia (A11 / D53)	영화	경축! 우리 사랑	
44	True Film Asia (A11 / D56)	영화	데미지	
45	True Film Asia (A11 / D57)	영화	태풍	
46	True Film Asia (A11 / D58)	영화	해바라기	
47	True Film Asia (A11 / D60)	영화	해운대	
48	True Film Asia (A11 / D62)	영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49	True Film Asia (A11 / D64)	영화	여행자	
50	True Film Asia (A11 / D65)	영화	차우	
51	True Film Asia (A11 / D66)	영화	중천	
52	True Film Asia (A11 / D67)	영화	로맨틱 아일랜드	
53	True Film Asia (A11 / D69)	영화	우리형	
54	True Film Asia (A11 / D78)	영화	다짜마와 리	
55	True Film Asia (A11 / D79)	영화	영화는 영화다	
56	True Film Asia (A11 / D83)	영화	작업의 정식	

57	True Film Asia (A11 / D85)	영화	키친	
58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B형 남자친구	
59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동갑 내기 과외하 기	
60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비스티 보이즈	
61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헨젤과 그레텔	
62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화이트 발렌타인	
63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달려라 자전거	
64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폼행제로	
65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돌려차기	
66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연애소설	
67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내 남자의 로맨스	
68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마이 뉴 파트너	
69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울학교 이티	
70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올드보이	
71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고死: 피의 중간 고사	
72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오감도	
73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비열한 거리	
74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순정만화	
75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빈집	
76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Mr. 로빈 꼬시기	
77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왕의남자	
78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추격자	
79	True Film Asia	영화	가문의 영광	

	(A11 / D89)			
80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그 남자의 책 198쪽	
81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말아톤	
82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열한번째 엄마	
83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천년호	
84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클래식	
85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방울토마토	
86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인형사	
87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88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도둑맞곤 못살아	
89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오이시맨	
90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달마야 놀자	
91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달콤한 거짓말	
92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소년은 울지 않는다	
93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비몽	
94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외출	
95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96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여우계단,	
97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98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광복절 특사	
99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어린 신부	
100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더 게임	
101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스승의 은혜	

102	True Film Asia (A11 / D89)	영화	1724 기방난동사건	
-----	-------------------------------	----	----------------	--

2. 영화 산업

2011년 한국 영화 실적은 매우 부진했다. 올 태국 내 개봉작은 국제 합작 영화로 한국배우가 출연한 <The Warrior's Way>와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단 두 편 뿐이었다. 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와는 달리 한국 영화가 부진한 이유는 우선 태국인에게 잘 알려진 드라마 배우들이 출연하지 않았다는 점과 심각한 주제의 내용보다는 고스트 스토리나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영화를 선호하는 태국인의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계 이슈로는 2010년 한국 올로이케이션으로 촬영된 영화 <꾸언 므 호>의 여자 주인공 '누나 능티다'가 '2011년 수파 나홍 영화제'에서 최우수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 개봉한 한국영화 또는 국제 합작 한국배우 출연>

No	영화명	개봉일
1	The Warrior's Way (장동건 주연)	2011.1.13
2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임수정 주연)	2011.8.18

3. 음악 산업

K-Pop 가수들의 성공의 점지기 위해서는 태국에서의 콘서트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동남아 한류의 중심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작은 K-Pop콘서트가 개최되었으며, 이를 보기 위해 주변 동남아 국가의 팬들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와 관람을 하고 돌아갈 정도이다.

1) 슈퍼주니어, 'Super Show 3' 방콕공연

- 일시: 2011년 1월 15-16일, 오후 6시
- 장소: 무엥텡타니 임팩트 아레나(Impact Arena, Muang Thongtani)
- 입장료: 5,000 Bhat(VIP)~ 900 Baht

슈퍼주니어는 지난 2008년 7월 12일 태국 공연에서 <슈퍼쇼>라는 타이틀처럼 열정적 라이브 공연뿐만 아니라 무대 구성이나 멤버들의 동선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기획한 콘서트로 태국 팬들을 열광케 했었다. 모든 영상에 태국어 자막을 삽입하고, 멤버들은 태국어로 '여러분 행복해요?', '오늘 너무 멋진 밤이죠?', '우리 다시 만나요' 등을 말하는 등 현지 팬들과의 교감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1만

3천여의 관객의 환호 속에 성공리에 콘서트를 마쳤다.

2) Holika Holika Presents Magic party with 씨엔블루

- 일시: 2011년 1월 27일
- 장소: Dusit Tani Hotel
- 주최: Holika Holika

태국 화장품 회사가 주최한 씨엔블루의 미니콘서트로 'I'm a loner', 'Love Light', 'Now or Never', 'Let's Go Crazy', 'One Time', 'Love', 'Balmal song' 단 7곡이 공연이 되었으며 공연이 끝나고 멤버들에 대한 인터뷰가 이어졌다.

3) 코리아 뮤직 웨이브 인 방콕

- 일시: 2011년 3월 12일 오후 7~11시
- 장소: 람캄행 라차망카라 축구장 (Rajamangala National Stadium)
- 주최: MBC, STARNET
- 입장료: 6,000~900 Baht(한화 약 22만원 ~ 3만 3천원)

'코리아 뮤직 웨이브 인 방콕'이 3월 12일 방콕 람캄행 라차망카라 축구장에서 개최됐다. 태국이 고향인 닉쿤과 소녀시대의 유리, 티파니가 MC를 맡았다. 출연진은 동방신기, 소녀시대, 2PM, 2AM, 씨엔블루, FT아일랜드, 비스트, 엠블랙, SG워너비, 노라조, 티아라, 애프터스쿨, 포미닛, 시크릿, 미쓰에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 씨스타, 손담비 등 총 19팀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의 초특급 스타들이 총 출동해 숨 쉴 틈 없이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공연에 앞서 한국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인물과 같은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고 장기를 뽑내는 '코스튬 플레이 파라다이스'와 가수들의 사진 전시회인 'WALK OF FAME', 커버 댄스팀의 열띤 공연의 장이 될 'DANCE STREET', 팬들의 선물을 전시하고 교환하는 행사의 장 'THE PLAZA', 팬클럽 간 교류의 장이 될 'FAN ZONE'으로 식전 행사가 기획되었다.

4) 2011 파타야 국제뮤직 페스티벌

(Pattaya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2011)

- 일시: 2011년 3월 18일~20일
- 장소: 태국 파타야 해변
- 주최: 태국관광청(Tourism Authority of Thailand), 파타야시(Pattaya City)

- 주관: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지엠엠 그래미(GMM Grammy)
- 후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해외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야외음악제로 한국을 대표하여 인기가수 비(Rain)와 손담비가 참가했다.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태국과 아시아의 정상급 뮤지션들이 참가해 팝과 락, 댄스뮤직, 힙합,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태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축제로 유명하다. 특히, 올해는 태국의 대표적인 인기가수 골프앤마이크(Golf & Mike), 비더스타(Bie The Star), 포테이토(Potato) 등 40여 팀이 참가했고, 해외 가수로는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의 인기가수가 출연(태국 포함 총 9개국)했다. 매년 전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의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도시인 태국의 파타야 해변에서 3일간 펼쳐지는 야외 공연인 만큼, 해마다 30만 명의 국내외 관람객들이 참여한다. 태국은 물론, 동남아시아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대중음악 축제로 알려져 있는 이 공연은 행사기간인 3일 동안, 매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파타야 해변에 설치된 3곳의 야외 특설무대에서 치러졌다.

5) 2011, JYJ WORLD TOUR CONCERT IN THAILAND

- 일시: 2011년 4월 2일,3일 18:00
- 장소: 임팩트 아래나 무엥텡타니
- 출연자: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구 동방신기 멤버 재중, 유천, 준수는 3인조 퍼포먼스형 아티스트 그룹 JYJ로 재결합 후 태국의 팬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3월에 한국의 스타들이 총 출동한 초대형 콘서트 ‘MBC Music Wave in Bankok’ 이후 표가 안 팔릴 것이라는 우려를 뒤엎고 프리세일 10분 만에 표가 매진되면서 상황을 이루었다. 멤버들 중 재중의 팬들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콘서트 구성 및 무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콘서트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존경하는 태국국왕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 국왕의 회복을 기원하는 등 소통하는 한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6) K-POP Charity Concert (Second Part)

- 일시: 2011년 4월 29일 17:00
- 장소: Bangkok International Trade Center & Exhibition Centre
- 출연자: Super Junior, TVXQ, Se7en, MBLQ, Teen Top
- 주최: PD SHOWTIME

신생그룹 ‘틴탑’은 태국 언론 매체 ‘Pingbook’, ‘Channel’을 통해 집중 관심을 받았으며 ‘Little 신화’, ‘신화를 잇는 차세대 스타 그룹’으로 소개 되었다.

7) 2NE1 Thailand Exclusive Fan meeting

- 일시: 2011년 4월 6일 14:00~15:00
- 장소: Thunder Dome
- 출연자: 2NE1
- 주최: YAMAHA사

세계적인 오토바이 회사 YAMAHA사가 ‘Fiore’ 광고모델로 발탁한 ‘2NE1’을 태국으로 초청하여 4월 5일에는 바이텍 망나에서 열린 태국국제모터쇼에서 미니 콘서트 공연을 펼쳤고, 4월 6일에는 태국 ‘Thunder Dome’에서는 ‘2NE1 Thailand Exclusive Fan meeting’을 개최하였다. ‘2NE1’은 팬 미팅에서 ‘Don’t Stop the Music’, ‘Fire’, ‘Can’t Nobody’, ‘I don’t Care’ 총 4 곡을 팬들에게 선사하였으며, 공연과 함께 팬 사인회도 같이 진행했다. 이메일 설문조사에 참가한 팬들을 추첨하여 공연 표를 선물하자 표를 얻기 위한 태국 팬들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8) The Best 2011 Rain Asia Tour in Thailand : 비(Rain) 콘서트

- 일시: 2011년 5월 8일 17:00
- 장소: 임팩트 아레나 무엥텡타니
- 출연자: 비
- 주최: PD Creation

드라마 ‘폴하우스’의 히트로 태국 한류의 바람을 일으킨 한류 대표 주자 비는 2007년 콘서트 이후 4년만 (‘2011 파타야 뮤직 페스티벌’ 참가 제외)에 콘서트를 열었다. 월드 스타로 우뚝 자리 잡은 비의 세련된 무대 매너와 변함없는 끼를 보여 주는 무대로 꾸며졌다.

9) 장근석 ‘2011 아시아 투어-더 크라이 쇼’

- 일시: 2011년 5월 28일
- 장소: Impact Hall 2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에서 태국에서 인기몰이를 한 장근석의 첫 공연이 열렸다. 공연 전날 입국부터 태국 방송사와 잡지매체의 스포트라이트와 인터뷰 공세를 받

았다. 공연 당일 장근석은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한 'Let me cry'와 귀공자 같은 매력을 더하는 발라드 및 발랄함을 보여주는 댄스 등 화려한 무대 매너와 환상적인 라이브로 팬들과 하나가 되어 2시간 동안 열광의 무대를 만들었다.

10) JYJ 박유천 팬미팅

- 일시: 2011년 8월 17일
- 장소: 임팩트 무영텃타니

태국 내 방영 중인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의 인기에 힘입어 태국에서 드라마 프로모션과 더불어 팬 미팅을 하기 위해 방문, 태국 입국 당일 3천여 명의 팬이 한꺼번에 몰려 공항이 잠시 마비 상태가 되기도 했으며 3천 500석 규모의 팬미팅은 판매 하루 만에 매진이 되었다. 단독 팬 미팅에서 박유천은 최근 종영한 드라마 <미스 리플리>의 OST를 부르고 팬들과의 대화 및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1) 김현중과 하이파이브 (팬미팅)

- 일시: 2011년 8월 23일
- 장소: 방콕 센트럴 월드 플라자 1층

기존의 팬 미팅은 900바트~45,000바트 정도의 입장권을 사야만 좋아하는 스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는 참석한 모든 팬들이 스타와 가까이에서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김현중도 빠듯한 일정에도 연신 밝은 미소와 일일이 팬들과 손을 잡고, 스타 같지 않은 친근한 오빠처럼 팬들을 대했다. 24일에는 김현중의 애장품의 경매가 있었는데 다이어리는 100,000바트, 운동화는 80,000바트, 김현중 등신대는 50,000바트에 낙찰이 되었다. 이중 다이어리와 운동화는 한 여성에게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금 180,000바트는 태국 일반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화제를 모았다.

4. 공연/전시 산업

1) 제1회 방콕 한국 등 축제

- 일시: 2011년 1월 6일~2월 28일 오후 5시~8시 45분
- 장소: 원더월드 테마파크(Wonder World Extreme Park)
- 주최: Coral Culture Contents

람인트라에 위치한 원더월드 테마 마크에서 '제1회 방콕 한국 등 축제(1st Korea

Lantern Festival in Bangkok)'가 개최되어 방콕 밤하늘에 형형색색의 등불과 흥겨운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방콕의 저녁을 수놓은 이번 등불 축제에서는 한국의 여성 전통 타악 그룹 '도도', 비보이 그룹 '갬블러', 힙합 트리오 '할로'와 중국의 리틀엔젤스 서커스단 그리고 태국의 전통 음악 가수 'BaiThui R Siam'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2) 제1회 왕실 공주컵 국제태권도대회

- 일시: 2011년 1월 8일 오전 10시
- 장소: 패션아일랜드 쇼핑몰 3층 (Fashion Island Shopping mall)
- 후원: 태국 시린톤 공주

태국 내 한국 태권도의 저력을 보여주고 태국인들과 더불어 한·태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1회 왕실 공주컵 국제태권도대회'가 태국 둘째 공주 시린톤 공주의 후원 하에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태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일본 등지에서 5백여 명이 참가했으며, 8시간에 걸쳐 겨루기, 품세, 격파 3종목이 남녀 각 8체급에 한해 실시되었다.

3) 창작 뮤지컬 '허준' 공연

- 일시: 2011년 1월 15~16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라차다 문화센터(Main Hall, Thailand Cultural Center)
- 주최: (사)국제청소년연합

2010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엑스포에서 공연된 IYF극단의 창작 뮤지컬 <허준>의 공연이 있었다. 드라마 <허준>은 태국에서는 2006년에 공중파 TV에 방영이 되었으며 드라마의 인기를 등에 업고 'HO JUN'이라는 홍삼음료수가 출시되기도 했었다.

4) 코리안 페스티벌 'Love Thailand' 개최

- 일시: 2011년 1월 26일~31일
- 장소: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
- 주최: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 주관: 더 프레젠티
- 후원: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태국에서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코리안 페스티벌 'Love Thailand'가 열

렸다. 페스티벌에서는 한국 김치 체험전과 한-태 미술 교류전, 전통의상 패션쇼 등 5일 동안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양국 문화 콘텐츠 교류를 통해 태국인들과 한인 동포들의 관계를 증진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행사이다.

5) Beautiful World 자선 콘서트

- 일시: 2011년 1월 28일, 오후 7시 30분
- 장소: 태국 증권 거래소 콘서트 홀
- 주최: Settrade Musical Moment
- 후원: (주)에벤에셀투어, 사단법인 뷰티풀 마인드, Silvery Wave Musical Instruments co.

첼리스트 배인환 교수와 수제자 11명의 협연, 첼리스트 홍종진, 피아니스트 김경민의 감동적인 연주가 방콕의 저녁에 울려 퍼졌다. 배인환 교수는 이화여대 음대의 관현학과 주임 교수로 재직하면서 활발한 연주 활동과 사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사단법인 뷰티풀 마인드의 총괄 이사로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도 곡 사이 사이마다 잠깐씩 뷰티풀 마인드의 활동이 담긴 동영상을 상영했다.

6) 비빔밥 유랑단 태국 방문

세계 35개국을 돌며 비빔밥을 홍보하기 위해 강상균, 김명식, 김수찬, 정겨운으로 구성된 비빔밥 유랑단이 4월 9일 북경에서 첫 번째 테이블을 시작으로 대장정을 시작하였다. 4월 22일 방콕 라차망갈라 스타디움 태국 국가대표 태권도팀 20여명과 한국인 최영석 감독을 시작으로 UN ESCAP 본부 구내식당에서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위원회 직원 50여명을 위한 비빔밥 테이블, 빈민촌 멩짜이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비전 센터 내 약 200여명을 위한 비빔밥을 마련하여 10번째의 비빔밥 테이블까지 태국에서 차려졌다. 각각 대기업 사원으로 또는 외국계열 글로벌 기업에 재직 중 있던 이들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 보고자 사비를 털어 비빔밥 알리기 프로젝트를 실시했으며 총 100번의 테이블을 완수하여 한국과 한국의 맛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의 비빔밥을 시식한 태국 국가대표 태권도팀은 5월 5일 태권도의 종주국인 한국 경주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7) 러브소나타 방콕 콘서트

- 일시: 2011년 5월 13일(금) 19:00~21:30

- 장소: 탐마삿 대학교 랑싯캠퍼스 제1 체육관
- 출연자: 라준석 목사, 한혜진, 대니정, 권희진 FL댄스팀, 연예인 합창단 외
- 주최: 태국개신교협의회, 온누리 교회
- 협찬: CGNTV, 두란노

8) THAIFEX- World of Food Asia 2011

- 일시: 2011년 5월 25~29일
- 장소: 임팩트 전시컨벤션 센터
- 주최: 태국 산업자원부(Ministry of Commerce, MOC)

올해로 8회째인 THAIFEX는 수출 업체만 25개국 1,000여 개 회사에 달하고 100여국 2만 2천여 명의 바이어와 참관객수는 8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아시아 국가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음식박람회이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농수산물의 동남아수출 확대를 위하여 빙그레, 한일식품 등 12개 식품업체 및 임산물 업체들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김, 스낵,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수출 유망상품을 홍보하였다. 한류의 바람을 타고 많은 태국인 참관객들이 한국산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제품 상담을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식회에 ‘아러이(태국어로 맛있다)’를 연발하며 즐기는 모습이였다. 태국은 한국 농수산 식품 수출 실적이 최근 5년간 매년 30%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난해 약 2억 달러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번 박람회는 계기로 태국시장에 한국농수산식품 수출기반을 확보하고, 향후 유통망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9) 드럼캣 공연

- 일시: 2011년 6월 7일~19일
- 장소: The Mall 백화점 방카피 지점
- 출연자: 드럼캣 멤버
- 주최: The Mall Group, 한국관광공사

여성 3인조로 구성된 언버벌 타악 그룹 ‘드럼캣’의 공연이 백화점 ‘The Mall Korea Delight’ 행사와 함께 백화점을 찾는 태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감동을 주었으며 신한류 공연으로 자리 매김 하는 기회를 가졌다.

10) 소프라노 김창숙 RECITAL 콘서트

- 일시: 2011년 6월 13일 19:30

- 장소: 타이컬처센터 중강당
- 주최: 한태문화교류재단
- 주관: 방콕한인연합교회

하이든(J.Haydn) 6곡, 베토벤(LV.Beethoven) 6곡, 모차르트(W.A.Mozart) 6곡 등 주옥같은 명곡을 방콕 거주 한인 교포에게 선사함

11) World Best Champion Team K-Tigers

- 일시: 2011년 6월 25일 / 1부: 10:00~12:00, 2부: 13:00~15:00
- 장소: Siam Niramit
- 출연자: K-Tigers, 태국 걸그룹 G-20과 캔디마피아의 미니 콘서트

Korea Taekwondo & Cultures Performance인 K-Tiger 시범단은 품새를 기초로 한 정확한 태권도 동작과 태권도 발차기에 음악을 입힌 다양하고 독창적인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팀이다. 고난이도 발차기 기술과 아크로바틱, 웨이브, 브레이크, 재즈 등을 태권도에 접목시켜 태권도의 대중화에 기여하였으며 보는 이로 하여 탄성이 절로 나오는 공연을 선보인다. 태국에서는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격려 및 감사행사로 초청한 자리에 태국의 걸그룹 G-20과 캔디마피아의 미니 콘서트가 함께 펼쳐졌다. 수익금은 태국 시린톤 공주의 고아원 프로젝트를 위해 쓰이게 된다.

12)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태국지역 본선

- 일시: 2011년8월 18일
- 장소: 시나카린위롯 대학교 예술회관

총 18팀이 무대에 올랐고 한국의 애프터스쿨을 커버한 'Next School'팀이 우승을 차지하여 한국에서 열리는 3차 최종결선의 기회를 얻었다. 태국 지역 본선에는 가수 2PM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다. Next School은 2년 전에 결성된 팀이며 이번에 우승을 차지한 멤버는 4기에 해당하는 멤버들이다. 여성 아이돌 그룹을 커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총 8명의 소년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태국 내 크고 작은 커버댄스 경연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경험이 있으며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팀이다.

13) 드럼캐트 공연

- 일시: 2011년8월 23일~24일

- 장소: Future Park 쇼핑몰
- 출연자: 드림캐트 멤버
- 주최: Future Park

여성 4인조로 구성된 언버벌 타악 그룹 ‘드림캐트’의 공연이 Future Park 백화점 개점 16주년 ‘Exciting Korea’행사에 초대되어 역동적인 공연을 선사하였다.

14) 난타 방콕 전용관 오픈

- 일시: 2011년 9월 22일
- 장소: 라프라송 거리 Big C 6층

전 세계 60만 명이 관람했다는 난타가 2004년 뉴욕 브로드웨이 전용관에 이어 태국 방콕에 아시아 최초 난타 전용관을 설치하고 앞으로 3년간 공연을 펼치게 된다. 현재의 난타 공연팀은 한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최고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연 첫날 무대에서 관객과 공연팀 모두 하나가 되어 배우들이 시키는 대로 박수를 치고 생일축가를 부르며 비록 어눌한 발음이지만 배우들이 외치는 태국어 발음에 분위기가 더 고무되었다. 공연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이며 한국교민들은 이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20% 할인혜택을 받는다.

15) JUMP SHOW

- 일시: 2011년 9월 30일~10월 1일
- 장소: Future Park 쇼핑몰
- 주최: Future Park

2008년 ‘시암 파라곤’에서 이후 3년 만에 태국을 찾은 점프팀은 이전의 공연 평판과 태국 영화 속에서 소개된 바 있어 관람객의 기대를 모았으며 공연 7일전 입장권이 매진되는 기록을 낳았다.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1) 신게임 론칭 및 계약 연장 이루어져

엠게임사는 지난 3월 9일 미래형 판타지 온라인게임 ‘아르고’에 대해 아시아 소프트와 태국 내 서비스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최신 온라인 게임 ‘아르고’는 미래 시대 배경의 대규모 전쟁을 구현한 온라인 게임으로 지난 8월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한 후 신흥시장 러시아를 시작으로 유럽 30개국 및 북미, 일본 지역의 수출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엠게임사는 지난 2005년부터 태국 서비스를 시작한 ‘열혈강호 온라인’을 태국 퍼블리셔인 ‘아시아 소프트’와 서비스 연장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귀여운 5등신 캐릭터와 아기자기한 의상 아이템 등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지금까지 신규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와 서비스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오는 2013년까지 서비스를 연장하게 된 것이다. 9월 말에는 대규모 업데이트(열혈강호 온라인2)가 이루어짐에 따라 장수 게임으로 입지를 굳혀 나가고 있다. 엠게임사의 대표작인 ‘열혈강호 온라인’은 현재 8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미국, 인도네시아)에 서비스 중으로 전 세계 회원 수 1억 명을 확보했으며, 지난 2004년 11월 서비스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 현지 총 누적매출 1천 844억 원을 달성했다. 이중 해외 국가에서 발생한 현지 누적 매출이 1천 477억 원으로 총 누적매출의 80%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한빛소프트는 2011년 3월 17일부터 ‘에이카 온라인’의 태국 내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에 앞서 지난 1월 포커스 그룹 테스트(FGT)에 약 1만여 명의 유저들을 초대해 8시간씩(1일 기준) 서버 테스트를 진행하며 전쟁 콘텐츠에 대한 현지 유저 반응 등을 집중 점검 했다.

6. 한스타일 및 기타

1) 카탈로그 상품 중 한국산 상품 인기 몰이

태국의 홈쇼핑 마켓은 아직까지 한국처럼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태국의 트루홈쇼핑이 미국 홈쇼핑의 히트 상품 위주로 판매하고 있으나 태국의 생활 패턴과는 맞지 않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Catalog는 태국 내 통신판매 1위 업체로, 세븐일레븐과 같은 모기업(CP그룹)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태국 전역에서 성업 중인 세븐일레븐 점포를 이용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세븐일레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태국 전역에 영업 중인 가맹점은 5천개가 넘고, 각 블록마다 위치해 있어 길을 가운데 두고 두 점포가 마주보고 운영이 되기도 한다. 이를 이용해 7-Catalog에서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는 물건을 가까운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 택배망이 잘 발달되지 않은 태국에서는 가장 편리한 통신 쇼핑 수단이 카탈로그 쇼핑으로, 제품 대다수가 저가의 중국산이지만, 2010년부터 한-태 FTA의 영향으로 한국 제품의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2) 한국 車 부품업체 전시회 (Korea Auto parts Plaza)

- 일시: 2011년 3월 17일
- 장소: 파타야 두싯타니 호텔
- 주최: 한국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 GM
- 주관: 코트라

코트라는 3월 17일 태국 파타야에서 GM과 공동으로 한국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33개사의 제품을 전시하는 ‘한국 車 부품업체 전시회 (Korea Autoparts Plaza)’를 개최했다. 한국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GM과 공동으로 태국에서 부품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에 나섰다. 코트라는 "원가절감을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과 자재 이원화를 강화하고 있는 GM은 최근 5년간 한국으로부터 60억달러의 부품을 발주하는 등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가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도약을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ASEAN지역의 자동차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태국은 토요타 등 일본계 자동차 업체는 물론 GM과 포드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동남아 생산 공장 기지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일본계 회사들과 경쟁 하고 있다.

3) The Mall Cover dance Contest

- 일시: 2011년 5월 21일,22일/ 6월 11일,12일/ 7월 2일,3일
- 장소: The Mall 백화점 방캐지점, 방카피지점, 응암왕안지점
- 주최: The Mall Group
- 후원: Coca-Cola, Shukishi, 12Plus, Scotch

건전한 청소년 놀이 문화 정착을 위해 방캐 백화점에서, 방카피 지점 4층과 응암 왕 지점 6층에 있는 청소년 문화, 쇼핑 공간 City Walk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K-Pop 커버 댄스팀이 참가하여 그들의 댄스 솜씨를 겨룬다.

4) 태국 K-Pop 커버댄스 그룹 활동 활발

라차망갈라 경기장은 1998년 아시아 게임이 개최된 곳으로 방콕 후아막에 위치해 있고 실내, 실외 운동장, 양궁장, 헬스클럽 및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다. 여기에 매주 토요일 오후 더위가 가시기 시작할 무렵 경기장 주변의 공원의 공터로 청소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음악을 틀어 놓고 K-Pop 커버 댄스를 연습하기 위해서이다. 태국에서는 K-Pop 댄스가 발레, 힙합댄스처럼 하나의 댄스 장르로 자리매김을 한지 오래이다. ‘2010년 한류스타 라이선싱 상품박람회’ 중에도 댄스커버 경연대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한류 K-Pop스타들의 공연에 앞서 콘서트의 감흥

을 달구는 약방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가 하면, 각 그룹들이 한류스타 못지않은 팬클럽을 자랑하고 있다. 심지어 작년에는 포미닛 배 커버댄스 경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다.

닉쿤의 한국에서의 성공과 최근 미니 앨범 'Who Cares'를 발표하고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시작한 '리타'의 영향인지 한국 연예계의 진출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늘었다. 외신에서는 'Thai Girls Dance Korean Style'로 태국에서 한국 스타일로 춤을 추고 경연대회를 하는 한류 댄스열풍을 보도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한국인이 세운 'I-Perse(K-Pop 댄스학원)', 연예인 양성 학원 'Opera', 'Star Maker', 'My Dance Academy', 'Korean Academy' 등이 성행 중이다. 이들은 유튜브에 연일 자신들의 춤 솜씨를 자랑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있다. 웹사이트 www.coverdancethailand.co.th를 통해 팀을 결성하거나 댄스커버 경연대회 정보를 나누고 있다. 태국 커버 댄스 경연대회의 효시는 MBK 주최의 'HELLO KOREA 2009 Season1'이다. 이 행사 기간 동안에는 총 20여개의 댄스커버팀이 경합을 벌이고 이를 관람한 관람객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하여 우승팀을 가렸다. 이후에 YAMAHA LADY DANCE FESTIVAL, OISHI배, CP배 댄스 커버 경연대회가 대기업 주최로 많은 상금을 내걸고 제품 홍보회와 함께 개최되었다.

5) 태국 제품 광고에 한글 표기 급증

최근 거리를 지나다니면 한국과 관련 없는 상품인데도 한국어 문구가 삽입된 것이 많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신발(운동화), 문구류, 도서류에 표기를 많이 하고 있다. 청소년용 신발 브랜드 POP TEEN은 광고 문구에 태국의 청소년을 모델로 하여 '좋아', '귀여워!', '너는?', '최고', '짱이다' 등 한국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를 삽입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현지에서 한국산 문구류는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한국산 제품이 아닌데도 문구점의 펜류 전시대에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등의 한국어가 표기 되어 있어 구매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6) 한국 아이돌, K-POP 가수의 태국 광고 시장 장악

태국 공영 방송이나 거리의 웹보드에 한국의 K-Pop스타를 기용한 광고를 흔히 볼 수 있다. 2NE1은 야마하 'Fiore 모터사이클', 장근석은 'OLE Beauty Collagen Candy', 빅뱅은 'Eversense', 'Cologne', 슈퍼주니어는 '12 Plus', 'Cologne', 2PM은 'Hanami 스낵', 이민호는 '던킨도너즈'와 'LG mobile', 닉쿤은 두뇌발달 촉진 건강음료와 'OPPO'모바일 폰, 포미닛은 건강 미용음료 'Scott Pure', 동해는 'Maxim contact lenses'등 한류스타들이 CF천하통일을 이루고 있

다. 아마하는 Fiore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모터사이클을 2NE1 멤버들의 개성 있는 외모 및 컬러풀한 노래와 매치시켜 광고를 보는 이로 하여금 빠져들게 만들었다. 다국적 기업인 던킨도너츠는 태국모델을 기용하지 않고 한국 던킨도너츠의 이민호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여 '맛있다'라는 한국어 멘트까지 살리고, 태국어로 '맛있다'에 해당하는 '아라이'를 자막 처리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나미(스낵) 같은 경우에는 2PM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하고 2PM 전원이 광고에 출연한다. 닉쿤의 BRAND CF에는 '댄스교본'이라고 한글이 적힌 장면과 배경에 한글을 삽입하여 닉쿤이 한류스타임을 부각하였다. 이는 태국 기업주들이 한류가 제품 홍보, 기업 이미지 및 판매 촉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지하고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더불어 '슈퍼주니어'의 최시원이 ACER 컴퓨터의 Presenter로 활동하게 되어, 태국 광고시장의 한류스타 대열에 가세하게 되었다. ACER 컴퓨터는 태국 내 노트북 시장 점유율 40%, PC 점유율 13%로 태국 컴퓨터시장 점유율 1위의 회사이다.

7) GS샵, 태국 홈쇼핑 시장 진출

지난 10월 5일 GS홈쇼핑의 한국-태국 합작사 '트루GS'가 태국에 개국했다. 이 회사는 태국 내 제 1의 미디어 그룹 '트루비전(True Visions)', The Mall 백화점 및 머매드 백화점 시암파라곤으로 알려진 '몰그룹(The Mall Group)', 태국 내 가맹점만 6,000여개가 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기업 'CP올(CP All)'이 각각 35:45:10:10의 비율로 출자하여 탄생했다. 각각의 기업은 방송, 제품 소싱, 유통을 담당하며 배송은 태국 내 편의점 세븐일레븐망을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해당 채널명은 '트루셀렉트(True Select)'로 트루비전(True Visions)방송사의 유료방송 채널 11번과 무료 위성방송의 전파를 타고 24시간 방송되며 태국 전역의 약 800만 가구로 송출된다. 기존의 TV 홈쇼핑 'TV Direct'는 미국에서 히트를 친 제품들의 방송을 그대로 가져다 태국어 더빙만을 해서 방송을 내보냈다. 반면에 '트루셀렉트(True Select)' 철저히 한국식 포맷을 따르고 있다. 이전의 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마치 한국의 홈쇼핑 방송을 연상케 한다. 쇼호스트와 제품 시연 모델이 함께 등장하여 쇼호스트는 제품을 설명을 하고 시연 모델은 직접 제품을 착용하거나 바르면서 사용법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인터뷰하여 시청자들에게 간접경험을 갖게 하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8) 현직 검사 태국 공주, 한국 형사 정책 벤치마킹

6월 3일 현직 검사인 태국의 공주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을 방문하여, 한국의 형사정책을 배우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태국 파차라끼디아 파 마히돌(32)공주는 푸미폰 아둔야땃 국왕의 첫째 손녀로 2005년 미국 코넬대

학교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한 뒤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일했으며 2006년 태국에서 검사로 임용되었다. 현재는 우돈타니 지방 검찰청 검사로 재직 중이다.

9) 태국 부라과 대학교 한국어 말하기 대회

태국 부라과 대학(총장 쏘폰 풍타이) 한국학 센터는 6월 23일 '평화의 세계화'를 주제로 '제 6회 태국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태국 5개 대학교 대표 15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 벌였다. 부라과 대학교는 11년 전부터 한국어과를 개설하여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 200여명의 한국어과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금년도 말하기 대회 1등은 쉐라빠껌 대학에 재학 중인 피라야 폴부리(한국어 전공, 4학년)양이 차지하였으며 상금 1만 바트와 서울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3주 언어연수의 기회가 부여 되었다. 현재 태국에는 총 7개 대학교에서 한국어가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열풍으로 한국어과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 전공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한국어에 어학연수를 가는 태국인이 많이 늘었으며 이를 증명하듯이 한국어 연수 전문 유학원도 생겨났다.

10) 국립중앙과학관, 태국 국립과학관과 양해각서 체결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은우)은 6월 24일 방콕에서 태국국립과학관과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 이번 체결을 통해 양측은 과학관 관련 과학전시, 교육, 연구, 인적자원 정보 및 사이버 과학관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한-태국 과학관 협력네트워크(가칭)'을 올 하반기에 발족하고 후속사업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세계과학관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11) SM-True 합작 연예 법인 설립

- 일시: 2011년 8월 16일
- 장소: 시암 캠프스키 호텔

한국 SM 엔터테인먼트와 태국 최대 인터넷, 위성 방송 복합 미디어 그룹 True Visions Group과의 합작 법인 SM True 조인식 및 기자회견이 있었다. 행사에는 한류스타인 강타도 Director로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방콕포스트, 타이랏, 데일리 뉴스, 채널 V 및 공영TV기자들의 취재가 몰렸으며 2부 행사에서는 태국에서 한창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룹 샤이니의 축하 공연으로 조인식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총 투자 금액은 약 2억 바트(7억 2천 만원)으로 102,000주가 발행되었으며, 태국 투자법에 따라 태국회사인 True Visions Group는 전체 투자

자본의 51%를 투자하고 SM 엔터테인먼트는 지분의 49%를 투자한다. SM True의 현지 CEO인 김영민 대표는 SM True의 설립으로 향후 SM 저작권 및 소속 연예인들의 음원, 콘서트 및 태국 내 모든 활동은 SM True의 이름으로 진행되며 닉쿤처럼 유망한 아이돌 스타를 발굴하여 육성하는 매니지먼트 에이전시도 함께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12) 제 24회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태국 실시

- 일시: 2011년 9월 18일
- 장소: 방콕한인국제학교 외

제 24회 한국어 능력시험이 태국 방콕에 위치한 한인국제학교, 북부 ‘이산 마하사라캄 국립대학교’, 남부 ‘송클라 국립대학교’ 3곳에서 실시되었다. 2011년 국내 외 24개국 108개 지역에서 8만1,076명 응시한 가운데 태국 응시자수 915명으로 전년도 853명 대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태국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대만, 베트남 다음으로 많은 응시생이 시험을 치렀다.

13) 쇼핑몰 홍보 행사에도 한류 바람

대형 백화점 그룹인 ‘The Mall Group’의 백화점에서 한국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한국 상품 판매 증진 마케팅 행사 ‘The Mall Korea Delight’를 마련하여 성공을 거둔 이후 태국의 유명 쇼핑몰에서는 쇼핑몰 소속 마케터들이 한류와 관련된 자체 행사를 펼치며 쇼핑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이외에도 방콕의 금융 업무지역인 ‘사톤’에 위치한 쇼핑몰 ‘CITY VIVA’는 8월 한 달간을 ‘The march of Japan & Korea’ 컨셉으로 프로모션 행사를 개최했다. 쇼핑몰 내 외국인을 위한 슈퍼마켓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한국, 일본 식품의 기획 판매전을 열고 일식 레스토랑에서는 할인 프로모션이 펼쳐졌다. 더불어 K-Pop커버댄스 대회도 함께 열어 프로모션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가 하며 방콕 ‘랑싯’지역의 최대 쇼핑몰인 ‘Future Park’는 개점 16주년을 맞이하여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Exciting Korea’행사를 준비했다. 23, 24일의 행사에는 ‘드럼캣’이 초청되어 공연을 펼쳤으며 9월 30일, 10월 1일 양일간 코믹 액션 무술 뮤지컬 ‘JUMP SHOW’의 공연이 열렸다.

14) 주 태국 한국 대사관, 한국어 교사 54명 태국 지원

태국 중, 고등학교 54곳에 한국어가 제 2외국어로 채택되어 9월말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의 지원을 통해 방콕을 비롯한 태국 전역에 한국어 교사 54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한국에서 정규 교원시험을 통과한 정규 교사들이며 태국 정부는 보수의

일정액을 지원하고 숙소를 제공한다. 이로써 태국 내에는 한국어학과가 정규로 설치된 7곳의 대학 외에도 선택과목으로 설치된 20여개의 대학교 및 중, 고등학교 54곳 등 정식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만 80여 군데가 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한국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6월 태국 정부는 사병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기 위해 주 태국 한국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제대 후 한국의 일손이 부족한 분야로의 취업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병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필수적이므로 군 복무 기간 동안 한국어를 배워 제대 후 해외취업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15) 한국 수학 교육 프랜차이즈 열풍

한국 수학 교육 프랜차이즈인 ‘왕수학 교실’은 태국에 상륙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아 70개의 지점이 태국 전역에 열렸다. 태국 방콕 구(區)는 모두 51개로 방콕 전역과 주요 지방도시에는 대부분 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수학 교실’은 교사가 제시하는 다양한 풀이방법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수업 방법으로 기존의 주입식 교육 방법과는 확연한 차이를 주기 때문에 태국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대교의 해외 프랜차이즈 ‘E-Nopi (눈높이)’가 한국어 교육, 한자 교육 학습지와 함께 많은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어 한국식 교육법의 인기몰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16) 48년 역사의 방콕 한인 토요학교, 2011학년도 졸업식 개최

2011년 8월 19일 다문화가정 자녀와 현지교민 자녀의 한글교육을 위한 방콕 한인토요학교의 졸업식이 방콕 한국국제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어 유치부 12명, 초등부 8명, 중등부 2명, 총 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1964년에 개교한 한인 토요학교는 태국 내 한인들의 한글교육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지 교민 자녀들을 위한 한글교육과 역사교육, 정체성 교육을 위해 설립된 공간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국어와 수학 등 한국의 정규과정을 가르치며, 졸업자에게는 한국 대학 입학 시 특혜가 주어지며 지난 40여 년간 약 1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 하였다.

2011 베트남 한류 동향 보고

베트남 / 하노이
웬민옥 통신원

◆ 총 평

베트남에서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분야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음악은 K-Pop과 관련된 많은 활동들이 뜨거운 호응 속에 치러지면서 큰 성과를 얻었다. 베트남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깝지는 않지만 전통적 가치 및 문화면에서 서양 문화보다는 크게 이질적이지 않아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의 한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사랑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지난해에 이어 2011년에는 가족 구성원들간의 관계, 우정, 사랑 등 일상적인 주제를 다룬 한국 드라마들이 많이 방영되며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2011년에는 <주몽>의 한혜진, <꽃보다 남자>의 김현중,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의 김혜수 등 베트남에서 인기 있는 한국 배우들의 베트남 방문이 있었다. 베트남 시청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한류 스타들의 베트남 방문은 확실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가깝게 느끼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2011년 베트남에서 방영된 한국드라마>

방송사	작품명	첫 방영일
국영방송 VTV	파트너	2월 22일
	아내의 유혹	3월 6일
	카인과 아벨	5월 3일
	자명도	7월 26일
	수상한 삼 형제	8월 28일
	난 네게 반했어	9월 28일
	동안미녀	10월 10일
	천추태후	11월 8일
	아빠 셋 엄마 하나	11월 24일
하노이방송	미우나 고우나	1월 1일
	겨울새	4월 5일
	내조의 여왕	4월 8일
	8월에 내리는 눈	8월 22일
	불한당	8월 24일
	9 화말 2 아웃	9월 3일
호치민방송	A man called God	3월 6일
	타짜	5월 9일
	아직도 결혼하고 싶은 여자	7월 28일
	Dream high	9월 3일
	남자 이야기	11월 6일
	돌아온 일지매	11월 18일
디지털방송	내사랑 못난이	4월 17일
	며느리 전성시대	4월 24일
	아가씨를 부탁해	6월 28일
	아이리스	8월 4일
	온에어	10월 26일

2. 영화산업

한국 영화는 드라마처럼 많이 상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 눈길을 끈다.

<2011년 베트남에서 상영된 한국영화>

영화 제목	개봉관	개봉일
심야의 FM	호치민시 BHD 시네마	1월 7일
헬로우 고스트	호치민 롯데 시네마	3월 18일
전국의 우편 전달부	전국 극장	6월 15일
19	호치민 롯데 시네마	8월 5일
체포왕	전국 극장	8월 19일

통증	하노이 메가 스타 극장	9월 16일
렉	하노이 메가 스타 극장	10월 7일
최종병기 활	전국 극장	11월 2일

3. 음악 산업

올 한해 베트남에서는 ‘360kpop.vn’, ‘2sao.net’, ‘kenh14.vn’, ‘VCTV3’, ‘Yan TV’ 등 K-Pop과 관련된 여러 사이트나 TV채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 K-Pop의 인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또한 K-Pop 가수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K-Pop 베트남 팬들은 슈퍼 주니어, 2AM, JYJ, 2NE1 등 한국의 인기 그룹들의 공연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만큼 공연장에서의 열기도 대단했다. 아이돌 그룹의 정식 공연 외에도 베트남 팬클럽들이 펼친 오프라인 활동들도 눈에 띈다. 1년 간의 준비 끝에 슈퍼주니어 팬들이 펼친 대형 규모의 오프라인 모임, JYJ나 2NE1 팬들의 플래시몹 행사 등이 있었다. 팬클럽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아이돌을 위한 다양한 환영 행사 및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어-베트남어 노래자랑 대회, 원더걸스 커버댄스대회, 2NE1의 히트송 ‘I’m the best 커버댄스 대회’, ‘Best Fan Forever 대회’ 등 국내·외에서 개최되었던 콘테스트들도 베트남 팬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베트남 팬들도 ‘K-Pop, 서울 세계대회 베트남 대표 선발전’, ‘2NE1의 히트송 커버댄스대회’ 등 큰 규모의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한국으로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과 다른 국가에서 온 팀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처럼 베트남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성향이 있다.

<2011년 베트남에서 한국 아이돌그룹의 공연>

가수/공연명	일시	장소
슈퍼주니어 / 슈퍼쇼3	5월 7일	Binh Duong 성 Go Dau 운동장
2AM / Tal with 2AM	6월 10일	하노이시 My Dinh 운동장
JYJ / 박지성이 출전한 팀과 나비뱅크 사이공FC의 자선 경기에서 축하공연	6월 15일	호치민시, Thong Nhat 경기장
2NE1 / Going Together Concert in Vietnam with 2NE1	11월 18일	하노이시 국립컨벤션센터

4. 공연/전시 산업

전시회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비롯하여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2011년에는 ‘한국전통문화알기-실과 천의 유혹’, ‘베트남에서 한국 일러스트레이션 학회의 작품 소개’, ‘제2회 한-베 국제 미술교류전’, ‘삼인삼색’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해당사항 없음

6. 한스타일

베트남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한국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외에 다른 다양한 활동들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한국어를 배우는 베트남 사람의 수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학교의 정규 과정 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센터가 계속해서 설립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만 보아도 베트남에서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보편화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한편 베트남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면서 한국어 능력은 기업에 취직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열풍을 불러일으킨 요인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말에 개최된 ‘2011년 베트남 한글사랑 대학연합 축제’에서는 전국의 한국어과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며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아 볼 수 있었던 유익한 기회였다.

베트남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 드라마, 영화만을 통해서 한국음식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노이, 하이퐁, 호치민시 등의 대도시에서 쉽게 한국식당을 찾아 접할 수 있다. 올해 개최된 인삼축제, 한-베 음식문화축제는 한국 음식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하노이나 호치민시에는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이 아닌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이 외국이 아닌 자국에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식당을 비롯한 한국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가 밀집된 지역이 있다.

그리고 한국은 베트남 사람에게 매력적인 여행지이기도 하다. 2011년 1월~10월까지 방한한 베트남 관광객은 9만 9백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잘 파악하여 지난 4월 하노이 지사를 열고 의료관광, 컨벤션관광 등 다양한 관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제주도와 베트남의 하롱베이(Ha

Long Bay)가 뉴 7월더로 선정되도록 양국이 협력하여 실시했던 홍보 캠페인들도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현재 한-베 가정 수가 많아지고 이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계속 늘어 날 전망이다. 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나라인 한국과 베트남 양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부모들 역시 자녀들에게 엄마와 아빠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부부간에도 한국어와 베트남어가 서로 익숙하지 못하다보니 이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서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베 전래 동화책’ 2회가 발간되었다. 한-베 가정의 부모들과 자녀들이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손쉽게 이해하고 옛 조상들이 품었던 감성을 공유하기 위해 발간된 이 책은 앞으로도 양국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기를 기대해본다.

2011 인도네시아 한류 동향 보고

인도네시아/자카르타
신진세 통신원

◆ 총 평

2011년 상반기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영화 산업 개발사인 '21Cineplex'가 헐리우드 영화 수입을 중단하면서 그 여파로 블록버스터 상영 중단 파동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재정경제부 및 외국인 투자 산업에 대한 보호 리스트를 작성하는 투자조정위원회가 인니 영화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내 각 산업분야에 있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투자 산업 보호 리스트는 외국 자본사이에서 악명 높은 대표적인 자본 규제 리스트이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인도네시아 자국민과 인니 영화 시장이 현지 독점 기업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투자조정위원회가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헐리우드를 비롯한 외국 자본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는 외국계 자본은 바로 한국의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은 인도네시아 언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전역에 100여개의 롯데시네마 상영관을 설치한다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리아, 엔제리너스에 이어 롯데시네마의 인도네시아 진출 가능성이 커진 롯데 그룹은 지금까지 B2B 중심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던 한국 기업과는 다르게 B2C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구체화 시키는 데 있어서 큰 몫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인의 소주 밀수 사건이 인도네시아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한

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술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소주에 대한 잘못된 애정과 과도한 사랑으로 인해 벌어진 이 사건은 한동안 현지인들과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가십거리를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현재의 한류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번 사건이 현재의 한류 열풍에 큰 악영향은 없었지만 소주 밀수 사건은 과거부터 일정기간을 주기로 벌어져 온 일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류에 타격을 입힐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Indosiar’는 12월 9일부터 MBC 드라마 <분홍립스틱>을 상영하면서 명실상부 한국 드라마 방송 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한류 양상이 과거의 드라마, 영화 부분에서 한류 가수 중심, 이와 연계한 한국 기업의 인니 진출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 시청률 3~40%를 넘나드는 대작은 나타나지 않지만 오히려 한류 드라마의 고정 팬 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 수동적으로 방송국에서 방영해주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던 것에서 벗어나 시청을 원하는 드라마에 대해 방송국 사이트에 글을 남기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 관련 팬 블로그 및 야후 클럽 등을 만들면서 팬들간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작년에도 인도네시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작품명: 오랑꼬레아의 아리랑-남겨진 가족들)으로 KBS의 서울프라이즈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던 K-TV가 올 해에도 <황금을 캐는 집시들>이라는 인니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동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본 다큐멘터리에 대한 인니 공중파 또는 유선 방송의 방영 계획은 아직 없지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인니 방송 관련 행사를 자주 개최하는 우스마르 이스마일 기념관에서 본 시상식에 대한 기념식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한국계 교민들의 인니에 대한 관심과 영상 제작물의 깊이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재조명 받고 있다.

2. 영화 산업

지난 8월, 상반기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수입 제한 조치가 풀리면서 그동안 상영 될 수 없었던 헐리우드 영화의 순차적 상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영화를 비롯한 일본, 태국, 발리우드 영화의 상영은 당분간 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10월 한국 문화 주간 행사로 1주일 동안 간다리아몰 21Cinema 극장에서 <김종국 찾기>, <하모니>, <맨발의 꿈>, <포화속으로>가 상영되어 현지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현재 한국 문화원 강당에서는 매주 목요일 한국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부터 5일까지는 롯데시네마 후원, 한국 대사관 및 한국문화원 주최로 21Cinema 정규 극장에서 한국영화제를 열어 올 해 한국 흥행작이었던 <최종병기 활>, 전도연 주연의 <오늘>, 장근석 주연의 <너는 펫> 3편의 영화가 3일간 총 8회 상영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 상반기에 있었던 헐리우드 영화 수입 제한으로 인해 극장가가 큰 파행을 겪은 뒤 해당 산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는 영화 배급, 영화 수입 업종을 외국인 투자 금지 산업 종목으로 지정하여 외국계 자본이 영화 상영, 영화 배급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올해와 같은 파행이 다시 한 번 재발할 것을 우려하여 영화 산업의 외국인 투자 금지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롯데시네마는 가장 큰 관심을 표하고 시범적으로 한국영화제를 추진했다.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롯데시네마에 대한 홍보에 들어가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도 롯데시네마의 인니 진출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향후 인니 전역에 롯데시네마의 상영관 설치를 시사하며 앞으로 롯데시네마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진출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영화 부분에서의 한류는 상반기에 있었던 헐리우드 영화 상영 제한 조치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없었던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 이 기간을 틈타 볼리우드 영화, 일본 영화, 심지어 태국 영화들까지도 인니 현지인 팬들에게 상당수 이름을 알릴 수 있었던 것과 크게 비교된 한 해였다.

3. 음악 산업

‘2PM 헨즈업 아시아투어’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전 매체의 큰 관심 속에 공식 팬미팅과 공연이 개최되었다. 전체 5,000석 중에서 인터넷으로 예매가 진행된 3,000석은 15분 만에 매진되어 실제 공연과는 별개로 매진 속도만으로도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11월 26일에 계획되어 있던 씨엔블루의 공연이 공연 며칠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어 이미 표를 구매한 많은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다른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공연 날짜에 임박하여 취소가 되는 등의 돌발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지만 한국 가수들의 경우에는 올 초 JYJ에 이어 씨엔블루가 공연을 취소함으로써 앞으로 타 가수들의 공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이번 취소도 현지 대행사가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급작스럽게 취소하여 씨엔블루의 대외 이미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팬들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어 혼란을 주고 있다.

200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한국 문화 주간 행사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어 인도네시아인들의 많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저개발국가의 특성상 여가를 즐길 거리가 마땅치 않은 현지인들에게 한국 문화 주간 행사는 매년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9월 28일부터 29일까지는 K-Pop 경연대회, 한국 퍼포먼스 그룹인 ‘드림캐트’의 공연도 많은 인기를 모았다. 이날 입상한 수상자는 11월 27일 발라이 까르띠니 행사장에서 열린 한인 문예총 종합 예술제에서도 공연을 펼쳐 많은 한국 교민들과 행사장을 찾은 현지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4. 공연/전시 산업

한국 문화주간 관련 공연 및 전시행사로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스나얀 실내테니스 경기장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문인화 26인 초대전’, 10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식페스티벌’, 10월 2일 전주대학교 한복진 교수팀의 한식 특강이 간다리아 롯데마트에서 진행되었다. 이밖에 10월 1일부터 2일까지는 한국 농식품 홍보를 위한 판촉전이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인 예술인들이 총출동하여 진행한 한인 문예총 종합예술제가 11월 27일 하루 동안 ‘발라이까르띠니’에서 진행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국인 교민 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합창단, 인도네시아 전통 댄스 공연단도 참가한 가운데 많은 현지인 관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한국 커뮤니티의 모습을 알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한국의 K-Pop이 해외에서 거두고 있는 성공과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인니 진출 소식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이 주최하는 상업적 성격의 K-Pop 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현지 연예 기획사인 Nagaswara사의 주최로 자카르타컨벤션 센터에서 ‘Jakarta-Korea Festival’이 열렸다. 주최측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벤치마킹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아이돌 가수를 데뷔시킨 바 있다. 해당 가수들인 ‘Mr. Bee’, ‘Treeji’, ‘S9B’, ‘Drangon Boyz’, ‘Hitz’, ‘6 Starz’, ‘Fame’, ‘B5t’이 본 행사에 출연하여 무대를 함께 장식했다. 행사에는 한글 소개 영상 상영, 한복 스튜디오 운영, 전국 댄스 대회, K-Pop 컨테스트, 한국 스타와 비슷한 사람 꾸미기 대회 등이 열려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한류의 인도네시아 정착에 있어 인도네시아인들이 자발적으로 한류 열풍을 확산시키는 행사를 기획하고 또 상업적으로도 성공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는 행사였다.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한국계 게임 퍼블리셔인 크레온에서는 한국 온라인 게임 ‘로스트 사가’의 동시접속자수 3만 5천명으로 초과 달성하며 자사의 기록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소 퍼블리셔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진출이 이루어졌지만 내년부터는 한국의 대기업 계열 인터넷 게임사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가 생활과 범위가 마땅치 않은 현지인들에게 PC방과 온라인 게임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한국의 대기업들도 인도네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 진출 결정의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나 시장 선점 효과가 큰 게임 업계인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한국계 게임 회사의 인니 진출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6. 한스타일

과거에는 한국 가수,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중심으로 상업적인 부분에서만 한류가 드러나는 느낌이 강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인도네시아인의 생활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한류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한류에서 참신함을 느끼고 더 깊이 있는 한국의 모습을 알아가고 연구해 보고자 하는 현지인들이 늘어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도 특정 기관 단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알기가 힘든 한국의 자수 문화전이 인도네시아의 국립 박물관에 초대 전시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민들보다는 오히려 현지인들이 훨씬 많이 찾은 이 행사는 한국 고유의 자수 문화를 알릴 수 있었던 소중한 행사였다.

이밖에도 한인문예총의 종합예술제 당시 참가했던 한국의 공연 단체들은 3시간에 걸친 공연을 선보였고, 나머지 문인화 단체, 한국 꽃꽂이 협회 등은 자카르타 중심가에 위치한 발라이 까르띠니 2층 전체에 작품을 전시하여 한국의 다양한 이미지를 현지인과 제 3외국인 커뮤니티에 선보였다.

2011 말레이시아 한류 동향 보고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김지연 통신원

◆ 총 평

2010년 말레이시아의 한류가 아이돌 및 보이밴드를 주축으로 폭발적인 성장, 한말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된 다양한 행사, 이명박 대통령의 방말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면, 2011년은 한 층 높아진 한류의 위상을 좀 더 다양화 하고 구체화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교 분야에서 말레이시아 측에서는 마하티르 전 총리를 비롯해 나집 현 총리, 미잔 자이날 아비딘 국왕이 방한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방말하여 양국간 협력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관광분야에서는 제주도의 세븐원더스 홍보를 위해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각종 설명회 및 홍보행사를 기획하였다. 실제로 관광객 통계를 보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한국관광객은 작년에 비해 12% 정도 증가한데 비해,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50% 증가해 큰 성장을 보여 집중적인 홍보가 성과를 거두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여행은 여행사의 인기패키지로 자리 잡았고, 휴가동안 한국여행을 계획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어를 배우는 말레이인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식품분야에서 경기도, 충남, 경북 등 다양한 지자체에서 해당지역 농특산물 품평회 및 홍보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였다. 작년에 비해 농특산물 홍보회가 크게 증가한 점은 긍정적이나, 아직 현지인들의 관심을 끌 획기적인 마케팅이 없어 현지인들의 한국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종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양한 기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식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문화산

업에서는, 작년에 이어 한국의 아이돌 밴드를 중심으로 인기 그룹 및 솔로싱어들의 방문 및 공연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작년 사소한 반한류 사례들이 있었으나 한류에 위기를 초래할 만한 심각한 사안은 없었으며, 올해에도 큰 반한류 분위기 없이 한류스타들의 꾸준한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계속되는 한류스타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음반 및 DVD 등 부가수익은 미미한 상황이다. 또한 영화 및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도 큰 성장 및 활동이 없는 상황이다. 높은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비해 한국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언어 및 장르의 영화가 개봉되는 말레이시아 영화산업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쉽지 않은 극장개봉에만 치중하지 말고 소규모 상영회 등을 자주 개최하여 한국 영화를 먼저 접하고 그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KOTRA에서 2011년 9월에 조사한 글로벌 한류동향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미얀마,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한류성장단계로 분류된다. 이 보고서는 한류의 동향을 미도입단계, 도입단계, 인지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로 나누었는데, 성장단계는 한류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인기가 있으며 일반인 대상으로 한류 관련 상품의 판매가 도입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교적 큰 위기 없이 성장단계를 맞은 말레이시아의 한류가 지속적으로 그 지평을 넓혀 성숙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방영 채널	방영일 및 방영시간	방영 내용	방영시기
8TV 공중파, 민영방송	매주 토요일 (18:30 ~ 20:00)	메리는 외박 중	2011년 상반기
	매주 토요일 (06:50 ~ 07:50)	베토벤 바이러스	2011년 상반기
	매주 토요일 (18:30 ~ 20:00)	드림하이	2011년 하반기
	월-목 (15:00 ~ 16:00)	아가씨를 부탁해	2011년 하반기
NTV7 공중파, 민영방송	월-금 (00:00 ~ 01:00)	커피프린스	2011년 하반기
Astro KB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라마 <우리집 여자들>, <공주의 남자>, <다함께 차차차>, <착한여자 백일홍>, <사랑하길 잘했어>, <오작교 형제들>, <우리집 여자들>, <드라마스페셜>, <동안미녀>, <사랑을 믿어요>, <그들이 사는 세상>, <행복한 여자>, 		

유료 위성채널	<근초고왕>, <착한여자 백일홍>, <로맨스타운>, <꽃보다 남자> 등.
	• 다큐멘터리 <인간극장>, <다큐멘터리 3일>, <VJ 특공대>, <걸어서 세계속으로>, <생로 병사의 비밀>, <역사스페셜>, <과학카페>
	• 버라이어티 <자유선언 토요일>,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 <개그콘서트>, <1박2일>, <해피투게더>, <천하무적 토요일>, <남자의 자격>, <출발드림팀 시즌2>, <비타민>, <해피선데이>, <도전골든벨>, <연예가중계>, <6시 내고향>, <여유만만>, <러브인아시아>
	• 음악 <열린음악회>, <가요무대>, <뮤직뱅크>, <콘서트7080>, <전국노래자랑>, <유희열의 스케치북>
Astro ONE HD 유료 위성채널 HD전용	<러닝맨>, <히어로즈>, <김정은의 초콜릿>, <유리성>, <두 아내>, <사랑은 아무나 하나>, <스타킹>, <K-Pop Countdown>, <강력반>, <49일>, <무사 백동수>, <인기가요>, <며느리와 며느님>, <장미의 전쟁>, <강심장>, <시크릿가든>, <패밀리가 간다>
Astro Disney Junior	Pororo The Little Penguin, 매일 본방 1회, 재방 3회 Dibo The Gift Dragon, 매일 본방 1회, 재방 2회

2. 영화 산업

해당 사항 없음

3. 음악 산업

(1) Digi Live K-POP Party, 비스트, 4Minute, G.Na 합동공연

1월 13일 스타디움 네가라에서 규브엔터테인먼트 소속의 그룹이 합동공연을 펼침. 말레이시아 대형통신업체인 DIGI에서 주최하고 유니버설 뮤직 말레이시아에서 후원. 천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한 시간 정도 공연. 말레이시아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류스타인 비스트의 팬들이 대다수를 이룬 가운데, 신인인 G.Na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팬들을 사로잡음.

(2) 배우 장혁, 드라마 'MIDAS' 말레이시아 프로모션

3월 Astro를 통해서 방영될 드라마 'MIDAS'의 홍보를 위해 배우 '장혁'이 말레이시아를 방문. 1월 18일 Ritz Calton 호텔에서 주요 언론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짐.

(3) 슈퍼주니어, ‘Super Show 3’ 개최

말레이시아 한류 1세대인 슈퍼주니어가 세 번째 말레이시아 콘서트를 가졌다. 3월 19일 부킷자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9500석을 가득채운 팬들의 성원 가운데 세 시간 가량 공연을 진행.

(4) 비, 말레이시아 F1 Post Race Party 공연

말레이시아의 국제 장거리 자동차 경주대회인 Formula 1 Malaysia Grand Prix의 Post Race Party 공연 아티스트로 비가 초청되어 4월 10일 공연을 가짐. 지금까지 F1 Post Race Party에는 Jamiroquai, Wyclef Jean, Fatbot Slim 등 영미권의 탑 가수가 초청되었음을 감안하면 말레이시아에서 ‘비’를 비롯한 한류가수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월드스타의 위상에 걸맞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F1의 대미를 장식하며 완벽한 무대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5) 세븐, 아시아 뮤직 페스티벌에 한국대표로 초청

4월 30일 개최된 Asia Music Festival에 한국대표로 ‘세븐’이 초청. Asia Music Festival은 7개국으로부터 25팀에 이르는 가수를 초청하여 10시간 동안 텔레비로 진행된 초대형 콘서트. 세븐은 말레이시아 음반사인 Halo Music Malaysia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준비를 마친바 있다.

(6) Fly FM, Fly Access Party-‘K POP Party’ 개최

현지 유명 라디오 스테이션인 Fly FM에서 청취자와 DJ들의 교류를 위해 매달 개최하는 Fly Access Party 4월 Party가 K-POP특집으로 꾸며짐. Bangsa 지역의 한 클럽에서 4월 23일 진행된 파티에는 200여명의 한류팬과 Fly FM 소속의 유명 DJ들이 한류가수들의 인기곡들로만 파티를 진행하며, 한류가수에 관한 정보를 교환.

(7) Super Junior M 공연

5월 27일, 말레이시아 청소년의 날 행사에 Super Junior M 이 초청되어 Putra Jaya에서 축하공연을 가짐.

(8) Halo! YG Day

Party 4월 Party가 K-POP특집으로 꾸며짐. Bangsa 지역의 한 클럽에서 4월 23일 진행된 파티에는 200여명의 한류팬과 Fly FM 소속의 유명 DJ들이 한류가수들의 인기곡들로만 파티를 진행하며, 한류가수에 관한 정보를 교환.

(9) Korean Music Wave 2011개최

9월 28일 메르데카 스타디움에서 개최. 빅뱅, FT ISLAND, Teen Top, 4Minute,

U-KISS, 박정민 등이 출연. 유키스의 멤버인 캐빈과 동호의 사회로 진행

(10) 김현중 팬미팅 겸 악수회

8월, '더 페이스샵' 홍보를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으나 '900초 팬 미팅'을 마련하여 팬들과 악수를 나누는 악수회를 개최. 주요 쇼핑몰 내 '더 페이스샵'을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펼침.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며 성황리에 마무리.

(11) 비스트 콘서트

7월 1일 선웨이라군 Surf Beach에서 5천 여명의 팬들의 성원속에 콘서트 개최. 비스트는 데뷔와 동시에 찾은 말레이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어 아시아권 스타로 승승장구 하고 있어, 이번 아시아 투어의 시작을 말레이시아로 선택. 공연 중 멤버 윤두준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도 진행.

(12) 비스트, MTV World Stage Live in Malaysia 한국 대표로 초청

7월 24일 아이시티에서 개최된 MTV World Stage Live in Malaysia에 한국대표로 초청되어 3만여 명의 아시아 팬들의 환호속에 공연. 총6곡을 공연하였으며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초청된 글로벌 스타들과 함께 뜨거운 반응을 얻음

(13) 헨즈업 아시아 투어 라이브 말레이시아 2011

11월 25일 스타디움 네가라에서 2PM 라이브 콘서트 개최

(14) SS501 출신 박정민, Hennessy Artistry Party 참석

마인즈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11월 12일 개최된 Hennessy Artistry Party에 그룹 SS501 출신 가수 박정민이 화려한 무대를 장식. H-Artistry Malaysia는 주류제조사인 Hennessy 가 브랜드 마케팅을 위해 주최하는 파티로서, 이번 행사에는 박정민 외에 미국의 Chris Willis, 대만의 Landy Wen, Yolanda Be cool, DJ Goldfish&Blink등이 참여. 행사에 앞서 11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통역 없이 중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함

4. 공연/전시 산업

(1) 한국관광공사, R16 비보이 동남아 예선전 개최

R16 비보이 대회는 한국관광공사가 서울에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세계 4대 비보이 대회로 자리 잡은 메이저 대회임. 서울에서 개최되는 R16 출전을 위한 동남아 최종예선이 6월 11일 KL에서 치러짐. 예선통과자들은 7월 한국에서 개최될 최종결선에 진출.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남 등 7개국에서 최종 선발된 8개 팀이 경합을 벌였으며, 결선티켓은 대만팀에게 돌아감.

(2) Malaysia K-POP Hitz Talent Show 개최

한국관광공사 KL 지사와 말레이시아 위성방송서비스 사업자인 Astro의 주최로 개최.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 4차례의 예선을 통해 총 8팀을 선발, 7월 15일 최종선발전을 통해 선발된 팀에게 한국 관광의 기회를 제공. 전체 예선과정 과정 및 최종선발전, 우승팀의 한국방문 내용까지 모두 Astro Hitz 채널을 통해 매주 금요일 방영됨.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한국을 방문. 방문 기간 동안 K-POP 프로그램(M카운트다운) 참관, 롯데월드 공연, 한류관련 명소 취재, MissA와의 인터뷰 등을 진행. 투어내용을 취재한 프로그램이 8월 10일 Astro Hits 채널을 통해 한 시간 동안 방영됨.

(3) 제주, MICE Night

3월 6일 Crown Plaza Hotel에서 한국관광공사 KL 지사와 제주광역경제권 선도 산업지원단의 공동주최로 제주 MICE 산업인프라를 홍보하는 Mice Night을 개최. 현지 MICE 관련 기관 및 업체를 초청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냄.

(4) 말레이시아 관광청 하이 서울 페스티벌 참여

5월 7일~8일, 서울광장 일원에서 진행된 '2011 하이 서울 페스티벌' 축제의 '2011 지구촌 한마당' 행사에 참가.

(5) 어메이징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9월 9일 -13일 5일 동안 폐낭 거니 플라자에서 어메이징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 9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이용준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 림 구안 앵 폐낭 주 수상, 윤재진 한국관광공사 KL 지사장 이광선 한인회장 등이 참석. K-Pop의 열기를 한국제품 소비로 이어가고자 기획된 이번 행사는 한국에서 수입된 농산물과 가공식품, 전자식품, 자동차, 화장품과 여행패키지까지 전시 및 판매. 현지 한류 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막식에는 현지 아마주어 그룹의 K-pop 공연, 20여 팀이 참가한 K-Pop 경연대회, 태권도 시범 등이 진행됨.

(6) SBS 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 코리아 뮤직 페스티벌

9월 17일-18일 저녁 8시, 겐팅 하이랜드에서 K-POP스타와 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이 어우러진 뮤직페스티벌이 개최. 여성4인조 팀인 주얼리를 비롯한 한류가수들과 SBS크로스오버 오케스트라가 참가하여 한국 퓨전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공연을 선보임.

(7) 제8회 청소년 예능한마당 개최

9월 24일, UCSI 대학교와 재미한인회의 공동주최로 UCSI 대학교에서 개최. 말레이시아 현지 청소년팀과 한인 청소년팀들이 함께 참가한 뜻 깊은 행사. 500여 명의 교민을 포함한 약 10여 팀의 현지 청소년 및 한국청소년 팀이 참가.

(8) 말레이시아 관광객을 위한 제주홍보영상물 제작

제주관광공사는 말레이시아 현지 유력 온라인 여행정보매체인 '12 Fly 아이패드 (I-Pad) 매거진'과 공동으로 제주 관광을 홍보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추진. 말레이시아 유명 모델이 포함된 말레이시아 촬영 팀은 지난 9월 5일 제주에 도착해 사흘간 제주의 자연경관과 한류 드라마 촬영지 등 동남아 선호 관광지를 카메라에 담았으며, 해당 영상은 11월 경 배포될 예정

(9) 말레이시아 관광객을 위한 제주관광 설명회 개최

8월 10일 제주관광공사는 쿠알라룸푸르 한국관광공사 코리아플라자에서 현지 주요 여행사와 언론인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주관광 설명회를 개최. 설명회 이후 여행 관련자들과 언론의 많은 질문이 쏟아져 현지의 제주 관광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줌.

(10) 말레이시아 한인회 '제2회 한국인의 날' 개최

11월 4일~6일 한인밀집 지역인 암팡 코리안 타운에서 '제2회 한국인의 날' 개최. 한국교민과 현지인 및 외국인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한국국악협회 말레이시아 지부에서 '화관무, 웃다리, 길군악, 부채춤, 사물놀이' 등 전통공연을 준비하여 교민 및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충남 당진군의 2011년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해나루 쌀, 해나루 사과, 호박 고구마 등의 농특산물도 큰 인기를 끄.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Astro Disney Junior 채널에서 '뽀로로와 친구들', '선물공룡 디보'가 매일 방영됨.

6. 한스타일

(1) 한국관광공사 KL 지사 Make up Workshop 개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 협찬으로 Make up Workshop 개최. 무료로 개최되는 Make up Workshop은 한국관광공사 KL 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시즌별로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의 트렌드를 알고자 하는 말레이시아 한류팬들 사이에 인기를 모음.

(2) 금산인삼 브랜드 ‘금홍’ 말레이시아 진출

4월 26일에서 5월 1일까지 ‘금홍’ 말레이시아 론칭 행사 개최. 말레이시아 재정 부 차관,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 관광공사 지사장 등이 참석하여 한국의 전통식품인 금산인삼의 말레이시아 론칭을 축하.

(3) 경상북도 명품사과 및 우수 농산물 판촉전 개최

4월 23일 KL 최대의 명품쇼핑몰인 Pavilion에서 경북매일신문의 주최로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 농산품 판촉전’ 개최.

(4) 마하티르 전 총리 겸 교육부 차관 방한

2월말 글로벌 코리아 참석을 위해 3일 동안 한국을 방문. 글로벌 코리아 참석 외에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 간 우호 협력 증진을 약속.

(5) 2011 경기도 농식품/막걸리 홍보 판촉

7월 22일~31일 한인슈퍼마켓과 경기도가 함께 경기도 농식품, 막걸리 홍보 판촉행사를 가짐. 경기도 농정과장,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경기농림진흥재단 농업마케팅부 과장, 우리술 대표이사, 재마한인회장 등이 참석.

(6) 박희태 국회의장 말련의장 방문

9월 28일 박희태 국회의장 말련방문, 나집 총리와 경제 동반 성장을 위한 회동을 하였으며, 양국 간 관광 및 유학생 증가에 대한 고무적인 대화를 나눔

(7) 말련 국왕, 한국방문

미잔 자이날 아비딘 말레이시아 국왕부처가 이명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7월 19일~20일 양일 간 한국을 국빈 방문. 20일 정상회담 및 공식만찬에 참석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동포 간담회 및 경제4단체장 주최 오찬, 삼성전자 수원공장 방문 등의 일정을 수행.

(8) ‘2011년도 충남 공주시 농특산물 해외 홍보 판촉 행사’ 개최

공주시, 농업중앙회 공주시 지부, 공주원예농협이 주최한 ‘2011년도 충남 공주시 농특산물 해외 홍보 판촉 행사’가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일간 진행됨. 한인밀집지역인 암광과 몬키아라 지역의 마켓에서 행사 매장별로 특설 판매대를 설치 운영.

(9) 제6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주말레이시아 대사관이 주최하고 헤닉권, 한국관광공사, 삼성전자가 후원하는 제 6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11월 10일 오전 10시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에

서 진행됨. 말레이시아 교육부 고등교육부서 카틸 국장, 이용준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VIP로 참석. 총 50여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16명이 본선에 진출. 한국행 왕복 항공권이 주어지는 대상은 UiTM 재학생인 ‘아마드 줄까말’이 차지.

(10) 방한 나집 총리, 이대통령과 정상회담

4월 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나집 말레이시아 총리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통상, 과학기술, 에너지 등 양국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11) 말레이시아 영화 <Have...you?> 한국 촬영 유치

한국관광공사는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관광 매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쿠알라룸푸르 지사와 현지 영화사의 공동 기획으로 말레이시아 영화의 한국 촬영을 유치. 말레이어로 제작되어 현지 영화 배급사를 통해 상영될 <Have...you?>는 일산호수공원에서 이미 첫 촬영을 시작하였으며, 남산, 월드컵공원, 파주 헤이리 마을, 대관령 등에서 촬영 될 예정.

2011 몽골 한류 동향 보고

몽골 / 울란바토르
몽흐자르갈 통신원

◆ 총 평

2011년 몽골과 한국의 관계는 어느 해 보다 특별했다. 양국의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몽골은 2010년이 ‘한국의 해’, 한국은 2011년이 ‘몽골의 해’로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다. 지난 3월 몽골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몽골의 해’ 행사 개막식을 가졌다. 또한 8월에는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몽골을 국빈 방문 하면서 양국 관계를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방문은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특히 몽골에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에서도 몽골의 문화예술을 홍보하는 쌍방 교류가 이루어진 한 해이었다.

또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방송국에서 한국의 최신 드라마 작품을 비롯해 오래 전의 작품도 재방영하는 등 몽골인들의 한국 드라마 애정은 여전했다. 경제 성장기에 있는 몽골의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그린 <자이언트>,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진 인기 스타 이민호가 출연한 <시티 헌터> 등 새로운 소재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누렸다. 또한 드라마 뿐만 아니라 <스타킹>, <TV 동화> 등 오락, 교육 프로그램도 몽골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한국 드라마 방영권을 공식적으로 취득한 방송사가 생겨난 것도 눈길을 끈다. 드라마와는 달리 극장에서 정식 개봉하여 상영한 한국 영화는 <아저씨> 단 한 편으로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K-Pop 공연보다 서울 팝 오케스트라, 리틀 엔젤스가 선사한 문화 공연은 한국 드라마와 가요에 익숙해진 몽골인들에게 새로운 느낌

을 심어 준 것 같다. 팝 오케스트라는 세계적인 음악을 한국 음악과 접목시킨 모습을, 그리고 리틀엔젤스 단원들은 한국 전통 춤과 노래 뿐만 아니라 유창한 몽골 노래 실력을 선보이며 더 큰 감동을 안겨 주었다.

또한 올해 한류 특징은 경제 분야로의 확산을 꼽을 수 있다. 몽골과 한국 양국의 자원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의 몽골 진출이 늘어났다. 이는 몽골의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양국 모두 관광객 수가 증가한 가운데 특히 한국관광길에 오르는 몽골인 수가 폭증했다. 그 이유로는 몇몇 여행사에서 무비자 방문이 가능한 제주도 단체 관광 여행 상품을 내세워 관광객 몰이를 하는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또한 최근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몽골 여행객이 증가했다. 몽골인과 한국인은 같은 몽고반점을 가지고 있고 유전학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아 치료 효과가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 건강검진부터 암 치료, 각종 수술, 성형수술까지 다양한 치료를 받는 몽골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밖에 삼성전자 공식 대리점이 개설되어 ‘Galaxy S’ 등 스마트 폰을 비롯한 최신 기술의 전자제품이 소개, 판매되고 있다.

취업과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한국어 열풍도 여전하다. 한국어 어학당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 유학 박람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자도 증가하고 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국어 올림피아드 말하기 대회는 확대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몽골의 교육방송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에 걸쳐 초급, 중급 과정에 해당하는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3만 명의 몽골인이 취업, 유학 결혼 등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몽골에서는 3천여 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몽골 현지인이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 상점, 미용실을 애용하면서 몽골 사회 내에 한류는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2011년 몽골 방송사의 한국드라마 등 방영 현황>

방영 채널	제 목	방영시간	방영일
UBS-1,2,3	눈의 여왕	월~일 19:30	1-2월

	미스터 굿바이	월~금 11:30, 22:00	2월
	장밋빛 인생	월~일 10:40, 17:30	1.28-3월
	태양의 여자	월~일 18:10	1.10-2월
	아내의 유혹	월~금 11:20, 20:00	12-3월
	황금 신부	월~일 11:00, 17:30	4월
	스타의 연인	월~일 18:50	5월
	로열 패밀리	월~금 10:20, 19:00	34월
	아빠 셋, 엄마 하나	월~일 10:20, 19:00	6-7월
	바람의 화원	월~일 09:50, 19:00	6-9월
	대장금	월~일 11:30, 22:00	8-9월
TV 5-1,2	역정의 여왕	월~금 09:30, 19:00	12-1월
	시크릿 가든	월~일 18:50	1.10-1.30
	괜찮아 아빠 딸	월~일 18:50	2.1-2.19
	대통령	월~일 09:50, 19:00	2.20-3월
	미남이시네요	월~일 09:00, 18:42	4월
	조폭 마누라: 영화	22:30	5월 7일
	육망의 불꽃	월~일 10:20, 22:30	7-8월
	겨울연가: 앙코르 방송	월~일 11:00, 18:00	7월
	매니	월~일 10:20, 18:30	9.9-9.26
	대조영		9.26-현재
	쾌걸 춘향	월~금 09:00, 20:00	7-8월
	웃어라 동해야	월~금 09:00, 18:00	12월 현재
TV 25-1,2	마이 프린세스	월~일 13:00, 20:00	2월-3.6
	행복합니다		3.6-4.20
	천번만번 사랑해		2-3월
	연개소문	월~일 10:00, 19:00	1-4월
	내 남자의 여자	월~금 13:00, 20:00	3-4월
	스타의 연인	월~금 20:20	6-7.5
	구인구직 만남의 장: 한국 특집 방송	22:05	7.5 고국 취업박람회 취재
	미세스 타운: 남편이 죽었다	월~금 11:00, 22:20	6.28-7.20
	사랑해 울지 마	월~일 10:10, 20:10	9.19-현재
	B TV	천만번 사랑해	월~일 20:00
눈사람		월~일 14:10, 22:20	3.20-4월
싸인		월~일 10:40, 18:10	3월-현재
드림 하이		월~금 14:10, 22:10	2-3월
결혼해주세요		월~금 12:30, 18:10	2월
미남이시네요		월~일 09:15, 17:30	1.20-2월
TV-9	모래시계	월~금 07:30, 22:10	7-8월
	나는 전설이다	월~금 10:00, 18:50	3-4월
TV 8	육망의 불꽃	월~일 10:55, 22:20	2.14-4.25

	웃어라 동해야	월~일 21:50~23:10	1-3월	
Mongol TV	추노	월~일 22:00~23:20	1.24-2.27	
	대몰	월~금 09:30, 22:00	2.28-4월	
	장화홍련	월~금 12:00, 20:00	1-3월	
	드림 하이	월~금 12:00, 22:00 토~일 12:00, 20:00	2-3월	
	싸인		4.27-5.25	
	마이더스		5.25-6.28	
	자이언트		7.1-9.19	
	드림 하이 : 앙코르 방송		7-10월	
	짝패		9.21-10월	
	씨티헌터		11.2-29일	
	49일		12.1-현재	
	스타 킹		월, 수, 금 19:30	7월-현재
	TM		아테나-전쟁의 여신)	월~일 11:10, 22:40
쉬리: 영화		00:10, 13:40	5.23-5.24	
무한 도전		19:00	7-8월	
스파이 명월		월~금 19:00	9-10월	
NBS	동이	월~일 10:00, 21:30	12-1월	
	아테나-전쟁의 여신		1월-2.17일	
	우두머리		2.17-3.5	
	친구, 우리들의 전설	월~금 20:00	6-7월	
	피아노	월~일 22:00	7-8월	
	첫 사랑	월~일 10:00, 21:30	7.4-8.2	
Eh oron	결혼 못하는 남자	월~일 10:00, 18:50	3.2-4월	
SBN TV	친절한 금자씨: 영화	22:40	9.25일	
NTV	순풍산부인과 : 시트콤	월~일 10:30	7-8월	
Bolovsrol 교육 방송	TV 소설, 동화	일 10:10-11:00	6월-현재	
	한국어 초급, 중급 수업	월~금 12:10, 13:10	현재	

몽골 정보통신규제 위원회에서 ‘TV, 라디오 방송 일반 조정 및 준수 사항’, ‘디지털 콘텐츠 일반 조정 및 준수 사항’이라는 2가지 규정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규정에 의하면 방송사는 전체 TV 광고 시간을 1시간당 15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또한 각 방송사는 몽골 국내 작가들이 제작한 작품을 총 방영 프로그램의 50% 이상 방영하도록 지정하였다. 이는 한국 드라마 방송이 늘어나게 되자 그에 따른 중간 광고 과다 방송을 제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신문과 인터넷 상에서 시청자들의 항의에 대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다. 사실 1월부터 시청자들을 통해 한국 드라마 과다 방송, 드라마 중간 광고 시간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한국, 일본, 러시아 산 드라마 보다 몽골의 국산 드라마 제작과 방송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실제로 각 방송국에서 몽골 연속극을 제작, 방영하기 시작하면서 실제 올 하반기에는 한국 드라마 방영이 적어졌다. 외국산 드

라마로는 현재 한국 드라마 이외에도 러시아, 일본, 중국, 홍콩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다. 단 한국 드라마는 방영권을 취득한 몽골 방송사를 비롯하여 교류 협력관계를 가지고 한국PD가 파견되어있는 UBS, TV9을 통해 주로 방영된다.

드라마 <자이언트>는 지난 6월에 방송된 이후 큰 인기를 얻어 9월에 다시 앙코르 방송이 이루어졌다.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과 건설, 광산산업 등 경제발전의 모습이 현재 몽골의 사회 발전상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몽골인들의 마음속에 와 닿는 드라마가 된 것이다. 일부 젊은이들 가운데에서는 주인공 조필연 어록(웃음소리 등)이 유행하기도 했다. 특히 몽골 방송국에서 방영한 <자이언트>, <드림하이> 드라마는 시청자들의 요청에 의해 앙코르 방영이 이루어질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자이언트>이후에는 신작 <짜패>가 방영 중이다. 드라마 <시티헌터는> 최근 방영된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오락프로그램 가운데는 한국의 <무한도전>과 <스타킹>이 많은 인기를 끌었다.

현재 몽골 방송국은 한국 드라마 더빙이 원활하고 화질이 좋으며 최신 작품을 주로 방송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화 산업

텡기스 극장에서 유일하게 상영된 영화 <아저씨>의 상영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상영 기간	상영 시간
2010.12.28-12.31	16:00/18:00/23:05
2011.1.1-1.12	18:10/20:40/23:05

일반적으로 몽골 극장에서 한국 영화는 많이 상영되지 않지만 몽골의 3대 극장 중 하나인 ‘텡기스 극장’은 한국이 투자하고 수도 울란바토르시와 계약하여 운영하는 극장으로써 한국 영화가 종종 상영되는 곳이다. 특별히 한국 영화 주간 등의 이벤트가 열리는 기간에는 극장에서 한국영화를 만나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주로 영화 전용 위성TV 채널을 통해 한국영화가 방영되고 있다.

지난 12월 1일 제 2호 지점을 개설한 ‘Urgoo극장’은 미국과 계약을 맺은 관계로 한국영화보다 헐리웃 영화를 더 많이 상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에 힘입어 몽골 자국영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자국 영화가 새로 제작 및 상영되고 있다.

3. 음악 산업

몽골 청소년들은 한국 노래와 한국 가수를 좋아하고 따라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통계수치나 해당 차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서점이나 상점에서 공식적인 경로로 한국가수의 음반을 접하기가 어렵다. 이제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해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접하고 있으며 팬 커뮤니티도 운영되기 시작하는 단계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을 벤치마킹하여 등장한 그룹들도 있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5인조 ‘Crush Bush’라는 몽골 남성 그룹은 음악학원 ‘Nature Sound’의 졸업생들로 2009년 6월에 결성되었다. 그룹명은 다섯 손가락처럼 5명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활동하여 몽골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겠다는 의미이며 옷 스타일, 노래 스타일, 춤 등 여러 부분에서 한국 그룹과 비슷하다. 또한 팝, 댄스, R&B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이들은 몽골에서 가장 큰 이동통신사 Mobicom과 계약을 맺고 광고촬영을 하기도 했다.

4. 공연/전시 산업

<2011년 한-몽 수교 20주년 기념 문화행사 현황>

행사명	일시/장소	주최/주관
		행사 내용
한국 식품 홍보전	5월 28일 울란바토르 백화점	한국농수산물무역협회
		한국 식품 판매, 한식 떡볶이, 오뎅, 김밥 시연, 부채춤, 태권도 등 문화 행사로 이루어졌다.
세계 고지도 속의 몽골과 코리아	7월 9-15일 현대미술관	경희대학교 혜정 박물관
		현직 대통령 운영하는 엘벡 아트 갤러리에서 몽골과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경희대학교 김혜정 박물관장의 혜정 박물관 후원 아래 양국이 공동으로 고지도 전시회를 열었다. 옛 지도를 통해 양국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회였고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았다.
문화 나담	7월 11-14일 나담 경기장	몽골 예술위원회 및 한국 예술위원회
		몽골의 대명절인 나담 축제 기간에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부대 행사로써 양국의 전통 문화 예술 공연, 공예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Grand Art Exhibition of Mongolian Young	7월 15-22일 Union of Mongolian	몽골 미술협회, 미술대, 대전 국제 문화교류협회 주최
		몽골의 젊은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그랜드 아트 주제 대회를 열어 우수 작

Artists	Artists 전시장	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격려하는 전시회이다. 총 30명의 150점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모두 다양한 장르의 미술품들이었다.
한국과 몽골 수교 21주년 기념 음악회	8월 6일 국립드라마 극장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주최 주 몽골 한국 대사관, 한인회에서 후원한 음악 공연이 한나라당 박진 의원(오케스트라 이사장)의 도움으로 몽골 국립 드라마 극장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조화, 그리고 몽골 노래 멜로디를 짧은 기간에 연습해서 연주한 모습은 몽골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이날 공연을 보러 온 관람객들이 무척 많았으나 입장권 및 좌석이 없는 관계로 아쉽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한-몽 공동 미술 전시회	8월 25일 Tsagaandarium Art Gallery	한국국제미술협회 주최 본 전시회에 참가한 화가들은 몽골의 초원에서 몽골 작가들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김창완 밴드 (산울림) 공연”	8월 28일 선진 그랜드 호텔	몽골 한인회 주최 몽골 선진그랜드호텔 야외 공연장에서 (약500석)한국 동포를 위로하기 위한 공연이 개최되었다. 한인회가 주최하고 한국 대사관, BBQ, 선진그랜드 호텔, NEC oil 등 기관들이 후원하였다.
한식 세계화 개천절 부대 행사	10월 3일 울란바토르 호텔	주 몽골 한국 대사관 한식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 판매, 기전대학교 교수 초청 한식 시연 및 시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국 의료관광 설명회, 의료기 전시회	10월 28일 칭기즈칸 호텔	대전 시청 염홍철 대전 시장의 방문이 계기가 되어 대전 시 각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 관광 설명회를 가졌다. 양국 보건 의료 분야 인사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기 전문 업체들은 수출 장비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몽골 전담부를 개설한 대전의 ‘선병원’의 사례는 현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가 되기도 했다.
The Little Angels 공연	11월 7-8일 국립 오페라 극장 11월 10일 어린이 회관	한국 문화재단 몽골교육부 차관 초청으로 방문, 로터리 클럽에서 후원했다. 2부로 구성된 공연으로 한국 어린이들이 전통 춤과 노래에 이어 몽골의 노래를 선사한 무대는 큰 감동을 선사했다.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해당 사항 없음.

6. 한스타일

<한글>

1) 세종학당 수업 시작

- 일시: 3월 7일~4월말
- 내용: 세종학당 3-4월 학기 수업 시작
- 특징: 정기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세종학당은 단기간에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타 학원에 비해 저렴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몽골 내 한글 교육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몽골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설립 20주년 행사

- 일시: 3월 25일
- 내용: 본 행사는 양국 수교를 기념하는 학술회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몽골국립대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교 교수들이 양국의 역사, 언어, 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펼쳤다.

3) 국제 교육 박람회 ‘미셀 엑스포 개최’

- 일시: 4월 29~5월 2일
- 특징: 한국 대학교가 참가하여 유학생을 유치했다.

4) 심장병 어린이 20명 무료 수술 행사

- 일시: 4월 29일
- 내용: 한국의 구세군에서 몽골 바양주르흐 구에 방과 후 학교 설립 및 심장병 어린이 20명 무료 수술 행사를 가졌다. 또한 동 학교에서 한국어, 컴퓨터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제 14회 몽골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

- 일시: 4월 29일
- 장소: 어린이 예능교육원
- 주최: 주몽골 한국 대사관 및 몽골 인문대학교

6) 한자 경시대회

- 일시: 4월 30일

- 장소: 재상 징기스칸 대학교

7) 비전 한국어 교육센터 공동 설립 협약서 체결

- 일시: 5월 17일
- 내용: 전주 비전대학 (총장 홍순직)과 몽골 민족대학교(총장 Gerelt-Od)는 비전 한국어 교육 센터 공동 설립 협약서를 체결했다.

8) 동북아 신실크로드 국제 학술대회

- 일시: 5월 20일
- 개최: 몽골 국립대학교
- 내용: 몽골의 국립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양국 역사, 언어, 문학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펼쳤다.

9) 몽골 장학 퀴즈 프로그램 서명식

- 일시: 6월 22일
- 내용: 서울그룹 장학 재단에서 몽골 장학 퀴즈 프로그램을 통해 몽골의 우수한 대학생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10) 몽골인 대상 한국어 능력시험 실시

- 일시: 9월 3일~4일
- 참가 및 합격인원: 9천명의 수험생이 등록한 가운데 4천명이 합격
- 내용: 한국어 시험 합격생은 건강검진을 받은 후 한국 고용주의 구인 요청에 의해 한국에 입국할 예정이며 금년에는 몽골에서 총 3,000명 근로자를 송출할 계획이다. 한국으로의 취업 희망자가 많은 관계로 한국어 교육 교재 판매 뿐만 아니라 한국어 단기 교육 학원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11) 몽골 후레 정보통신대학교 DB구축 사업센터 개설

- 일시: 9월 6일
- 내용: 몽골 후레정보통신대학교는 한국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DB 구축 사업 센터를 개설하였다. 후레대학교는 몽골 학생들에게 정보통신기술 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미국, 한국 대학교와 교환학생 제도를 맺고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지>

1) 한지 공예 특강 행사 개최

- 일시: 2월 18일
- 장소: 몽골 문화예술대학교

- 내용: 덕종 인형공예 교수 한지 공예 특강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복>

1) 모델 콘테스트 대회 개최

- 일시: 4월~6월
- 주최: TV9, BBQ, Mongol Model Agency
- 행사 진행 지원: 프로그램 진행에는 한국 SBS 전 PD가 행사를 지원했다.
- 수상자 특전: 한국 유학 및 한국 아시안 모델 대회 참가 기회 제공

<한식>

농심이 몽골인 입맛에 맞게 신규 개발해 출시한 ‘양고기 맛 라면’이 현지에서 유통되고 있다. 울란바타르 백화점에서는 작년에 이어 한식품 몽골 홍보전이 개최되었다. 5월 28일에는 부채춤, 태권도 등의 문화행사가 함께 펼쳐지며 인기를 얻었다. 샤브샤브 및 치킨을 주 메뉴로 하는 한 한식 업체에서 최근 ‘Black&Red’ 분식집을 개업하고 떡볶이 및 라면 메뉴를 선보였는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몽골 내 한국 식당이 많아졌고 교민 사회에서도 ‘유식업협회’가 결성하여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한 매년 몽골 외교부 산하의 ‘Diplomat Women Club’이 주최하는 정기 자선 바자회에 각국 대사관 및 국제기구 외교관들과 부인회가 참여하여 자국 기념품 및 음식을 판매하고, 그 수입을 몽골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 대사관 부인회에서 대표적인 한국 요리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7. 기타

1) 2011년 1월 10일부터 주 몽골 한국 대사관은 사증 발급 제도 간소화를 위해 3개의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자들의 편의를 제공, 구비 서류 준비 절차를 완화시켰다. 이로써 무사증 방문이 가능한 제주도 단체 관광 및 의료관광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2) 4월 8일 한국의 기아 모터스가 몽골에서 공식 지점 오픈식을 가졌다. 또한 현대 그룹 대표단이 울란바토르 시장과 면담을 가지고 택시 전달식 등의 행사가 열렸다. 또한 Next Electronics 쇼핑센터에서 삼성 브랜드 쇼룸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어 삼성전자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 있다.

3) 6월 9일에는 한국기업 포스코가 몽골 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최종대 사장이 방문 한 이번 사무소 설립으로 인해 본격적인 몽골 투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몽골에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진출했다면 이명박 대통

령 방문 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이 몽골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추세이다.

◆ 2012년 한류동향 예측

2012년에도 몽골에서의 한류는 식지 않고 그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주 몽골 한국 대사관 신축 사업이 착공되어 한국 문화원이 개설되면 다양한 분야의 한국 문화 예술이 소개될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영화 부문에서는 올해 공식 개봉한 영화 <아저씨> 한편으로만 한 해를 마무리한 관계로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내년에는 한국의 유명 영화배우가 직접 몽골을 방문하여 영화 작업을 진행하거나 한-몽 공동 영화 제작, 시사회를 갖는 등 영화 산업에서 한류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2011 카자흐스탄 한류 동향 보고

카자흐스탄 / 알마티
안창현 통신원

◆ 총 평

2011년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해’를 맞아 한국을 알리고 양국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했다. 우선 양국 정상은 2010년에는 ‘한국에서의 카자흐스탄의 해’, 2011년에는 ‘카자흐에서의 한국의 해’로 지정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드라마, 영화, 콘서트, 관광 및 사진, 한식 등을 소개하는 전시회와 공연 및 태권도 시범, 알타이 문화축제 등을 치르면서 양국 수교 19주년 동안 치러진 행사 가운데 가장 다채롭고 풍성한 한 해로 기록되었다. 5월 5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국의 해 개막식 기념공연을 시작으로 송일국을 비롯하여 카자흐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한국드라마의 배우와 주제가를 부른 가수들을 초청해 ‘한류 드라마 콘서트’를 선보였다 또한 10월 20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대구시의 대표단 및 공연단도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문화 교류와 자매결연 행사 등을 개최하고 실질 협력 사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앙아시아의 언어와 풍습, 문화로 인해 한류의 열풍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던 카자흐스탄은 최근 10여 년간 꾸준히 방영된 한국드라마 덕분에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한국문화와 한국음악 그리고 한국 드라마, 더 나아가 한국까지 동경하게 되었다. 언어의 경우만 보면 중국어 열풍이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급상승하는 추세지만 문화와 음악만큼은 한국이 단연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음식과 한국 상품, 한국어, 한국 음악이 이미 현지인들의 일상에 널리 퍼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인들이 ‘아리랑’을 불렀다면 이제는

청소년들이 K-Pop을 부르는 것으로 변했을 뿐이다. 알마티 시에서만 해도 거리마다 골목마다 한식당과 한국식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현지인들도 이제는 한국 전자제품만 아니라 국수, 김치, 불고기, 김밥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느 한식당에 가더라도 현지인이 한인들과 고려인보다 많은 건 이미 한식이 양고기, 빵과 함께 이들 생활의 일부가 됐음을 증명해준다.

특히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10여 개의 크고 작은 한류관련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고 이곳에서 커버댄스, 플래시몹, 한국 드라마 보기, 한국어 배우기, K-Pop 스타를 따르는 모임활동이 이루어진다. 그 동안 연령대가 높은 층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 찾았다면 최근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에는 비교적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류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이제 카자흐스탄 내 한류열풍은 한류의 메카인 한국에서도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에게 한류 콘텐츠는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최근 유럽에서 부는 K-Pop 열기와 중국, 일본 및 동남아시아의 한류 열기와는 다르게 중앙아시아에서는 다른 양상의 한류가 오래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었다. 내년이면 이주역사 75주년을 맞는 고려인들은 그들만의 역사와 민족의식, 문화와 관습을 간직한 채 오늘까지 한민족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들 50만 고려인은 1937년부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한인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이전까지 한류를 이끌어오고 있었다.

강제이주의 아픔을 간직한 고려인들이 지켜온 한국 문화와 전통을 이제는 고려인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현지인들도 함께 나누고 있다. 한국 문화가 이들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덕분에 드라마, 음악, 영화 등 최근의 문화 콘텐츠가 거부감 없이 현지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다. 한국주간 행사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히 콘텐츠에 열광하는 것이 아닌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카자흐스탄 내 한류의 확산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한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카자흐 주요 TV 방송국들은 그 동안 <가을동화>, <대장금>, <울인>, <다모>, <주몽>, <이산>, <허준>, <선덕여왕>, <동이>, <부자의 탄생>, <미안하다 사랑한다>, <황진이>등 한국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방영해왔으며 11월 말 현재에도 SBS의 <스타일>과 KBS의 <드림 하이>가 국영방송 ‘엘아르나’에서 방영 중이다. 국영방송 ‘하

바르'는 2011년 한 해 동안 <결혼해 주세요>, <금지옥엽>, <성균관 스캔들>, <엄마가 빨났다>, <거상 김만덕>, <제빵왕 김탁구>, <도망자: Plan B>를 방영했으며, 국영 '카작스탄' 방송국도 <동이>에 이어 MBC 드라마 <김수로>를 방영했다. 카자흐스탄의 양대 국영방송사인 '카작스탄'과 '하바르'의 한국드라마 방영은 급격한 경제발전에 지친 카자흐 국민들에게 휴머니즘과 가족애를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로 건국 20주년이 되는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남미 그리고 터키에서 제작한 드라마를 버리고 한국의 역사물과 현대 가족드라마를 마치 카자흐스탄 드라마로 착각할 정도로 즐겨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이제 어느 시골마을을 가도 한국 드라마가 단연 주부들 사이에서 수다의 중심소재로 등장할 정도이다.

2. 영화 산업

지난 6월초에는 한국영화 페스티벌이 알마티의 시이저 극장에서 있었다. 이번 한국영화 페스티벌에서는 <국가대표>, <과속스캔들>, <천년학>, <별빛 속으로> 등 다양한 한국영화가 상영되어 인기를 끌었다.

'제 7회 국제영화페스티벌 유라시아-2011'이 2011년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됐다. 이번 '유라시아-2011 영화 페스티벌'의 심사위원장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 감독 김기덕이 선정됐다. 한편 김기덕 감독의 작품 <아리랑>은 이번 영화제의 특별순서에서 상영되었다.

3. 음악 산업

2011년은 특히 한국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K-Pop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드라마의 인기는 곧 드라마 주제곡으로 이어진다. 카자흐어와 함께 러시아어, 영어, 독어, 불어에 익숙한 이곳 청소년들은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뿐 아니라 너무나도 낭만적인 한국 드라마가 이들에게는 상상의 세계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과 카자흐간의 정서와 문화는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어서 더욱 그들의 마음을 당기고 있다.

올해 2월, 4월, 10월 카자흐스탄 수도인 아스타나와 알마티에서 열린 K-Pop 콩쿠르의 열기만 봐도 그 동안 카자흐 청년들이 한국과 한국음악에 갈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이 후원하여 4월 31일 알마티시에서 열린 '제1회 KOREAN

POP FESTIVAL'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드라마의 주제곡을 선정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겨울연가 OST)', 디셈버의 '사랑 참 (아이리스 OST)', 서현의 '아파도 괜찮아요 (김수로 OST)', 휘성의 '세상이 우릴 갈라도 (로드 넘버원 OST)', 이승철의 '그 사람 (제빵왕 김탁구 OST)', 'My Memory (겨울연가 OST)', T-Max의 'Paradise (꽃보다 남자 OST)'등 대부분 드라마주제곡이었는데,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최신 인기곡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공연/전시 산업

1) 제 1회 한국 가요 페스티벌

- 일시: 2011년 4월 30일
- 장소: 카자흐스탄 국립예술 아카데미 극장
- 참가인원: 총 70여팀 참가
- 특징: 개최장소에서 300, 800km 떨어진 지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 수상 특전: 그랑프리 수상자에게 한국방문의 기회가 주어짐

2) 한국 주간 행사 (Korea Week) 개최

- 일시: 5월 초
- 장소: 수도 아스타나와 제 2의 도시 알마티
- 목적: 한국의 해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함.
- 참석 인원: 양국의 문화부 차관, 내외 귀빈 등 3,500여명 참석
- 특이사항: 카작스탄 TV를 통해 방영된 <주몽>으로 현지에서 국민배우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송일국 및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OST를 통해 알려진 가수 서은영이 참석.

3) 제3회 u-알타이 문화창조 네트워크 2011 포럼

- 일시: 7월 8일~12일
- 주최: 한국문화산업포럼, 카자흐스탄 문화콘텐츠포럼 공동 주최

4) 한국 전통 공연 행사

- 일시: 2011년 7월 13일
- 장소: 알마티 필하모니 연주회장
- 주최 및 주관: 문화재청 주최, 한국문화보호재단 및 청주시립무용단 주관
- 후원: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알마티 분관
- 참석대상 및 인원: 강제이주 1세대 어른들 및 20대 고려인 청년들, 한국을 좋아하는 카자흐인 등 총 800여명

- 공연 참가자: 송순섭 명창(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 75세), 조창훈 명인(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보유자, 70세), 김효분(가야금산조,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전수교육조교), 박근영(판소리고법,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71호 예능보유자), 봉산탈춤 보존회, 전통 예술 연주단, 청주시립무용단

5) MBC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의 815특집 ‘카자흐스탄의 한류’ 촬영

- 일시: 8월 6일
- 참가대상 및 인원: Kazakhstan K-Pop Generation, K-Pop Kazakhstan Fans United, K-Pop for Kazakhstan 등 알마티와 아스타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동호회 회원 1,500여 명
- 행사내용: 100여명의 회원들이 번갈아 가며 소녀시대,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시스타 19, 세븐, 2NE1, MISS A, 2PM, 비스트, 빅뱅, 동방신기, f(x), 샤이니 등 한국의 아이돌 스타들의 최신 곡에 맞춰 춤과 노래를 선보였다.

6)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카자흐스탄 공식 방문

- 일시: 8월 24, 25일
- 방문장소: 아스타나 중심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 한국 문화원 방문
- 방문행사: 간담회 및 음악회 진행.
안창현 교수(카자흐 국립 예술아카데미)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문화원에서 개설한 한국어 강좌 수강생 9명과 국악교실을 통해 소금, 장단, 민요, 난타 등 우리의 전통 음악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 10명 및 지난 2월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1회 K-Pop 경연 대회 1위 수상자 등이 참석하였다.
- 참석인사: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위명재 신임 문화원장, 카자흐스탄 측 문화인사

7) 제 1회 카자흐스탄 한류 페스티벌

- 일시: 10월 1일
- 참가팀: 9월 23일 치러진 예선을 거쳐 총 10개 팀이 본선 무대에 오름
- 행사특징: 한인들이 주축이 되어 카자흐스탄 문화포럼 ‘한국사랑’ (대표: 안창현)을 만들고 10월 20일 대구시의 날 기념 축하공연과 2011년 한국의 해 기념 폐막식 공연에 앞서 열리도록 함.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해당사항 없음

6. 한스타일 및 기타

재외동포재단이 지원하고 한국교육과학기술부가 운영하는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체험, 태권도, IT 연수 등 다양한 한국 관련 프로그램도 한류 확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원 1주년을 넘긴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은 올해 크게 성황을 이룬 ‘한국의 날’ 행사에서 성과와 가치가 충분히 입증될 정도로 대단한 역할을 해냈다는 것이 한인들의 평가다.

2011 우즈베키스탄 한류 동향 보고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이명숙 통신원

◆ 총 평

2011년 우즈베키스탄의 한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한-우즈 양국관계와 성숙해져 가는 한류를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다.

한류형성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류의 중심에 있는 한국드라마의 인기는 여전히 막강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드라마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하나같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라고 답할 만큼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이들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에 비해 미약했던 K-Pop은 서서히 태동을 시작하고 있으며 한국 교육원을 비롯한 각종 청소년 축제와 댄스경연대회에서 한국 가수들의 노래와 춤은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각종 경연대회에서 K-Pop과 춤을 선보이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고려인 학생들과 우즈베크 학생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춤을 배우는 등 자체적인 활동도 활성화되는 단계이다. 이웃나라 카자흐스탄에서 있었던 SM기획의 오디션소식을 전해들은 일부 청소년들은 한국에서의 가수 생활을 꿈꾸며 자비를 털어 오디션에 참가하기도 했다.

2011년 주목할 만한 한-우즈베크 교류는 자원개발 분야이다. 8월 23일, 24일 우즈베크를 공식 방문한 이명 박 대통령은 4조 5천억 원 규모의 우즈베크 '수르길 가스전'을 공동 개발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밖에도 한국형 고속도로 휴게소 착공소식과 한국

조폐공사의 양기을 면 펄프 공장가동등은 우즈벡 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크게 환영 받고 있다.

올 한해 문화적, 학문적 분야에서도 활발한 교류들이 펼쳐졌다. 대표적인 문화교류로는 한민족소리공연, 제6회 ART WEEK STYLE. UZ, 'Sharq taronalari' 와 우즈베키스탄 국립박물관에 한국관이 8월 달에 개관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다. 특히나, 한국의 사극을 좋아하는 많은 우즈벡 한류 팬들이 김치 담그기, 한국의 전통밥상, 한복 등을 눈으로 보며 체험할 수 있어 반응이 좋다.

학문적인 분야로는 우즈벡의 주몽인 'ALPAMYSH'를 한-우즈 학자들이 공동 연구하고 베루니 동방학 연구소에 한국학 센터가 문을 여는 등 깊이 있는 연구와 교류들도 이루어졌다.

백문중 한국인 사범이 이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국가 대표팀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2개, 은메달1개, 동메달4개를 획득해 역대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크게 화제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태권도 대표 선수단은 정기적으로 후원 받고 있는 우즈벡 한인회와 백문중사범에게 크게 감사를 표했으며 태권도인구가 꾸준히 증가 중이다.

한식의 인기와 함께 한국라면과 고추장, 된장, 김 등이 우즈베크인들의 식탁에서 대중화 되어가고 있다. 실례로 동네 작은 슈퍼에서 어렵지 않게 한국라면을 볼 수 있으며 러시아, 중국에서 수입 판매되는 라면과 비교해 품질과 맛에서 인정받고 있다.

2011년 이전의 한류는 한국드라마, 핸드폰, 자동차, 한국가전제품 등에 치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을 기점으로 K-Pop, 한식, 영화들이 또 다른 한류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드라마에 견줄 만큼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은 한-우즈 수교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수교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한-우즈 양국은 대규모의 교류행사들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한류는 더욱 뜨겁고 넓게 우즈벡에 전파되어 사랑 받을 것이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방영 채널	제목	방영시간	방영기간
Uzbekistan	대장금	18:00 ~ 19:00	1월 ~ 4월
	달콤한 나의 도시	20:00 ~ 22:30	4월 ~ 7월
	명성황후	17:15 ~ 18:00	7월 ~ 10월
	제빵 왕 김탁구	21:00 ~ 21:45	10월 ~ 현재
Yoshlar	이산	21:10 ~ 22:00	1월 ~ 5월
	선덕여왕	22:00 ~ 22:40	5월 ~ 8월
Tashkent	명성황후	21:10 ~ 22:00	4월 ~ 7월
	서동요	20:30 ~ 21:00	5월 ~ 10월
	천추태후	21:00 ~ 21:40	9월 ~ 현재
NTT	고맙습니다.	20:00 ~ 20:30	11월22일 ~ 현재
	히트	19:00 ~ 19:40	9월 23일 ~ 11월 21일
MARKAZ	선물	19:00 ~ 19:40	9월 ~ 현재

한국사극의 인기는 불멸의 인기를 자랑하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음. 대장 금, 서동요, 명성황후, 겨울연가 등은 1년에 한차례이상 지속적으로 재방영 되고 있음. 재방영되는 드라마에 대한 거부반응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청하기를 원함.

Uzbekistan, Yoshlar, Tashkent 등의 국영방송국에서는 가족과 중 장년층을 위한 사극이 주로 방영되고 있음. NTT, MARKAZ는 젊은 시청자들을 위한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는 양상을 보임.

한국드라마와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음. 최신 드라마와 영화를 러시아어 혹은 한국어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 보는 경우도 있음. 원하는 한국 영화, 드라마, K-POP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생겨나고 있어 양질의 한국문화 콘텐츠 공급이 무색해질까 우려됨.

2. 영화 산업

우즈벡에서 영화산업은 우리에게 여전히 불모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한국 영화를 보기 원하는 이들은 불법다운로드 혹은 러시아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CD를 구매하는 방법을 통해 한국 영화를 접하고 있음. 우즈벡에는 불법다운로드 사이트를 단속하는 법령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10월 24일~28일 타슈켄트 돔키노 극장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 영화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주 우즈벡 한국대사관의 주체로 무료로 상영되었음. ‘한국 영화제’ 소식을 접한 우즈벡 한류 팬들은 영화상영 1달 전부터 영화표를 확보하는 등 많은 기대감으로 영화제를 기다렸음. 영화상영일 첫날인 10월 24일에는 <국가대표>, 25일에는 <복면 달호>, 26일에는 <킹콩을 들다>, 27일에는 <전우치>, 28일에는 <맨발의 꿈>이 상영되었음. 영화는 매일 오후 5시와 7시 2차례 상영되었으며,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우즈벡의 상황을 고려하여 영화는 러시아어와 우즈벡어로 자막 처리되어 상영되어 큰 호평을 받았음.

3. 음악 산업

(1) 우즈벡 HIP-POP, 비보이 축제에서 선보여진 한국의 비보이 춤

5월8일 타슈켄트 고려인 문화센터 와 ‘B-Element’ 힙합 협회가 공동주최한 무대에는 힙합 인들과 비보이 팀들의 경연대회에서 한국의 힙합 곡들에 맞추어 현란한 춤 솜씨를 선보이는 고려인 학생 팀들이 있었음. 한국 힙합 곡으로 참가한 팀들은 세계적인 수준인 한국의 비보이 팀들의 스펠을 유튜브와 비디오를 보며 배웠다고 해 비보이 한국의 인기를 실감 하게함.

(2) ‘제2회 한국문화축제’에서 K-POP 인기

5월29일 ‘제2회 한국문화축제’가 한국교육원에서 열림. 30여 개 한글학교와 한국어 학과가 있는 10개의 대학에서 모인 500여 명의 학생들이 오전부터 치열한 예선을 거쳐 독창, 합창, 무용, 연극 등을 한국어로 선보였음. 많은 팀들이 K-Pop을 선보였으며 한국인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의 수준급 실력을 갖춘 이들이 많았음.

(3) KING DANCE KING 경연대회에서 K-Pop 인기

10월 9일 오후 2시 타슈켄트 시내 중심가에 있는 ‘KONTONENT’쇼핑몰 2층에서 ‘KING DANCE KING’경연대회가 열림. 그 중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와 2PM의 ‘Heartbeat’를 선보인 팀의 인기는 최고였음.

4. 공연/전시 산업

(1) 윤경아 금속공예작가 'The Blue in Silk Road' 개인 전시회 개최

우즈베키스탄 미술 갤러리에서 5월3일부터 13일까지 한국 윤경아 금속 공예작가의 'The Blue in Silk Road' 개인 전시회를 개최. 전시회에서는 금속과 보석 장식 작품들을 포함한 30 개 이상의 작품들이 선보였음. 특히, 전위 예술의 실험 정신이 가미된 한국 전통의 미술과 전통 '화조도', 잔디와 곤충 등을 소재로 한 '초 충도'가 많은 관심을 받았음. 한국의 여백의 미를 신선한 문화충격으로 표현할 만큼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음.

(2) '한민족 영혼의 감동' 공연

7월 8일, 9일 양일간 타슈켄트 투르키스톤 궁전에서 '한민족 영혼의 감동' 공연이 펼쳐졌음. 우리전통 무형 문화유산인 봉산탈춤, 가야금 산조, 판소리, 대금정악, 태평무, 소고 춤 순으로 공연됐음. 고운 한복을 차려 입고 한 떨기 꽃으로 피어난 부채춤과 태평무를 선보일 때는 '오!끄라사따! (러시아어로 오! 아름답다!)'를 외치며 모두들 공연이 빠져들었음. 판소리 공연에서는 러시아어로 된 자막을 설치해 우즈벡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 세심한 배려로 감동을 더했음.

(3) 'Sharq taronalari' (동양의 가락)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제 8회 'Sharq taronalari'에서 '서도 소리'로 참가한 박정욱, 박정국, 박진국 형제들이 그랑프리를 받음. 전통 민요부터 잡가에 이르는 가락을 선보이는 공연이 끝난 후에는 환호성과 박수갈채가 이어졌음. 대회가 끝난 후 스태프들과 각국 참가자들은 한국참가 팀의 CD를 요청하는 등 관심이 뜨거웠음.

(4) 제 6회 ART WEEK STYLE. UZ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6회 ART WEEK STYLE. UZ'에서 24일에는 한국 계명대학교 섬유학과와 프레젠테이션 과 의상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음. 섬유의 도시 대구의 명성에 걸맞게 전시된 의상들의 디자인은 물론 뛰어난 섬유 품질에 감탄했음. 수목담채에서 채색화, 상호작용적인 성격의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한국화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는 박필현 작가는 큐빅을 통해 바로 본 지구의 오염과 파멸 생성 등을 표현한 작품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음.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한국 온라인 게임 '리니지 2'의 지속적 인기.

6. 한스타일

(1) ‘전통 음식과 문화, 예술 축제’에서 한식 인기

30개국 대사관에서 참가한 축제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한국 전통 음식인 불고기, 김치, 떡, 김밥, 한국 차를 손님들에게 일일이 대접하고 설명하는 한국 대사관의 스탠드가 가장 인기를 끌었음.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대사관 관계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음.

(2) 우즈베키스탄 국립역사박물관 한국실 개관

8월에 개관한 우즈베키스탄 국립역사박물관의 한국 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특정 국가의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실을 마련한 것은 한국이 최초임. 전시실에는 조선시대 생활상과 김치 담그기 등이 전시되어 크게 인기를 끌고 있음.

(3) 우즈베크 한글 보급의 산실 세종한글학교 개교 20주년

민간 한글 보급기관인 세종한글 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아 한국 대사관 전대완 대사와 우즈베크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를 했음. 4,000명에 달하는 졸업생들 중 많은 수의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이 함께 모여 인산인해를 이룸.

(4) 제 3회 중앙아시아 성균 한글 백일장

중단위기에 놓였던 ‘성균 한글 백일장’이 우즈베크 한인의 도움으로 11월25일 개최되었음.

(5) 우즈베키스탄 베루니 동방 학 연구소 한국학 센터 설립

한국의 고대사와 관련한 자료들이 다수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베루니 동방 학 연구소에 10월 29일 계명대학교에서 한국의 고대사 연구를 위한 한국학 센터를 개설함.

(6) 한국어 배우기 열풍 지속

우즈베크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교가 100여 개, 1만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음. 수리길 가스전 개발프로젝트등과 크고 작은 많은 한국기업들의 활발한 진출로 한국어는 더욱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학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기관에 등록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음. 각종 한국어 말하기, 쓰기 대회를 통해 한국유학 혹은 견학의 기회들이 주어져 많은 우즈베크 학생들은 대회에서 입상하여 한국에 가보는 꿈을 키우고 있음.

2011 인도 한류 동향 보고

인도 / 뉴델리
김현혁 통신원

◆ 총 평

지난해 1월 한·인도 정상회담 이후 올해는 한국과 인도 두 나라 모두 무척 바쁜 한 해였다. 한국은 올해가 ‘인도의 해’, 인도는 ‘한국의 해’로서 문화행사가 넘쳐났다.

인도에서는 전통예술단이 2011년 3월 26일(토)부터 27일(일)까지 2일간 뉴델리, 29일은 첸나이에서 인도 내 ‘한국의 해’ 개막기념 공연을 가졌고 7월에는 한국의 우수 콘텐츠를 인도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한 콘텐츠 로드쇼 ‘랑데부 코리아’가 인도 뉴델리에서 7일부터 8일까지, 7월 7, 8일과 10, 11일에는 영어 뮤지컬 공연인 <흥부놀부전>이 첸나이 뮤지엄 시어터와 벵갈로르 랑가 산카라 극장에서 각각 공연되었다.

9월 14, 15일, 21-25일에는 뭄바이의 타지마할 팰리스&타워 호텔과 델리의 타지마할 호텔에서 각각 한국음식 축제를 가졌다. 11월 10일에는 뉴델리의 까마니 오디토리움에서, 13일에는 첸나이의 스리 무타 벵카타슈바 랄 콘서트 홀에서 인도 문화원과 국제교류재단의 주최로 손경순 전통춤 공연을 가졌다. 11월, 22, 23일 양일간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한 국가 중 하나인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보은공연을 펼쳤다. 한국의 해 행사는 12월 14일 극단 ‘공명’의 14일 뉴델리, 18일 뭄바이 공연을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영국의 BBC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동북 인도 8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는 어느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의 일부로 터를 잡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아리랑 TV를 시청하고 이웃 미얀마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해적판

DVD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하는 것을 벗어나 유명 연예인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한 다든지 하는 인도속의 작은 한국이 문화적으로 터를 잡고 있다. 그래서 네루대 김종민 객원교수는 이를 일컬어 ‘한국을 짝사랑하는 인도인들’이란 표현을 썼다.

국내 대기업 특히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등과 협력업체들이 자리한 남인도 항구도시 첸나이에 기업들과 협력하여 설립한 한인문화원(InKo Centre)는 문화원장 라띠박사를 중심으로 더욱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태권도 사범, 서예교사, 한글교사가 문화원의 직원으로 정식 비자를 받게 된 것을 계기로 한국인과 인도인들에게 제공되는 정기 강좌는 그 질에 있어 한층 더 향상된 면모를 보였다. 특히 ‘극단 서울’과 합작하여 진행되는 한인도 합작 영어 뮤지컬 <홍부놀부>는 지난 6월에는 한국에서, 7월에는 인도에서 상영되어 청소년들의 문화교류의 물꼬를 텃다. 매월 꾸준히 문화원에서 소개되는 한국 영화는 첸나이에 고정적인 한국 영화 팬들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 문화원이 2008년 3월,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인도국립영화진흥위원회 등과 협력 기획, 삼성전자의 후원으로 시작한 첸나이 여성국제영화는 7월 15-23일 개최되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게 된 이 영화제는 한국과 인도 장·단편 영화와 다큐멘터리에 무게를 두고 알제리아, 중국,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가나, 홀란드 등 여타 참여국들도 이 세 장르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뿐만 아니라 콜카타의 한인문화원은 꾸준히 인도인들에게 한국어 강좌를 실시하면서 한국을 알리기에 힘을 쓰고 있다. 가장 가난한 주였으나 지금은 일신의 길을 걷고 있는 비하르의 주 수도 ‘바쁘나’에 20년 가까이 터를 잡고 마가드 대학과 A.N. 칼리지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문화원인 ‘한비원’의 역할도 작다할 수 없겠다.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배우는 학생들의 바람이 한국어 학습을 통한 취업이라 점차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 이들 앞에 놓인 바람이자 과업이라 할 수 있겠다.

인도 한글교육의 본산지 네루대학교와 델리대학교는 정규 한국어 과정을 통하여 한인교류의 동량들을 배출하고 있다.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 중 일부는 교수 자원으로 한국 유학을 가고 일부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나 중소기업에 취직이 되고 있다. 네루대는 10월 초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미나 및 축하 행사를 가졌고 델리대는 11월 델리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한국 주간을 통해 한국영화를 인도 대학생들에게 소개하고 11월 중순에는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심도 깊게 한국어 학습을 평가받는 시간을 가졌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인도의 안방을 두드리고 있는 KBS World는 대하드라마 <광개토대왕>, 영문 자막이 깔리는 훈훈한 가족 드라마 <오작교 형제들> 및 각종 오락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소 진부하기만 한 인도 TV와 차별을 보이며 인도 주부들의 눈높이를 높여가고 있다.

2. 영화 산업

한때 인도 영화계를 두드리던 한국의 영화가 큰 반향을 얻지 못하고 시들해졌었는데 지난해 한국에서 방영된 <세 열간이>나 이전의 <블랙>등의 인도 영화를 통해 과연 인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학습한 한국 영화계가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고 도전해올 것을 기대해본다.

3. 음악 산업

음반 산업의 미진출로 국내 음악이 인도 본토에서는 알려진 바 없으나 동북 인도 8개주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소녀시대, 김현중 등 아이돌의 노래가 호평을 받고 있다.

4. 공연/전시 산업

상기한 한국의 해에서 공연한 내용 중 일부만 간추려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도 '한국의 해' 기념 '한국 페스티벌'

인도의 '한국의 해', 한국의 '인도의 해'를 기념하는 '2011 한국 페스티벌' 개막식이 3월 26일 'Hi India! Feel Korea!' 기치를 내걸고 인도 뉴델리 사켓 쇼핑몰 잔디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비빔밥 만들기 이벤트부터 남도 굿거리, 진도 북춤, 판소리, 부채춤, 소고춤, 사물놀이와 비보이 공연, 마술쇼, 인도 라자흐스탄 전통 음악, 한복 및 인도 사리 패션쇼, 탈춤, 볼리우드 댄스, 인도 편자브 전통 무용 등 한국과 인도의 공연이 번갈아 펼쳐지면서 두 나라간 신명나는 어울림의 순간들이 연이어졌다. 비보이의 브레이크 댄스에 이어 한국과 인도의 퓨전 패션쇼를 피날레로 마무리된 첫날 공연에는 약 1천 2백여 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27일에는 오후 6시부터 같은 공연이 이어졌고 주변에는 한국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전시관이 개설되었다. 각 한인단체와 식당 등이 참가한 음식 시장은 보는 즐거움에 먹는 즐거움까지 더하여 주었다. 귀빈으로 참석한 모칠민 문화관광부 차관은 한국문화원을 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였고 스리 산제이 싱 인도 외교부 차관 역시 두 나라의 깊고 폭넓은 교류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하여 한 단계 나아가는 문화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드높였다.

2) 랑데부 코리아-콘텐츠 로드쇼

7월 8일과 9일 뉴델리 인근도시 구르가용과 뉴델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마련한 콘텐츠 로드쇼 '랑데부 코리아'가 개최되었다. 10개의 한국 콘텐츠 기업과 30여명의 인도 주요 바이어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비즈니스 수출상담회에서 SBS 콘텐츠허브가 <그대 웃어요> 리메이크 판권 계약을, 게임기업인 인터세이브는 안드로이드 로컬 마켓 게임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8일 저녁에는 뉴델리 최대 공연장인 시리 포트 오디오토리움에서 K-POP 공연이 개최되어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하지만 현지에 비가 내리고 사전 광고가 미약했던 점 때문에 기대이하의 관객이 관람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한국의 인기그룹 팝핀 현준, 쥬얼리의 화려한 공연이 무색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에 앞선 6일 인도상공회의소(FICCI)와 콘텐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 드라마, 애니메이션, 어린이프로그램, 모바일 게임 등 콘텐츠산업이 인도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3) 리틀엔젤스 보은 공연

11월 22일 인도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고자 인도를 찾은 리틀 엔젤스의 준비성 있는 공연은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슴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불러 일으켰다. 인도의 국가, 화관춤, 봄맞이춤, 환상적인 부채춤, 시집 가는 날, 박력 있는 부채춤으로 1부 공연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감격을 나누는 인터뷰가 이어지고 곧 이어 장구춤, 인형춤, 농촌의 춤, 장난감 병정들의 춤의 2부 순서가 진행되었다. 공연의 마지막은 잘 이루어진 화음으로 한국민요, 세계 민요 그리고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고 익숙한 반데마타람(인도 초기 국가)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연의 열기는 극에 이르렀다. 관람객들은 뜨거운 앵콜 박수로 그들의 노고를 마음껏 치하하였다. 공연 마무리에 공연단은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앞으로 모셔서 꽃다발을 전달하고 이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해당 사항 없음.

6. 한스타일

해당사항 없음.

◆ 2012년 한류동향 예측

2011년을 ‘한국의 해’로 보내면서 선보인 다양한 한국 문화는 이제 한국 문화행사를 접하는 인도인들의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 주었다. 이는 곧 한류를 동북인도 뿐만 아니라 인도 본토에도 뿌리 내릴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수도 뉴델리에 한국문화원 개설이 초읽기에 들어갔고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인재들이 문화원에 포진하여 힘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2년은 문화원이 같은 건물을 쓸 예정인 관광공사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다방면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인도 속에 한국문화를 알릴 용틀임을 하는 첫 출발의 해가 되겠다.

현재 수도인 델리에 위치한 네루대와 델리대 및 콜카타대학, 비하르의 가야에 위치한 마가다대학을 통해 한국어 인재들이 배출되고 있다. 인도 한국어 교육의 실제적인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는 델리대의 김도영 교수와 네루대의 자야교수는 이 인재들을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는 인도 6대도시에 위치한 우수한 대학에 한국어 과 개설 요원들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새해에는 이들의 바람이 이루어 질 것이다.

2012년에 첸나이에 개설될 총영사관은 이미 기반을 다진 첸나이 문화원과 협조하여 더욱 활발한 문화 활동을 보일 것이다.

【 미주 지역 】

2011 브라질 한류 동향 보고

브라질 / 상파울루
임정희 통신원

◆ 총 평

2011년 브라질 한류동향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K-Pop의 열기 확산과 한국 방송, 영상물의 유입 두 가지다. 먼저 K-Pop부문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브라질에 K-Pop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더니 2010년에는 보아, 슈퍼주니어 마니아들을 주축으로 인터넷 팬 카페들이 생겨났다. 특히 슈퍼주니어의 열혈 팬들이 각종 행사에서 커버댄스 공연을 펼치면서 서서히 한류 불씨가 타오르더니 올해 들어 한국에서 실시한 각종 K-Pop 오디션 행사가 중남미까지 문을 확대하자 한류의 열기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그 불씨를 타고 브라질을 찾은 첫 번째 K-Pop 스타는 9월 7일 상파울루에서 진행된 ‘K-Pop 로드쇼 40120’ 브라질 편 심사위원 자격으로 온 엠블랙이었다. 비록 이번 엠블랙의 방문이 K-Pop의 국제화를 겨냥해 기획된 커버댄스 페스티벌 프로그램 때문이었지만 5,000여 K-Pop팬들의 환영 열기는 대단했다. 그리고 짧지만 강력했던 엠블랙의 전 일정이 브라질 공중파 TV인 Rede TV의 연예종합 프로그램 ‘Leitura Dinamica’에 소개되었다.

그동안 한국 아이돌 가수의 뮤직 비디오 등을 드문드문 소개하던 이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한국 스타 가수의 방문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청소년들이 왜 이토록 K-Pop에 열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더구나 한국어로 말한다는 건 혀가 트위스트를 칠 지경인데 브라질 K-Pop팬들은 한국어로 된 속사포 랩까지 따라한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여자 진행자는 Rede TV 방송국으로 엠블

랙을 초대하여 인터뷰를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냈다. 그동안은 주로 한국 아이돌 스타들의 뮤직 비디오를 소개해오다가 엠블랙 브라질 체류기간 동안의 활동모습 및 인터뷰 모습을 자체 촬영한 영상을 생생하게 전한 뒤, 엠블랙의 멤버들에게 미리 준비한 선물까지 전하며 입이 귀에 걸린 여자 진행자의 모습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또한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최하고 중남미 한국문화원이 주관한 제2회 중남미 K-Pop STAR 경연대회의 열기도 대단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JYP엔터테인먼트의 박진영, SM 소속 가수 보아가 심사위원으로 합류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답게 지난 1회 때는 10개국에서 92팀 281명이 참가한 것에 비해 올해에는 두 배 정도 늘어난 14개국 171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 약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대회는 한국 방송 3사와 현지 주요언론, 로이터 TV 등 국외 언론까지 합류하여 열띤 취재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류에 매혹 당한 브라질 청소년들은 단순히 춤과 노래를 따라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약 10여 개의 인터넷 한류 사이트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자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오로지 유튜브와 자체 한류 사이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수백 명이 모여 벌인 리우 데 자네이루와 상파울루에서의 K-Pop 플래시몹 시위는 흡사 K-Pop 길거리 축제를 방불케 했다.

K-Pop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자 브라질 Rede TV의 연예 프로그램인 'Leitura Dinamica'도 덩달아 바빠졌다. 1월에는 빅뱅 승리의 'Sexy Back' 뮤직비디오 소개에 이어, 며칠 뒤에 K-Pop의 흐름을 약 8분간 소개하며 구체적으로 다뤘다. 또한 드렁큰타이거의 타이거 JK와 T(윤미래)를 화상으로 초대하여 인터뷰를 나눴다. 9월은 엠블랙과의 생생 인터뷰를 거쳐 10월엔 윤미래의 '겟 잇 인(Get It In)' 뮤직 비디오 소개까지 발 빠르게 K-Pop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국 아이돌 스타를 직접 만나기를 열망하는 브라질 K-Pop팬들의 바람이 전해진 것일까, 큐브엔터테인먼트와 CJ E&M은 12월 13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비스트(BEAST)와 포미닛(4minute), 지나(G.NA)가 함께하는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 인 브라질'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K-Pop 역사상 최초로 브라질에서 콘서트를 열게 된 가수들도 설레임으로 공연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브라질 K-Pop팬들 역시 처음으로 한국 아이돌 스타의 공연을 직접 볼 수 있다는 반가움에 들뜬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다양한 한국 방송, 영상 콘텐츠의 진출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 영상에 대한 것은 주로 ‘상파울루 국제영화제’에 초대된 한국 영화 몇 편과 상파울루 시 문화원과 영사관이 공동 주최해 온 ‘한국영화제’뿐이라 한국의 방송물이나 영상물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2012년 봄 무렵에 한국 애니메이션 <마당을 나온 암탉>이 브라질 80개 극장에서 상영 예정인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영상물도 조금씩 브라질 TV에 소개될 전망이다.

지난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한 ‘2011 브라질 방송콘텐츠 쇼케이스’가 열렸다. 올해부터 브라질 상파울루에 중남미지사를 개설하고 특파원을 파견한 MBC가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89,800 달러의 판매 실적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다. 브라질과의 첫 방송물 거래로는 세계 3대 방송사로 꼽히는 브라질 GLOBO의 위성채널인 GLOBOSAT에 MBC의 3D 수중다큐멘터리 <엄홍길, 바다로 가다>가 판매됐다. 또한 브라질 국영 채널인 TV CULTURA에서는 <아마존의 눈물>에 관심을 보였다. 만약 <아마존의 눈물>이 거래된다면, 한국 사람이 만든 브라질의 아마존 이야기를 브라질 TV를 통해 브라질 사람들이 보게 되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 될 것이다.

또한 MBC 중남미지사는 11월에 한국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브라질 Itau 은행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창립한 ‘Itau Cultural’와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MBC는 앞으로 5년간 Itau Cultural에서 제공하는 영상 자료 일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방송 교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는 방송 영상 면에서 다양한 교류가 시작되었지만, 다른 중남미나 유럽과 다르게 유독 TV 보는 시간이 비교적 길고 특히 드라마를 좋아하는 브라질 사람들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드라마는 아직까지 브라질 안방 문을 뚫지 못하고 있다. 가까운 페루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도 한국의 노래, 춤, 음식, 태권도, 한글 등 전반적인 한류는 통하는데 왜 유독 드라마만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걸까?

통신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국의 드라마가 브라질 안방에 들어오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이유를 꼬집으라고 한다면 딱히 분석적인 이론을 들이댈 수는 없지만 통신원이 브라질에 처음 가서 브라질 드라마를 봤을 때의 그 생소함, 낯설음으로 설명하고 싶다.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도 브라질의 춤이나 음악, 음식 등의 문화는 비교적 쉽게 동화되었는데도 드라마만큼은 이상하게 소통되지 않는 어떤 문화적 이질감 같은 게 가로막고 있다. ‘밑바닥 정서가 달라서’라고 밖에는 더 이유를 댈 수가 없다. 고작해야 5분짜리 노래나 2시간 정도의 영화와는 확실히 다른 그 나라의 국민성,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르가 바로 드라마가 아니겠는가. 그

냥 단순히 몇몇 유명 스타의 연기력, 훌륭한 예술적 연출력을 넘어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감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긴 호흡의 장르이기에 보다 넓고 깊게 문화 산업에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드라마 진출 사업인 것 같다. 창문, 옆문, 비상구가 아닌 그 큰 나라 집집의 안방 문이 열리기 시작할 때쯤 돼야 비로소 브라질에 대한 한국의 문화산업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드라마 수출에 올인 하는 대신 쪼개서 생각해보면 브라질 TV에 진출할 수 있는 틈새 방안은 없는 것일까. 최근 '데보라'라는 브라질 기자가 한국을 방문한 뒤 26페이지에 달하는 잡지의 특집기사에서 브라질은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로 마무리한 것에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통신원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려 한다.

느림의 미학 차원을 넘어 춤추고 공차며 놀 때 빼고는 모든 일상 시스템 자체가 매우 느린 브라질이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리우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바쁘게 뿔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딱 어울리는 한국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생활의 달인>과 연습벌레 김병만이 만드는 땀 개그 <달인>코너다. 성실과 열정을 무기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고 뛰는 한국적 정서를 알리기 위한 서민 프로그램으로 이만한 것이 없을 것 같다. 또 늘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산업에서 골칫거리로 지적되는 것이 번역이나 더빙에 투자되는 시간과 돈의 수익타산점인데, 이 두 프로그램은 귀로 듣는 언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눈으로 보다보면 이미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인식의 전환마저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한다.

특별히 잘나지도 유명하지도 않지만 각자가 맡은 자기 분야에서 은근과 끈기로 극복처럼 걷다가 때론 열정의 땀방울 속에서 발견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고 토끼처럼 뛰는 김병만을 비롯한 생활 속 달인들의 가슴 찡한 이야기는 분명 브라질인들에게도 감동을 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인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되는 '빨리빨리'의 재발견 역시 브라질인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이런 정서적 공감대는 한국과 한국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확신하기에 방송분야 수출-수입에 종사하는 양국 관계자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다른 나라보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을 강조한 콘텐츠야말로 한국의 문화산업발전의 핵심이 돼야 할 것 같다. 독특한 한국만의 매력과 색깔을 가진 한국문화 생산→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확대 재생산→브라질 K-Pop 마니아층 확대→브라질 방송에서 한류 관련 방송분량 증가→한국에 대한 다양한 관심 증가→한국 드라마 등 한국의 방송, 영상물 유입 가능성 확대→한국 문화산업 콘텐츠 소비층 증가→한국을 배우려는 수요 증가→한국 방문 확대→한국

국가브랜드 상승효과는 그리 멀어 보이지 않는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1) 1월21일 브라질 Rede TV의 연예 종합 프로그램인 ‘Leitura Dinamica’ 에 빅뱅 승리의 ‘Sexy Back’ 뮤직비디오가 소개됐다.

(2) 1월 28일에는 역시 같은 프로그램에서 K-Pop에 대한 소개가 약 8분간 이어졌다. 화상으로 초대된 드렁큰 타이거의 타이거 JK와 T(윤미래)가 브라질 팬들을 향해 인사말을 하며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음악과 뮤직비디오를 상세히 소개하고 브라질에 불고 있는 한류의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었다.

(3) 5월 7일에는 브라질 TV 2채널에서 <피아노와 바느질-두 번의 물결> 이라는 브라질 영화가 방영되었는데, 영화의 내용은 한인 타운인 봉헤찌로 지역에 사는 한국인 남자와 유태인계 여자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한국인 남자 주인공, 한국 학교 학생들의 음악수업 장면, 한복, 한인공동체의 삶, 한국 배경 음악 등이 자연스럽게 브라질 안방에 비춰졌다.

(4) 5월 10일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브라질 방송통신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브로드밴드 등 방송통신 서비스, 장비·데이터 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와 정보 격차 해소 등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5) 6월 15일 브라질 일간지 에스파도 지 상파울루 1면에는 브라질 패션계의 유망주로 선정된 23세의 한인 의류 디자이너 이윤희씨의 작품 소개와 더불어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6) 7월 1일에 열린 브라질 유명 공중파 TV의 댄스대회에서 힙합댄스를 선보인 한인 청소년 팀 Reborn이 1만여 참가팀 중 동양인 최초로 준결승까지 올랐다.

(7) 7월29~31일에는 상파울루 주 태권도협회 주최로 열린 ‘태권도 페스티벌’ 행사 중 태권도 시범단의 활동 모습이 브라질 TV GAZETA에 방송됐다.

(8) 8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상파울루에서 한국 방송콘텐츠의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1 브라질 방송콘텐츠 쇼 케이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장에는 SBT, GLOBO, BANDEIRANTE, RECORDED 등 브라질 지상파 방송고위 관계자 외에도 한인회 임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으며 MBC사는 이 쇼케이스에서 <엄홍길, 바다로 가다>등을 포함하여 89,800달러의 첫 판매 실적을 올렸다.

(9) 9월 7일에는 브라질의 'K-Pop 로드쇼 40120' 브라질 편 심사위원 자격으로 온 엠블랙이 Rede TV의 연예 프로그램 'Leitura Dinamica'의 진행자와 인터뷰를 가졌다.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브라질 방송국에 초대되어 인터뷰를 가진 영상이 브라질 안방에 소개된 셈이다.

(10) 브라질 최대 미디어 그룹인 글로보(Globo S/A)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월 발행부수 7만부 규모인 'EPOCA NEGOCIO' 9월호에 한국을 11일간 방문하고 돌아온 데보라 기자의 취재기사가 표지를 장식했다. 총 26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특집기사에서는 한국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등을 폭넓게 다뤘을 뿐 아니라 각 주제별 통계 그래프와 생생한 사진도 함께 실렸다. 올해로 IT분야의 경력 18년차 전문기자인 데보라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한국인의 기본 정서로 브라질에서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며 마무리 지었다.

(11) 10월 12일자 브라질 일간지 FOLHA DE S.PAULO에 한국의 '비빔밥 유랑단' 활동 내용이 상세히 실렸다. '세계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자'며 팔을 걷어붙인 5명의 젊은이들이 비빔밥을 들고 4대륙 40개국을 돌며 '100번의 비빔밥 테이블'을 펼치던 중 10월 4일 브라질을 방문했다. 상파울루 빌라마리아 삼바클럽에서 70번째 비빔밥 밥상을 시작으로 10월 11일 상파울루대학교에서 77번째 밥상까지 차린 이들의 활동상이 소개됐다.

(12) 10월 29일 Rede TV의 Leitura Dinamica 프로그램에 윤미래의 '겟 잇 인(Get It In)' 뮤직 비디오가 소개됐다.

(13) 11월 10일 MBC 중남미 지사(지사장 정길화)는 한국 방송사로는 처음으로 브라질 Itau 은행의 Itau Cultural와 MOU를 체결, 앞으로 5년간 Itau Cultural에서 제공하는 영상 자료 일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2. 영화 산업

(1) 6월 1~7월 31일까지 브라질 한인 교포 2세 영화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 김은미 씨(Paula Um Mi Kim, 26세)의 단편영화 <엄친아>가 상파울루 시내 Paraiso (빠라이조)지하철 영화관과 Corinthians Itaquera(코린찬스 이따께라)지하철 영화관 두 곳에서 상영되었다. 김 감독이 연출한 단편 영화는 '2009 아시안 아메리칸 국제 영화제(AAIFF)'에 초대돼 호평을 받았으며 'Palmspring Festival 국제 영화제'에서는 오스카상 단편영화제 부문 수상 후보로, 칸 영화제에서는 시나리오 부문 유망주 8인에 올라 인터뷰를 갖기도 했다. 현재 김 감독은 상파울루 시청 영화진흥원에서 공모한 12만여 편의 시나리오 출품작 중 '사춘기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 <Diario de Viagem-여행 일기>가 최후의 10편에 뽑혀 영화 제작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2) 7월 15~30일까지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상파울루 시립 중앙문화원(Centro Cultural Sao Paulo)이 공동으로 주관한 '제10회 2011 한국영화주간'이 열렸다.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 <천년학>과 박찬욱 감독의 <박쥐>,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 주옥같은 작품 21편이 상영되었다.

3. 음악 산업

(1) 5월 21~22일까지 열린 '제6회 한국문화의 날' 및 봉혜찌로 한인 타운 지정 기념 행사에서 브라질 청소년들로 구성된 한국 음악 마니아들의 K-Pop 발표회가 있었다. 순수 브라질 10대들로 구성된 이들은 한국 아이돌 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그대로 재연하는 폭풍 무대를 선보여 한국문화의 날 축제에 참가한 2만여 관객을 늦은 밤까지 열광시켰다. 특히 2부 축하 공연 오프닝에는 인기 DJ '마사(Masa Mixes. 23세)'가 출연해 한층 흥을 돋웠다. 그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리믹스 하여 직접 제작하여 자신의 블로그와 유튜브에 발표한 작품이 수십만 명의 다국적 접속자에게 인정받은 인기 DJ이다.

(2) 7월 2일 리우시에서 열린 '애니메이션 축제' 행사장 내에 K-Pop을 사랑하는 브라질 청소년들이 한류문화 부스를 차리고 자체적으로 준비한 한국 아이돌 가수 브로마이드, 액세서리, 한국 관련 문화 상품들을 소개했다. 특히 행사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TV를 통해 K-Pop 뮤직 비디오를 선보였으며 관람객들에게 소녀시대의 '훗' 춤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

(3) 7월 30일 약 200여 명의 브라질 리우시의 10대 청소년들이 리우 시 플라멩고역, 시가지, 해변에서 한류 플래시몹 행사를 펼쳤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만들어낸

‘드림 스테이지 코리아’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자신이 좋아하는 한류 아이돌 가수 이름이 새겨진 종이를 높이 치켜들고 K-Pop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시위라기 보다는 감쪽한 한류 축제 현장이었다.

(4) 8월 5일 상파울루에서 ‘제9회 드림 콘서트’ 및 ‘제1회 K-Pop 경연대회’가 열렸다. 본선진출 총 15개 팀의 불꽃 튀는 K-Pop 대결이 벌어진 현장에는 약 1천 5백여 명의 관객들이 모여 ‘한국, 한국’을 외쳤다. 댄스부문은 몇 개 팀을 제외한 참가자 대다수가 자신들이 직접 제작 또는 리믹스하거나 국악기를 사용해 한국적 리듬이 돋보이는 창작물을 발표했다. 단순히 아이돌가수를 따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었다.

(5) 9월 7일에는 5개 대륙 10개국 한류 팬들이 한국 가수들의 노래에 맞춰 춤을 따라하도록 기획된 커버댄스 페스티벌 ‘K-Pop 로드쇼 40120’ 브라질 본선 무대가 열렸다. 한국 아이돌 스타인 엠블랙이 심사위원으로 브라질을 방문한 가운데 1차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입장인원이 1천여 명으로 제한된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치열할 정도였다. 경찰 추산 약 5천여 명의 K-Pop 팬들은 행사장 근처 도로를 점령한 채 한국 아이돌 그룹들의 사진과 태극기, 각종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행사가 끝날 때까지 환호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엠블랙은 심사 외에도 상파울루 인근 소로까바 지역을 방문하여 팬들과 함께 즉석 길거리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6) 9월 11~12일까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최하고 중남미 한국문화원이 주관한 제 2회 중남미 K-POP STAR 경연대회의 예, 본선대회가 열렸다. 올해는 YG의 양현석, JYP의 박진영, SM 가수 보아가 심사위원으로 합류하는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SBS 서바이벌 오디션 K-Pop STAR’를 겸해서 진행됐다. 1회 때인 지난해에는 10개국에서 92팀 281명이 참가한 것에 비해 올해에는 두 배 정도 늘어난 14개국 171팀이 예선에 참가했다.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 약 5백여 명 참가자들의 열띤 경쟁도 치열했지만, 한국 방송 3사와 현지 주요언론, 로이터 TV 등 국외 언론까지 합류, 취재 열기 또한 뜨거웠다.

(7) 10월 8일 토요일 브라질 상파울루 루스 공원에서 K-Pop 플래시몹 행사가 열렸다. 지난 7월 리우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브라질 K-Pop 플래시몹 시위는 상파울루 지역의 K-Pop 포털 사이트인 ‘케이팝 스테이션(KPOPSTATION)’ 주최로 열렸으며 약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슈퍼주니어, 2Ne1 등의 노래에 맞춰 커버댄스를 추는 등 유튜브 등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새로운 춤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8) 11월 19~20일까지 열린 한인촌 인근의 LUZ공원 211주년 기념행사에서 K-Pop마니아 브라질 사이트인 K-Pop Station 회원들이 초대되어 브라질 시민들과 한국교민 등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K-Pop 커버댄스 공연을 펼쳤다.

(9) 12월 13일 K-Pop 역사상 최초로 한국의 아이돌 그룹 비스트, 포미닛, 지나가 브라질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이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한류에 목말라하는 브라질 팬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에스코타 다스 아메리카스에서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 인 브라질'이라는 제목으로 남미 첫 공연을 펼칠 것이라고 발표했다.

4. 공연/전시 산업

(1) 4월 30일 상파울루 시립 도서관의 초청으로 '상파울루,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음악' 행사에서 한국 전통문화 공연이 열렸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총 10여 개국이 참가해 각 나라의 문화공연을 펼쳤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함께 초대 받아 한글 전시회, 어머니 합창단의 한국 노래, 한국 전통춤, 사물놀이 공연 등을 선보였다.

(2) 8월 6일 브라질 속 건강한 한국 청소년으로 자라길 바라며 문화 전도사 역할에 앞장서고 있는 청소년 문화센터 콤이 'Fresh Festival'을 열었다. 올해는 특별한 무대로 한국 가수 토니안과 별을 초청하여 브라질 교민 청소년들과 한 무대에서 합동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교포 청소년들과 K-Pop 마니아 등 1,000여명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다양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3) 9월 3~23일 한국의 국악 공연단 '들소리(Dulsori)'가 브라질을 방문, 브라질리아, 상파울루, 지오마르 문화축제, 꾸리찌바 시, Porto Alegreem Cena 축제 등을 돌며 다양한 공연 활동을 펼쳤다.

(4) 9월 29~10월 3일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상파울루 총영사관에서 협찬하고 상파울루 주 태권도 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태권도 문화공연 시범단 '탈(TAL)' 공연이 상파울루, 캄보스, 리우 시 등에서 열렸다.

(5) 10월 4~11일 비빔밥이라는 콘텐츠로 세계를 돌며 100번의 비빔밥 밥상 차리기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한국의 '비빔밥 유랑단'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70~77번째의 비빔밥 밥상을 차렸다.

(6) 10월 8~20일까지 상파울루의 Brasil 은행 CLUB에서 운영하는 Galeria de

Artes AABB에서 동양인 최초로 한인 교민 2세인 최루이스 작가의 풍경화(유화) 개인전이 열렸다.

(7) 11월 19일 한인촌에 위치한 LUZ공원 211돌 생일 기념행사에서 브라질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한국노래 합창, 부채춤, 한인 가수협회 소속 가수들의 공연, 태권도, 비보이 공연, 사물놀이, 브라질 한류 마니아들로 구성된 K-POP STATION의 커버댄스 등으로 꾸며졌다.

(8) 11월 23일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장영주)의 연주회가 상파울루에서 열렸다. 비영리 민간단체 TUCCA의 '음악을 통한 치유' 프로젝트에 초청받은 것으로, 입장권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아동 및 청소년 암 환자 치료 기금으로 쓰인다. 지난 2008년 12월 상파울루 주립교향악단의 초청 공연에 이은 두 번째 브라질 공연이다.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1) 애니메이션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감독 오성윤)이 2012년 봄부터 브라질의 80개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마당을 나온 암탉>의 해외 판매를 담당하는 배급사 화인컷은 '11월 2~9일까지 미국 산타모니카에서 열린 아메리칸 필름마켓에서 판권을 판매했다.'며 지금까지 총 40여 개국에 수출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2) 6월 29일 방송에이전시 '크릭앤리버코리아'는 브라질 제작사인 '아바파르'와 손잡고 한국 만화관련 다큐를 제작하여 브라질 국영TV 및 케이블TV를 통해 방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부작으로 제작되는 이번 다큐멘터리 <Korean Manhwa Meets Brazil>은 브라질의 시각에서 본 한국만화 시장을 다루며 한국의 만화 작품으로부터 파생된 영화, 드라마 등의 작품을 조명하는 한편 한국의 만화 관련 산업 및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이다.

6. 한스타일

(1) 4월 4일~5월 3일까지 한국의 김덕수 사물놀이 수제자 2명이 브라질을 방문, 사물놀이 특별강습을 열었다.

(2) 5월 18~22일 상파울루 피라시카바 시에서 열린 '제 28회 다문화 축제'에 한국을 비롯해 포르투갈,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 멕시코, 쿠바, 일본, 스페인, 아랍(레바논), 브라질 등 13개 공동체가 참가했다. 약 15만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에서는 공식 개막 행사로 사물놀이, 태권도 시

범, 비보이 공연 등을 펼쳤다. 또한 가야금, 장구, 북 등의 전통 악기와 한복, 태극 부채를 전시하여 선보이고 불고기와 비빔밥, 된장국 등 우리 음식을 판매했다.

(3) 5월 21~22일 제 6회 한국문화의 날 및 봉혜찌로 한인 타운 지정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틀간 약 2만여 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의 특징은 다양한 한국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다민족 국가 문화 공연팀을 초대, 더불어 즐기는 자리였다. 특히 세계 7대 경관 후보에 오른 제주도에 대해 설명하고 즉석에서 무료로 전화 투표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4) 7월 1일에 열린 브라질 유명 공중파 TV의 댄스대회에서 힙합댄스를 선보인 한인 청소년 팀 Reborn이 1만여 참가팀 중 동양인 최초로 준결승까지 올랐다.

(5) 7월 29~ 31일까지 상파울루주 태권도협회와 브라질 최초 태권도장인 리베르다지 종합체육관 주최, 주관으로 <태권도 페스티벌>이 열렸다. 브라질에 태권도가 들어온 지 41주년을 기념하는 태권도 관련 남미 최대 행사인 이 대회에는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가나 선수단과 브라질 20개 주에서 1,500여명의 선수 등 약 2,0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 주요 내용은 국제 태권도 심포지움 및 주 유단자 종합심사, 태권도 품새, 격파, 겨루기 대회, 태권도 국제세미나, 초청 시범단의 TV GAZETA 방송출연, 세계 태권도 평화봉사재단의 시범공연, 제14회 국제 미스 태권도 선발전 등이다.

(6) 9월 6~17일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R.E.D.E Brasil Recursos Humanos Ltda(대표김유나)'에서 주최하고 한인회, 민주평통 브라질지회에서 후원한 '한국 문화체험 워크숍'이 장미 문화원에서 열렸다. 브라질 대학생들이 주로 참가한 이 행사에서는 한글 배워보기, 한국 음식 직접 만들어 시식하기, 전통의상 입고 예절 배우기, 사물놀이 배워보기, 한국 춤사위 배워보기 등이 진행됐다.

(7) 9월 24일 브라질 한인미술협회가 주최하고 브라질한인회, 민주평통 브라질협의회, KOWIN에서 주관한 제18회 어린이 미술대회에 다국적 청소년 약 8백여 명이 참가했다.

(8) 10월 4~31일까지 상파울루대학교 인문대학 종합도서관에서 제5회 한글 전시회가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고 있는 한글전시회는 상파울루대학교 한국학 연구회가 주최하고 국제교류재단과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 등에서 후원한다. 상파울루대학교 한국학 연구회(회장 임윤정 교수)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한글 전시회에서는 한글창제 원리설명 배너, 훈민정음 관련 고서, 한글 서예작품, 한글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 및 각종 생활용품 전시와 한글 다큐멘터리 상영, 서예 시범 등을 통해 한글

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브라질인들에게 소개했다. 또한 한국 여원출판사의 탄탄 아동서적 시리즈 36종을 브라질에서 출판한 깔리스 출판사에서 전 시리즈를 기증, 한국의 아동문학을 소개할 좋은 기회도 가졌다.

(9) 10월 26일 브라질 한인상공회의소 나병현 회장 및 여러 한인관계자들이 '한식문화 알리기 프로젝트' 협조를 구하기 위해 상파울루 시의회를 방문하여 조세 폴리시네토 시의회 의장을 접견했다. 나 회장이 내년 3월경 한식의 날 제정 행사를 위해 한식 페스티벌, K-Pop 공연, 한국 홍보부스 등을 설치할 계획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그러자 네토 의장은 각 관련 부처에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전달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7. 기타

◆ 브라질 진출 한국기업 부문

(1) 3월 3일, 필름 패턴 편광안경 방식(FPR) 기술을 적용한 시네마 3D TV 출시를 기념해 열린 '2011 LG전자 신제품 발표회'에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한국기업의 행사에 각별한 애정을 보였던 룰라는 'LG의 첨단기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도 브라질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 5월 14일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브라질 명예영사로 취임했다. 성장 잠재력이 큰 브라질 시장 진출을 확대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5월 18~22일 상파울루 피라시카바 시에서 열린 <제 28회 다문화 축제>에 빠라시카바에 공장을 준공중인 현대차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후원에 나섰다. 수익금을 모두 지역사회 공헌 단체에 전달하기로 한 현대차는 현지화 전략으로 사회적 책임 활동을 내세우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 전략을 실천하고 있어 피라시카바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4) 6월 7~8일 상파울루에서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와 블로거 6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 스마트TV 개발자의 날' 행사를 열었던 삼성전자 브라질 법인은 7월 28일 '갤럭시 S2 공식 출시' 런칭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Globo, Rede, Uol, Estado de Sao Paulo, Folha de sao Paulo 등 브라질 유수의 언론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갤럭시 S2 런칭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5) 7월 5일 현대중공업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에 굴착기 생산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는 리우 주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2016년까지 1억 5천만 달러(약 1천597억 원)를 투자해 남부 이타치아리아 지역에 내년 말 완공 예정의 굴착기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 연간 5,000대의 굴착기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 역시 6천만 달러(약 639억 원)를 투자해 상파울루 주 아메리카나 시에 내년 하반기 중 굴착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는 연간 1,500~2,000대의 굴착기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6) 8월 11일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은 동국철강이 진출해 있는 브라질 세아라 주 빼셈에 'Cais Song-Won'이라는 한글 이름의 부두명을 선사했다. 송원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선친인 장상태(1927~2000년) 회장의 호이다. 이 날 브라질 지우마 대통령은 이날 각료들과 주지사,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르투갈어와 한글이 함께 적힌 'Dongkuk Steel 松園 장상태'라는 명판을 장세주 회장에게 건넸다.

(7) 11월 21일 삼성 기업이 브라질에서 노동자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비난을 받고 있다고 AF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을 포함한 브라질 내 한국 기업들의 작업 환경을 조사해온 카타리나 본 주벤 검사는 일부 폭행과 심리적 모욕, 생산량 압박 등으로 우울증과 근 골격계 관련 건강 이상을 호소한 노동자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해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조사는 없다며 국내외 임직원의 복지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브라질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한국-브라질 문화교류 부문

(1) 1월 1일 브라질 지우마 호세피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의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김 총리는 브라질 고속철도 사업 입찰과 관련해 호세피 대통령, 윌리엄 우하원의원과 단독회담 뒤 교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2) 3월 15일 홍재형 국회부의장이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 의장인 조세 사르네이와 단독회견을 가졌다. 이 날 방문의 주요 화제는 일본의 재난 상태와 원자력에 대한 내용들이었으며 사르네이 의장은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과 교육은 전 세계가 모델로 삼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다고 말했다.

(3) 5월 16일 박희태 국회의장이 브라질 하원 최고의 영예훈장이며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브라질 연방공화국 하원공로훈장'을 받았다.

(4) 7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을 방문한 브라질 정부 대표단과 양국 간 차관 회담 및 '제1차 한·브라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 교육·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과부 설동근 제1차관은 카를로스 노브레 브라질 과학기술부 차관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이공계 대학 및 학생·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수 유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협정(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올해부터 자국 이공계 인력 10만 명을 선발해 해외유학을 지원하는 '국경 없는 과학'사업과 연계해, 서울대·연세대·KAIST·포스텍 등 국내 이공계 대학과 석·박사 과정에 국비 장학생을 적극 파견키로 했다.

(5) 8월 5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학생 자원봉사 '해피무브' 글로벌 단원들이 상파울루 근교의 따보양 드 세하시의 빈민가에서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활동과 보육시설 봉사활동을 벌였다.

(6) 9월 13일 상파울루에서 제60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열렸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한국 대표 2011 미스코리아 진 정소라는 아쉽게도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다.

(7) 10월 18일 한국의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 장용석 박사, 한국연구재단의 김인호 박사, 이해인 박사, 박진선 교과부 과장, 최성구 비서관, 지혜진 사무관 등이 브라질한국학교(Colegio Polillogos)를 방문했다. 설동근 차관은 전·현직 교육협회 회장, 교사,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브라질을 포함해 오사카, 아르헨티나 등 특성화가 필요한 6곳의 한국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지정해 국제적인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브라질에 사는 외국인을 비롯하여 현지인들도 한국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세계적인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 11월 1일 우석대학교는 브라질 유니따우시립대(UNITAU)에 태권도학과를 설치 운영하는 등 태권도 교육에 관한 제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라질 고등교육 기관에 정식으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브라질에 태권도가 들어온 지 40여년 만에 이룬 쾌거이다. 우석대는 유니따우시립대에 태권도 전문 교수와 시범자들을 보내 이론과 실기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유니따우시립대는 우수 학생을 선발해 우석대에 교환학생으로 파견,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9) 11월 11일 최성 고양시장을 비롯한 6명의 고양시 홍보, 마케팅 관계자들이 브라질을 찾아 박상식 총영사를 비롯한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 글로벌 경제네트워크 홍보 마케팅 설명회를 가졌다.

◆ 한국에서 열린 브라질 관련 산업

(1) 1월 16일 KBS‘다큐 3일’에서 2011년을 맞는 해외교포 기획 브라질편 <따봉! 브라질-패션거리 봉헤찌로의 한인 성공기>가 방송됐다.

(2) 4월 19일 브라질 전 문화부장관이자‘브라질의 목소리’로 불리는 보사노바의 거장‘질베르토 질’의 첫 내한공연이 LG 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자키스 모렐렌바움’과 질베르토 질의 아들인‘뱅 질’과 함께 <스트링 콘서트> 를 연 이번 공연은 전석 매진됐으며, 한국과 브라질의 문화 간격을 좁힌 공연이라며 관객과 언론이 극찬했다.

(3) 7월경, 보싸다방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던 한국의 가수 나희경(24)이 보사노바의 본고장인 브라질의 리우로 건너가 브라질 현지의 유명 뮤지션들과 작업한 앨범 <히나(HEENA)>를 발표했다. 보사노바 음악만으로 15곡을 채운 첫 정규 데뷔앨범 <히나>는 곧 브라질에서도 발매될 예정이며 브라질 도시 투어 공연과 방송 일정도 잡혀 있다고 한다. 또한 공연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보사노바 음반을 만들어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4) 10월 22~29일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갤러리에서 브라질 현대 사진계를 대표하는 바르보자의 <Brazil through my Eyes> 사진전이 열렸다.

(5) 10월 26~30일 주한 브라질 대사관, 브라질 문화원, 한국-브라질 소사이어티(KOBRAS)가 공동 주최한‘제1회 브라질 영화제’가 서울대에서 무료로 열렸다. 상영작으로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장 폭력이 심한 빈민지역인 신들의 도시를 담아낸 <신들의 도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의 감독 바우테르 살리스가 연출한 <중앙역>, 브라질이 낳은 최고의 고전음악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로부스의 일대기를 그린 <빌라로부스>, 1500년대 브라질을 배경으로 한 코미디 <까아 무루-브라질의 발명>, 19세기 말 브라질의 시대상황을 담은 <까누두스의 난> 등이다.

(6) 11월 28~12월 10일까지 주한 브라질 대사관 내에서 <살아있는 브라질을 체험하다>라는 주제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브라질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강연회가 열린다. 강연회는 총 2주 코스로 브라질 정치, 경제, 역사, 문화, 포르투갈어 강좌 및 브라질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참여 강습도 준비돼 있다고 한다.

【 유럽 지역 】

2011 프랑스 한류 동향 보고

프랑스 / 파리
민지은 통신원

◆ 총 평

2011년은 2000년 이후 점차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유럽 한류의 형체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해로써 유럽한류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도입단계일 뿐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대중문화시장의 성격을 잘 파악해야할 것이라는 과제도 남겼다. 유럽, 특히 프랑스는 아시아와는 달리 특정한 대중문화콘텐츠가 사회전반적인 이슈로 자리 잡기는 힘들다. 프랑스 사회는 프랑스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문화, 식민지국가들의 문화, 이주민들의 문화 그리고 동양문화까지 다양한 문화들로 형성되어 있다. 그 중 일본은 70년대에 프랑스인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 일본문화는 프랑스 사회에서 고급문화로 자리 잡았고 타 아시아 국가들과는 독립, 분리되었다. 따라서 프랑스사회에서의 일본문화는 유럽 내 한류확산을 위한 가장 적절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현재 해를 거듭할수록 일본대중문화 소비계층들이 한류 팬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일본문화는 일식, 전통무예, 전통문화 등이 프랑스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고(70년대부터 시작된 만화,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큼)하나의 고급문화로 인지되어 프랑스인들의 생활전반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 입지에 대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즉, 대중문화콘텐츠에서 시작된 한류도 이를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연령과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방송매체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문화가 노출되었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더 큰 파급효과와 지속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10~20대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대중문화가 아시아에서 큰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에 머물러 있다는데 주목해야할 것이다.

다른 한편, 최근 프랑스 언론에서 남북관계, 북한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프랑스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는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였다. 그들의 관심은 남북관계에 집중되어 있었고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남북 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장르별 동향

1. 방송 산업

지난 2010년 10월 7일 오전 1시 30분, ‘프랑스 라디오 음악방송’에서 한국음악과 문학의 일부분이 방송되었다. 이는 2010년 한 해 동안 단 한번 있었던 공식적인 한국문화관련 방송이었다. 그러나 2011년, 한국은 프랑스 방송을 통해 자주 노출이 되었다. 더구나 단순한 수적증가만이 아니라 한국 산업기술과 문화사업 전반, K-pop과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콘텐츠, 그리고 한국인의 삶과 정서까지 모든 전반에 대해 방송되었다. 또한 France 2, France5, M6, Canal+ 등 다양한 채널과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전역에 방송됨에 따라 10~20대 한류 팬층만이 아닌 폭넓은 연령층과 계층의 시청자들에게 한국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지금까지는 한국의 화려한 면이 중점적으로 보도되었던 것과는 달리 지난 10월 1일, France5 TV를 통해 방송된 ‘한국 서민들의 삶과 정’은 프랑스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한국에 대한 호감을 상승시킨 좋은 예로 보여진다.

(1) 프랑스 국영방송 프랑스 2TV, ‘숨은 강국, 한국’ 방송

- 프로그램명: 세계를 향한 시선 (Un œil sur la planète)
- 방송날짜 및 시간: 1월 3일, 월요일 저녁 10시 50분 (1시간 48분간 방송)
- 프로그램 평균 시청률: 20.8%

(2) 프랑스 유료방송채널 Canal+, 아이돌 그룹 ‘틴탑’ 소개

- 프로그램명: 그랑저날(Le Grand Journal)
- 방송날짜 및 시간: 2월 8일 저녁 8시 10분
- 방송내용: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음악소식을 전해주는 타니아 브루나 호쑈(Tania Bruna-Rosso)의 ‘L’instant T’ 코너에서 ‘세계의 소리(La Sono Mondiale)’라는 주제로 이란, 콩고 그리고 한국의 대중가수(틴탑)를 소개.
- 시청자 반응: 코믹함을 연출하는 이란과 콩고 가수가 틴탑과 함께 소개된 것에 대해 의아함을 나타냄. 전반적으로 K-Pop이 프랑스에서 인기리에 불릴 날이 머지않았음에 반가워함. 반면 미국 팝과 유사함을 보인다고 평하면서 한국만의 색이 변질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음

(3) 제 48회 국제 TV 프로그램 박람회, MIP TV

(Marché International des Programmes de Télévision)

- 일시: 4월 4일~8일
- 장소: 프랑스 칸의 ‘팔레 데 콩그레(Palais Des Congres)’전시장
- 규모: 2만1천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에 107개국의 4천여개 업체의 미디어전문가들 참가, 약 1천 5백여개 전시
- 한국공동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으로 방송분야 27개 업체, 애니메이션 분야 18개 업체가 박람회 기간 동안 약 2천2백만 달러에 이르는 계약 성사
- 계약체결 성사된 한국드라마 및 방송프로그램: KBS미디어의 <아이리스>는 프랑스 유통사, MBC <파스타>는 불가리아 방송사, KBS 미디어의 <아무르>는 중국 CCTV, EBS <한반도의 매머드>는 이탈리아 RAI, <앙코르문명>은 미국 유력 방송채널에 각각 계약이 성사 되었다.
- Korea 3D Showcase부스: ‘3D 방송콘텐츠 제작협의회’ 소속 지상파방송사 등 11개사가 함께하여 약 35개의 3D 방송콘텐츠를 공동으로 전시

(4) ‘제2회 드라마 매니아 페스티벌(Séries Mania)’

- 일시: (4월 11일~17일)
- 장소 및 주최: 포럼데지마주(Forum des images)
- 행사내용: 한국드라마 3편(<전우>, <추노>, <아이리스>) 소개
- 특징: 페스티벌기간 내 방문객 수: 9천명(지난해 대비 60%증가)

(5) 프랑스 지상파 방송 M6, 4월 프랑스 한류팬들의 한국방문동행취재 방송

- 프로그램명: 악세 프리베(ACCES PRIVE)
- 방송날짜 및 시간: 6월 11일 17시 30분
- 방송내용: <아이돌 팬들: 아이돌을 향한 이들의 사랑이 너무 멀리가 있지는 않은가?>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팬들과 ‘락밴드 도쿄호텔’ 그리고 샹젤리제 거리에 ‘레이디 가가’가 분장을 하고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 실험 등을 통해 현재 지나치게 아이돌스타에 빠져있는 프랑스 젊은이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방송의 주된 내용이었다. 문제는 한국을 방문한 한류 팬들이 통도사 및 관문점, 지평리 등을 방문한 것은 방송되지 않았고 단지 뮤직뱅크를 방문, 아이돌과의 만남, 남대문에서 아이돌 관련 제품 구입하는 장면만을 편집하여 방송하면서 무분별하게 지나친 비용을 지불하는 팬으로 묘사되었다는 점이다. 그 외 ‘도쿄호텔’에 빠져있는 프랑스 청소년들과 이들을 걱정하는 부모의 목소리, 레이디가가 분장을 하고 샹젤리제에 나타났을 때 무조건적인 열광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장을 찍은 동영상들이 바로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것을 지적했다.
- 시청자반응: 한류 팬들 특히 4월 한국을 방문하였던 팬들은 이번 방송에 대해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즉, 기존의 사실을 왜곡시켜 보도한 방송에 대해 무조건적인 무관심과 외면하겠다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다. 또한 방송사와 동행하였던 팬들은 당시 취재진들이 한류와 한국에 대한 기초 사전지식은 물론 팬들의 한국방문에 대한 이해와 사전 조사가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 왜곡된 방송의 이유로 꼽았다. 그 외에도 방송 전에 개설된 페이스북 <Accès privé: Spécial K-Pop>과 방송사 블로그를 통해 방송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시하고 있다. 동시에 코리안 커넥션은 자신들이 K-Pop 동아리가 아닌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더욱 강조하고 있다.

(6) 프랑스 케이블방송 Canal+, SM타운 파리콘서트 현장방송

- 프로그램명: 그랑저널(Le Grand Journal)
- 방송날짜 및 시간: 6월 14일 19시 05분
- 방송내용: 그랑저널의 <쁘띠저널>코너에서 SM TOWN 공연 소개. 뿌띠저널은 약 5분간 정치, 사회는 물론 연예계까지 다양한 소식을 코믹스럽게 때로는 풍자하며 전달해주는 코너임. 콘서트 현장취재는 물론 딸과 동행한 한 어머니의 인터뷰, 유럽 곳곳에서 온 다양한 국적의 팬들, K-Pop을 따라 춤을 추는 팬들의 모습까지 공연장 안 밖의 상황을 코믹하게 구성
- 시청자반응: M6방송과는 달리 팬들로부터 이번 콘서트를 가볍고 코믹하게 잘 구성했다는 평을 받음

(7) 프랑스 지상파TV 채널 France5, 한국인의 삶과 정을 카메라에 담다.

- 프로그램명: <나는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를 것이다. (J'irai dormir chez vous)>의 정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방송날짜: 10월 1일 오후 5시 (방송시간: 약 1시간)
- 방송내용: 프랑스 지상파TV 채널 France5의 정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나는 당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무를 것이다. (J'irai dormir chez vous)>는 진행자인 '앙투안 드 막시미 (Antoine de Maximy)'가 카메라를 직접 들고 홀로 세계 곳곳을 방문하는 여행 취재기이다. 이번 한국 편에서는 한 프랑스인이 통역과 한국에 대한 별다른 사전 정보 없이 무작정 방문하여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해프닝을 카메라에 담음, 서울의 밤 문화와 8차선 도로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도심 바로 옆에 거주하는 빈민들의 삶을 함께 체험하며 그들이 나눠 주는 한국인의 정과 시골의 정도 전함
- 시청자반응: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특히 한국인들의 인간적인 면과정이 잘 전달되었으며 방송 이후 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전함.

2. 영화 산업

지난 2010년에 10편의 한국영화가 개봉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011년에는 단 3편의 작품만이 개봉되어 2000년 이후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영화계와 사회 전반에서 한국영화에 대한 평이 높아지고 있다. 2011년 시네마테크 프랑세즈에서는 홍상수 감독이 회고전을 가졌고 도빌 아시아 영화제에서도 홍상수 감독과 김지운 감독이 회고전을 가졌다. 또한 브졸 아시아 영화에서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의 한국영화 49편을 선보이는 <한국영화특집 1945~2010>특별전이 개최되었다. 한국영화에 대한 관심은 영화제에서 뿐만이 아니다. 이창동 감독의 <시>의 여주인공 윤정희가 프랑스 문화부가 수여하는 문화예술 공로훈장을 받았으며 장관은 <시>를 2010년을 대표하는 최고의 영화로 뽑았다. 영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배우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산되어 '마담 피가로'는 배우 최지우에 대해서 다루었다. 그 밖에도 파리시가 2005년 이후 매년 개최되던 '한불영화제'를 공식 후원하는 등 프랑스 행정부도 한국영화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1) 2011년 1월 호에 선정 된 한국영화

- 까이 에드 시네마 독자선정: 봉준호 감독의 <마더> 8위, 이창동 감독의 <시> 10위
- 까이 에드 시네마 선정: 봉준호 감독의 <마더> 10위

(2) 2011 시네마 페스티벌에 초청된 한국영화

- 축제 기간: 2011년 1월 19일~25일
- 내용: 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는 문화매거진 텔레라마(TELERAMA)가 주최하는 '2011 시네마 페스티벌'에 초청되었다.

(3) 제 17회 브졸 아시아국제영화제 한국특집

- 일시: 2월 8일~15일
- 테마: '한국영화 1945-2011',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외 22편 상영
- 이명세 감독, 심사위원장으로 위촉
- 박철웅 교수 연출, '특별시 사람들',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 영화제 전체 관객 수: 28,7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0% 증가

(4) 3월 16일, 홍상수 감독의 <하하하> 16개 프랑스 상영관에서 개봉

- 현지 개봉명: <HAHAHA>
- 개봉관: 파리 및 근교 5개 상영관, 지방 상영관 11개
- 현지 언론평: 16개 언론사 평균별점 3.69/5, 현지 관객평 3/5
- 르몽드 (3월 15일): 복잡성과 우아함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화

- 문화 매거진 텔레라마: <극장전>에서 볼 수 있었던 형식으로 인물들의 실패한 짓궂은 사랑들을 교착. 지난 2010년 <칸 영화제>의 비경쟁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번 작품은 그의 명성에 비해 낮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창동 감독의 <시>, 박찬욱 감독의 <하녀> 등 한국 영화 개봉 시 주요일간지들이 비평을 쏟아낸 반면, 르몽드, 리베라썬, 텔레라마 등을 제외하고는 인지도 높은 언론들이 자신들의 비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5) 영화배우 윤정희 문화예술공로훈장 수상

- 일시: 2011년 4월 5일
- 내용: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 (L'ordre des Arts et des Lettres)의 '오피시에' 수상

(6) 봉준호 감독, 칸 영화제 '황금카메라'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

- 보도일시: 르피가로 4월 9일자, 르몽드 4월 9일 및 5월 6일자

(7) 이창동감독,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 심사위원장 위촉

- 보도일시: 르몽드 4월 9일자

(8) 마담피가로, 최지우의 연기경력 소개

- 보도일시: 2011년 4월 16일
- 내용: <한국의 공주, 최지우>라는 제목으로 최지우의 연기경력 소개

(9)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수상소식

- 일시: (텔레라마 5월 25일자)

(10) 김기덕 감독의 <아리랑>을 포함한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후보작들의 상영소식

- 일시: 2011년 5월 25일~31일
- 장소: 파리시 5구에 위치한 Reflet Medicis 상영관
- 피가로스콥 5월 4째 주 발행 호에 소개

(11) 김지운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 개봉

- 일시: 2011년 7월 6일
- 현지 개봉명: J'ai rencoré le diable
- 개봉관: Opera 등 10여개 프랑스 상영관
- 현지 언론평: 19개 언론사 평균별점 4.2/5.0, 현지 관객평 : 4.0
- 텔레라마(Telerama): 이것은 감독의 뛰어난 기술적 능력이다. 전통 수사물에 서 규정된 윤리가 혼란에 빠졌다. 경찰의 잔인성, 살인자의 마조히즘은 사악

한 술래잡기와 미소 앞에 마주한 관객들의 기쁨과 공포 속에서 가득 찼다.

- 르파리지앵(Le Parisian): 김지운 감독의 이번 스릴러 복수극은 점점 더 놀라울 정도의 기술과 극도의 잔악성, 그리고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중간 생략) 우리는 공포, 환희 그리고 냉담함의 새로운 조화를 느낄 수 있다. 하나의 거대한 예술. (이하생략)
- 렉스프레스(L'Express): 이 작품은 공포물의 정점에 도달하였으며 감독의 카메라와 팬이 함께하는 새로운 복수극이다.
- 르몽드지(Le Monde): 유머, 잔인한 장면들의 반복, 역설적인 공포스러운 개그는 폭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주먹질과 신체의 절단이 마치 나쁜 것이 아닌 것으로 느끼게 한다.

(12) 나홍진 감독의 <황해> 개봉

- 일시: 2011년 7월 20일
- 현지 개봉명: <The Murderer>
- 개봉관: 'Gaumont Odeon' 등 40여개의 프랑스 상영관
- 현지 언론평: 16개 언론사 평균별점 3.6/5.0, 현지 관객평: 3.5/5.0
- 리베라씨옹(Liberation): 놀랄만한 스릴러
- 르몽드(Le Monde): 범죄영화에서 다뤄지는 방법들의 융합 그리고 에너지, 허무주의, 유머의 융화를 통해 확실히 검증된 테마로 만들어내는 방식들은 매우 놀랍다. 시나리오와 연출의 예술성과 함께 다시 한 번 그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이다. 논의의 여지가 없는 독창적인 아름다운 예술이다.

(13) '제6회 파리 한불 영화제' 개최

- 영화제 기간: 10월 11일~18일
- 주관: 한불 젊은이들의 모임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영상자료원, 프랑스 주재 한국기업, 파리시 등
- 상영작: 개막작 <씨니> 등 프랑스 미개봉 작품 50여 편
- 장소: 파리 역사의 출발지인 생 미셀에 위치한 '생 앙드레 데 자르' 영화관
- 특징: 파리지로부터 공식후원을 받는 파리시 공식축제로 인정받음
프랑스 한류 팬들의 자원봉사의 수 증가
프랑스 최대 규모의 티켓 대행예매처인 FNAC에서도 상영권이 판매

3. 음악 산업

2011년도 프랑스 한류동향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음악 산업, 그 중에서 단연 K-Pop 일 것이다. 지난해까지 프랑스 젊은 층들이 유튜브 및 기타 온라인 음원으로 K-Pop을 즐겨듣고 있다는 것만을 알 수 있었을 뿐 그 규모와 정도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10일 <SM TOWN 파리 콘서트>가 개최되면서 팬들의 존재가 가시적으로 드러났고 프랑스 현지 방송 등을 통해 프랑스 사회에 한류의 존재를 알릴 수 있었다. 즉, 한국대중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유럽 내 한류확산에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J-Pop팬들이 K-Pop팬으로 옮겨온 것처럼 프랑스 젊은 팬 층의 지속성 여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 내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확산시키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K-Pop을 통해 한국문화를 유럽에 알리고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하기 위한 노력과 전략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1) SM TOWN 파리 콘서트(6월 10일, 11일)

- 일시: 2011년 6월 10일, 11일
- 장소: 파리 18구에 위치한 제니스(Zenith)극장
- 관객규모: 약 14만명
- 현지반응: 르몽드, 르피가로, 렉스프레스 등의 일간지와 M6, Canal+ 등 TV 방송 보도
- 르몽드: 지난 4월,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SM타운 김영민 대표와의 인터뷰를 하는 등 음악 수출산업의 선두에 있는 엔터테인먼트회사들, 특히 SM타운의 '아이돌 만들기 전략'을 자세히 보도. K-Pop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던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이어 이제는 문화산업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도 전망
- 르피가로: '이미 일본, 중국, 태국 등을 접수한 9명의 긴 다리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소녀시대 등 한국의 보이&걸 밴드가 파리를 시작으로 유럽을 접수하려 한다.'고 보도. 또한 공연 연장을 위한 루브르 박물관 앞 광장에서의 팬들의 시위와 성공 그리고 아이돌 스타를 맞이하기 위해 공항으로 몰려간 프랑스 팬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 춤 등의 훈련을 받는 아이돌 스타 만들기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 그밖에 J-pop을 밀어내고 아시아를 점령한 한류의 K-Pop 프랑스 팬들 대부분이 지난 2년간 일본망가의 팬들에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분석
- 렉스프레스: 'K-Pop, 제니스 극장에 상륙하다'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에 급격히 확산된 한류 열풍에 대해서 보도. '오랜 시간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기다려온 K-Pop 팬들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는 글과 함께 90년대 초에 탄생한 K-Pop 그룹들의 수익이 미국의 블랙버스터의 수익과 비슷하다며 9명의 20대 소녀로 구성된 소녀시대는 아시아 차트의 최상위에 올라있다고 소개. 또한 4월 26일, SM타운 파리콘서트 티켓이 단 15분 만에 매진되자 수 천 명의 청소년 팬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온라인상에 등장한 암표가 225유로부터 500유로까지 거래된 소식을 전하는 등 콘서트 연장을 위한 팬들의 루브르 박물관 앞 광장에서 벌어진 플래시몹에 대한 경위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전함. 이어 영화와 게임에서부터 시작된 한류는 이미 아시아를 사로잡았으며 청소년과 젊은이들로 된 10만여 명의 프랑스 팬들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으로 확산되었다고 보도.

(2) K-Pop live Club (11월 4일, 밤 11시~ 다음날 아침 6시)

- 행사취지: K-Pop 클럽파티를 통한 브랜드 홍보
- 주최: 대상(주)
- 장소: '르 프리빌리지(Le Privilège)'클럽

4. 공연/전시 산업

(1) 안무가 서미숙의 'Contrastes'

- 일시: 2011년 1월 8일부터 16일
- 작품: 힙합댄스와 현대무용이 조화를 이룬 작품
- 주최: 무용축제 <Cite danse variations>에서 초청
(축제기간 : 2011년 1월 7일부터 30일)
- 장소: 'Suresnes Jean Vilar' 극장
- 르몽드지(1월 2일): 지면 전체에 걸쳐 작품소개 및 프랑스 공연 오디션 과정 소개
- 텔레라마(1월 5일): 두 지면에 걸쳐 무용축제와 함께 공연소개

(2) 거문고 이정주 콘서트

- 일시: 2011년 2월 4일 저녁 8시 30분
- 장소: 기메 아시아 박물관 공연장, 관객 약 200명

(3) 뿔루즈 'Made in Asia' 축제, 한국특집

- 일시: 2011년 2월 4일부터 20일간
- 주관: Made in Asia 협회

(4) 판소리 <사천가>

- 일시: 3월 8일, 17시
- 작품소개: 독일의 극작가이자 연출자인 브레히트의 1920년대 작품 <사천의 선인>을 소리꾼 이자림이 판소리와 퍼포먼스로 재연출한 작품
- 장소: 파리시립극장, 떼아트르 드라 빌(Théâtre de la Ville)
- 주최: 파리 시립극장
- 후원: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 관객: 전석 매진(90%이상 현지인), 매우 긍정적 평가

(5) 나윤선 콘서트

- 일시: 2011년 3월 17일
- 언론보도
 - 르몽드 매거진 (3월 12일): ‘금주 인물탐구’를 통해 동양에서 온 크리스탈과도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 나윤선의 음악의 삶 소개
 - 문화매거진 텔레라마 (3월 16일): 나윤선 및 콘서트에 대한 간략한 소개
- 관객 수: 관객 600명, 전석 매진
- 수상: 2010년 ‘재즈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컬부문 최고 아티스트로 선정

(6) 국립합창단(지휘 나영수) 파리공연

- 일시 및 장소: 2011년 4월 26일, 파리 마들렌 성당

(7) 오태석의 <어미> 공연

- 장소: 파리 뱅센느 공원 내 태양극장
- 극단: 한불 배우로 구성된 극단 이프스(Inter-Frontieres), 연출 신미란
- 노경식 원작의 ‘서울 가는 기차’에 이어 재불 연출가 신미란의 두 번째 한불 합작 공연
- 관객: 130석 만석

(8) 한국예술종합학교의 K’Arts 무용단, <5월의 춤> 축제에서 공연

- 일시: 2011년 5월 5일, 6일
- 장소: 파리시 18구에 위치한 파리국립고등음악무용원의 Art Lyrique
- <5월의 춤>: ‘파리 국립 고등음악 무용원(DMSMDP)’이 매년 5월 초 개최하는 무용축제
- 공연작품: 전통무용 <매화를 바라보다>, 현대무용 <What’s going on?>, 발레 <돈키호테>, <에스메랄다>, <See off>

(9) 지휘자 정명훈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회

- 일시 및 장소: 2011년 5월 6일, Salle Pleyel 극장
- 관객 수: 관객 2000명 이상

(10) 제1회 한국문화축제 코리안 커넥션

- 일시: 2011년 5월 8일
- 장소: 파리시 17구, 에스빠스 샹페레 전시장 (Espace Champerret)
- 주최: 코리안 커넥션
- 참석인원: 3000여명 이상(유료행사, 티켓현장구매가 12유로, 할인가 10유로)
- 행사내용: 한국영화상영, 한국문학, 한국화, 서예, 택견과 태권도, 국악, 사물놀이, 한국음식, 관광 등 한국 문화의 모든 것

(11) 김창열 <물방울 작가> 전시

- 일시: 2011년 5월 11일~28일
- 주최: 갤러리 JAE & MARC 및 중국문화원(Masion de la Chine)
- 장소: 중국문화원(Masion de la Chine)

(12)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공연

- 일시 및 장소: 2011년 5월 30일, 롤렝가로 프랑스 테니스 갤러리 기념 박물관 내 전시장(musée de la federation française de tennis galerie Roland Garros)

(13) <나비의 꿈>, 파리 예술의 봄 축제(Festival Printemps des Arts) 초청공연

- 일시: 2011년 6월 4일, 5일
- 장소: Arènes de Montmartre
- 극단: 'Made the World Over Theatre'(연극인 김정주 연출)
- 후원: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14) 한국 전통문화 행사

- 일시: 2011년 6월 13일
- 주최: 파리지 알리그르(Aligre) 자치단체
- 장소: 파리지 12구에 위치한 알리그르 광장(Place d'Aligre)
- 행사 내용: 오후 12시부터 17시까지, 약 5시간 동안 한식체험을 시작으로 프랑스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풍물공연, 살풀이와 칼춤 및 입춤 공연, 대금, 단수, 가야금 공연과 판소리 공연, 택견 시범 등
- 관객 수 및 반응: 약 200~300여명(개방된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관객 수를 파악하기 어려움, 5시간동안 진행되었지만 행사 내내 집중하며 힘찬 박수로 화답함. 특히 택견에 깊은 관심을 보임

(15) 이은중 사진전 <정신없는 공간, 흐트러진 사물들>

- 일시 및 장소: 2011년 6월 28일~7월 16일, 파리 4구에 위치한 갤러리

(16)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2011 파리 재즈 페스티벌> 공연

- 일시 및 장소: 2011년 7월 17일, 방센스 숲(Le Bois de Vincennes)에 위치한 '파리 플로랄 공원(Paris Parc Floral)'극장

(17) 남영호 무용단 공연 <S.U.N>

- 일시: 2011년 9월 22일
- 행사명: <영계레벵의 미디어 아트센터의 2011-2012 시즌>개막 행사
- 주관 및 장소: 영계레벵 아트센터

(18) 방혜자 개인전 <빛과 물성>

- 일시: 2011년 6월 24일~9월 25일
- 장소: 파리시 3구에 위치한 갤러리 기욤(Guillaume)

(19) 한국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전시회 <파리 국제 아트쇼>

- 일시 및 장소: 2011년 7월7일~11일, 에스파스 꼬만느(Espace Commine)
- 전시내용: 200여 점에 이르는 전통 민화, 한국화, 구상 및 비구상 서양화 등 전시

(20) 중요무형문화재 공예품 특별전시 ‘자연과 더불어 꿈꾸다’

- 일시: 2011년 9월 19일~28일
- 주최: 문화재청,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 공동주최
- 주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장소: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21) 임형주 <평화기원콘서트>

- 일시: 2011년 9월 22일
- 주관 및 주최: 앵발리드 군사박물관, 한불문화교류협회
- 후원: 주불한국문화원
- 장소: 앵발리드(Invalid)프랑스 군사박물관 내, 생루이(St Louis)대성당
- 관객: 600명이상

(22) 한국 불교예술문화제

- 일시: 2011년 9월 26, 27일
- 행사내용: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등 영화상영, 다도문화 및 불교화 그리기 등의 체험학습, 불교음식컨퍼런스 등
- 주최 및 장소: 주불 한국문화원

(23) 한국패션디자이너 10명, 파리 UNE Fashion Week의 패션 전시 ‘Seoul’s 10 soul’ 참가

- 일시: 2011년 9월 27일
- 장소: 파리 아르데코 뮤지엄 (장식공예박물관)
- 언론보도 (르몽드지 10월 1일자): 서울이 패션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고 보도

(24) 프랑스 소나무 작가협회 20주년 기념 기획전시 ‘Habiter l’image’

- 일시: 2011년 11월 9일~12월 7일

- 전시내용: 'Image'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소나무 작가협회의 사진과 비디오를 주로 다루는 여덟 작가의 테마 'habiter l'image'에 대해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해석을 선보임.
- 장소: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 후원: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25) 지휘자 정명훈 음악회 (매 공연 2,000여석 전석 매진)

- 공연 일정
 - 2월 25일: '라디오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회
 - 3월 24일: '파리고등음악원 CNSMDP' 음악회
 - 9월 23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회
- 언론보도
 - 르피가로 매거진(2월 19일): '톱 Chef 정명훈' 인터뷰 보도
 - 르피가로지(9월 12일): 르몽드지 9월 13일: 분단된 한국을 이어주는 음악대사 정명훈의 평양 콘서트 보도
 - 르피가로지(10월 1일): 정명훈의 평양콘서트 전면기사 '한국의 통일을 위한 마에스트로'
 - 르피가로지(11월 25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음악회

5.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

해당사항 없음

6. 한스타일

다른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제품들과 한국만의 스타일에 대한 주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기존에 관심을 받아왔던 전통공예와 태권도 등은 물론 한국의 미용, 생활문화 그리고 단군신화까지 그 폭이 매우 확대되었다. 특히 독일의 의약품 화장품으로 사용되었던 BB크림이 한국에서 미용용 화장품으로 재해석되면서 유럽 여성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현재 프랑스 화장품 업체들도 BB크림을 생산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유통이 확산되었다. 또한 아모레 퍼시픽의 프랑스 명품 향수브랜드 '아닉구딸' 인수 소식이 프랑스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최근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볼 수 있는 한국사회의 변화', '최첨단 도시 서울' 등이 보도되었다.

(1) 언론에 보도된 한국의 BB크림

- 르피가로 (3월 5일): 에보리양사 소개 및 브랜드, 신제품, 사용 후기 보도
- 르피가로 (3월 30일): ‘한국의 BB크림’기사 보도, BB크림의 효능과 함께 한국 브랜드, 에보리양사의 인삼 BB크림 소개

(2) 파리소재 한국식당 ‘만나’ 언론 보도

- 보도 현황: 3월 첫 째주 ‘르 피가로스콥(Le Figaro scope)’에 소개

(3) 한국문화 강연회

- 일시: 2011년 3월 23일~5월 25일
- 강연회 내용: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특징>, <한국 대중문화의 성공>, <한의학 소개>, <프랑스에서의 한국영화 배급 현황>, <굿, 한국의 샤머니즘>, <한국에 서의 개인의 위치>, <재불 한인사회의 변천사>
- 주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4) 파리 국제 박람회 (Foire de Paris)에서 한국 근대 황실공예 전시개최

- 일시: 2011년 4월 28일~5월 9일
- 장소: 파리시 15구역에 위치한 파리국제박람회장 제4홀
- 전시작품: 문화재 급 공예작품 및 한지공예, 부채, 나전칠기, 장신구, 금속 공예 등의 관광 기념품 매듭, 목공예, 옥공예, 목조 건축물에 관한 자료들을 비치하고 한글 서예 등의 현장 시연
- 주최: 근대 황실공예 문화협회(사단법인)
- 한국 공예문화의 유럽진출을 위하여 2000년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한국공예특별전시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부터 오늘날까지 프랑스 및 유럽 등지에서 국제박람회,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한국공예문화를 소개한 바 있다.

(5) 제 2회 한불문화정책 포럼

- 일시: 2011년 5월 9일
- 주최 및 장소: 프랑스 문화부
- 참석자: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외 과장급 문화정책담당자 6명과 최준호 주 프랑스 문화원 원장, 파트릭 올리비에(Patrik OLIVIER) 문화홍보부 문화사업감사실 실장의 기욤 부디(Guillam BOUDY)문화부 사무국장과 문화부의 7개 사업국장

(6) 제3회 주불 한국 대사배 태권도 대회

- 일시 2011년 5월 14일
- 장소: 로베르 샤프뵈띠에 스포츠경기장 (Palais des Sports Robert

Charpentier)

- 주최 및 주관 : 프랑스 태권도 연맹, 주불한국 대사관,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7)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Prends soin de maman)> 출판기념회

- 일시 및 장소: 2011년 6월 7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8) 르몽드지, 한국의 피씨방 소개

- 보도일자: 2011년 7월 16일자
- 기사제목: '한국의 대단한 PC방' (La folie des PC Bang en Coree du Sud)
- 기사내용: 높은 인터넷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 청소년들의 인터넷문화 보도

(9) 아모레 퍼시픽의 프랑스 명품향수브랜드 아닉구탈(Annick Goutal) 인수 소식 보도

- 언론보도: 피가로지 경제면(8월 4일자), 르몽드지(8월 5일자)

(10) 르몽드지, 한국의 불교문화유산소개

- 언론보도: 2011년 8월 25일자

(11) 세계 최대 생활디자인 무역 박람회 '2011 메종 오브제 가을' 전시

- 일시: 9월 9일~13일
- 내용: '나우! 디자인 아 비브르(now! design à vivre)'섹션 내 'Seoul Designers Pavilion' 에서 서울시 디자인 기업 18개팀, 29개 작품들 전시
- 장소: 파리 노르빌 뺑드 전시관 (Parc des Expositions de Paris-Nord Villepinte)

(12) 언론 보도 '한국의 대선조'

- 보도현황: 르몽드지 10월 8일자
- 보도내용: 단군신화와 한국사회에서 단군이 갖는 의미를 소개함. 2002년 월드컵 당시, 승리의 환호를 외치던 국민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 '단군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역사적 순간' 등을 인용.

(13) 언론 보도 '부패에 대항하는 인물, 서울 시장에 선출'

- 보도현황: 르몽드지 10월 29일자
- 보도내용: 지난 10월 26일, 박원순 무소속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은 집권 여당에 대한 반발과 야당에 대한 불신의 결과라고 보도하며 부정부패에 대항했던 그의 활동들을 보도함.

(14) 한국동화 (L'enfant et les couleurs de la vie-찬옥 출판사)를 바탕으로 한 그림자극 워크숍 개최

- 워크숍 내용: 파리소재 초, 중등학교 및 한글학교 교사들과 재불 마리오네티스트 김은영이 한국-프랑스 아이들에게 한국전통 단청의 스토리텔링 완성 및 발표
- 주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일시: 2011년 10월 31일~11월 3일
- 장소: 프랑스 국립도서관, 라빌레뜨 과학공원

(15) 태권도 퍼포먼스 'TAL'

- 일시 및 장소: 2011년 11월 16일, 유도협회
'TAL'은 태권도와 한국 무용, 타악과 함께 비보잉을 융합한 넘버별 퍼포먼스로 국가 브랜드 강화와 한류 콘텐츠 육성을 위해 대한태권도 협회와 (주)SR Group의 공동 기획.
- 주관 및 후원: 대한 태권도 협회, (주)SR Group

(16) 언론보도 <서울, 세계 최고의 최첨단 도시>

- 보도현황: 르 피가로지, 2011년 11월 18일
- 보도내용: '스마트 서울 2015'를 소개, 세계 최고의 디지털화, 첨단화된 한국의 현황을 '뉴저지 대학연구소'와 '맥킨지' 발표 등을 인용하여 보도

7. 반한류 사례

- (1) 프랑스 지상파 방송 M6의 4월 프랑스 한류 팬들의 한국 방문 동행취재 방송
- (2) 일본의 반한류 동영상, 프랑스어로 제작하여 유튜브에 배포
 - 등록일: 2011년 7월 11일
 - 유튜브에 '코리아 커넥션: 표절박람회'라는 제목으로 등록
 - 등록자 아이디는 'harfdhafdha' 로 27세의 일본인으로 추정
 - 동영상시간: 14분 35초
 - 주요내용: 한국문화가 일본문화를 표절했다고 주장

8. 기타

◆ 남북 관계 보도 소식

남북 간의 관계보도가 눈에 많이 띄었다.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12일, 평양을 방문한 지휘자 정명훈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프랑스 주요 일간지들이 남 북간의 관계에 대해 주목하였고 비슷한 시기 <북한의 소설가>라는 제목으로 프랑스에 첫 출판된 북한소설 <벗>과 작가 백남룡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일본으로 탈북한 사람들의 한국귀화조치, 한국으로 도망치는 북한 사람들, 북한의 정치상황 등 비교적 다양한 각도에서 남북간의 관계를 보도했다.

- (1) 언론 보도, <마스트로 정명훈, 남북의 음악인들이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다.>
 - 보도 일시: 2011년 9월 12일
 - 보도 내용: 프랑스 ‘필하모니 라디오 프랑스’의 지휘자 정명훈이 남북한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고 전했다. 또한 남북한에서 연주회를 가진 후 프랑스에서도 협연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전 문화부장관 자크랑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명으로 오는 12월, 프랑스에서의 남북협연음악회를 위해서 평양 방문예정이다.
- (2) ‘북한에서 소설가 되기’
 - 보도일시: 르몽드지 9월 16일
 - 보도내용: 프랑스에 첫 출판된 북한 소설<벗>과 작가 백남룡 소개. 소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북한사회의 변화 등을 분석
- (3) ‘과란만장한 인생의 북한가정, 일본까지’
 - 보도현황: 르몽드지 2011년 9월16일
 - 지난 9월 14일 탈북 하여 일본으로 건너한 한 북한가정의 남한 인도를 보도하면서 중국 또는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넘어오는 탈북인들에 대해서 다룸
- (4) 르피가로지 11월 18일, 야생동물들의 천국이 된 한국의 비무장지대 보도

◆ 재블 교민 소식

- (1) 제 3대 한인여성회 출범
- (2) 유학생 바이올리니스트 김유경 '레오폴드 벨랑 콩쿠르(5월 28일)' 현악부문 대상
- (3) 제8회 2011년 아트쇼핑 작가전에 재블 작가 참여, 5월 28, 29일 Carrousel

du Louvre

(4) '재불 한국인, 봄 나들이 행사': 5월 7일, 약 250명 참석

(5) 한가위 대축제

- 일시: 2011년 9월 10일
- 장소: 파리시 '아끌라마따씨옹(Jardin acclimatation)'내 서울정원
- 주최: 재불 한인회
- 관객 : 400여명

(6) 재불예술총연합 전시

- 일시: 2011년 9월 8일~30일
- 전시명: <역동적 시각: 층(Vision Active: Strates)>
- 장소: 소르본 대학 내 위치한 갤러리 수플로
- 주관: Art-metis, 재불예술총연합

(7) 2011년도 취업 및 창업 세미나 개최

- 일시 및 장소: 2011년 12월 6일
- 대상: 재불 유학생과 교민
- 주관: 주 프랑스 한불상공회의소
- 내용: 유학생 취업과 관련하여 파리 경시청 외국인 담당부서에서 학생 체류증 관련, 신분변경 절차 설명 및 프랑스 거주 한국인의 체류 및 노동 조건의 간소화된 내용 설명과 기 취업자들의 취업 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